



서울시대부고

2022 겨울호 제122호 동창회보



부고인의 자랑
석은옥 12회

달걀 먹으면 장수한답니다

유재흥 25회
가농바이오 회장



자랑스러운 부고인상

최명상 14회 (전)공군대학총장
류병일 24회 삼성전자 고문



총동창회장을 파치며
이강년 25회



신임
총동창회장
이진형 26회

아웃소싱·헤드헌팅 서비스
김여영 21회 · S&B휴먼 대표



아듀! 2022



쪽갈비집 주인장
이정근 57회



사이버대학교 재학생 수 1위

서비스품질지수 사이버대학 부분 8년 연속 1위

국내 최초 사이버대학원 설립 및 학생수 1위

대한민국 교육브랜드 17년 연속 대상

교육부 원격대학평가 전 영역 최우수 등급

Thanks



To

더 많은 가능성을 키우겠습니다

더 크게 베풀겠습니다

세상을 대표하는 배움이 되겠습니다

변함없이 최고를 향해 정진하겠습니다

No.1 사이버대의 이름을 지키겠습니다

Global No.1 사이버대학교
한양사이버대학교

언제 어디서나 학습자 중심, 배움의 장

No.1 한양사이버대학교와 함께 해온 지난 20년의 열정과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다가올 미래에는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를 리드하는 큰 교육을 펼쳐나가겠습니다

20th
ANNIVERSARY
HYCU

모집기간 : 12월 1일(목) ~ 1월 10일(화)

문의전화 : 02)2290-0082

홈페이지 : go.hycu.ac.kr

한양사이버대학교
23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 모집

모집학과

기계자동차공학부 기계제어공학과 / 자동체T융합공학과 / 건축도시건설공학부 디지털건축도시공학과 / 전기전자통신공학부 전기전자공학과 / 정보시스템통신공학과
컴퓨터·소프트웨어공학부 응용소프트웨어공학과 / 컴퓨터공학과 / 해킹보안학과 / 경영학부 경영정보·AI비즈니스학과 / 글로벌경영학과 / 마케팅학과 / 생산물류유통학과 / 재무·회계·세무학과 / 호텔관광외식경영학부 관광항공경영학과 / 호텔외식경영학과 / 사회과학부 경제금융자산관리학과 / 광고미디어학과 / 법·공무행정학과 / 보건행정학과 / 부동산학과 / 사회복지학과 / 실버산업학과 / 아동학과 / 플랫폼교육공학과 / 심리상담학부 군경상담학과 / 미술치료학과 / 상담심리학과 / 청소년상담학과 / 국제언어문화학부 영어학과 / 일본어학과 / 한국어교육·문화콘텐츠학과 / 디자인학부 건축공간디자인학과 / 뉴미디어디자인학과 / 리빙디자인학과 / 시각디자인학과 / 예술문화디자인학과



어둡고 낯선 골목길도
동행자가 있다면
더 쉽게 빠져나올수있다
혼자 보다는 여럿이 낫다
<박병철>

2022년 한 해 동안 함께 동행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올 한 해 힘든 시기를 “여러분 덕분에” 잘 버티고 잘 살아냈습니다.
온 마음으로 감사를 전합니다.

만약 혼자서 이 힘든 시기를 견뎌내야만 했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힘들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때로는 따뜻한 응원의 문자로, 사랑이 담긴 전화로, 예상하지도 못한
깜짝 선물과 만남으로 그리고 꾸준한 기도로 응원해주셨지요.
그래서 버틸 수 있었고 견딜 수 있었고 어려움 속에서도 삶이 주는
소소한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었고 좌절하지 않고 미래를 꿈꾸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라는 이름으로 동행자가 되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마중하는 시기에 들려오는 어두운 소식들이
우리를 불안하고 두렵게 만들 수 있지만 우리가 함께라면 앞으로도 잘
버텨내고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듭니다.
우리 앞으로도 주욱~~~ 함께 동행하면 좋겠습니다.

마음에 밝은 희망의 햇살을 가득 담아,

편집위원 일동

CONTENTS 목차

COVER STORY

- 04 그대들의 열정이 있기에...천하부고는 계속됩니다
제47차 정기총회·자랑스러운 부고인상 시상식

NEWS & PEOPLE

- 06 종합뉴스 신임동창회장 이진형(26회) 선임 외
- 08 자랑스러운 부고인상 수상 소감
- 11 이임사·총동창회장을 내려 놓으며
이강년(25회, 제28대 총동창회장)
- 22 회원동정
- 40 미주알 고주알
- 41 신간안내

INTERVIEW

- 12 석은옥 (12회·봉사활동가, 故 강영우 박사 부인)
- 14 김여영 (21회·S&B휴먼 대표)
- 15 김민승 (47회·(주)다다크리에이션 대표)
- 16 유재흥 (25회·가능바이오 회장)
- 18 이정근 (57회·쪽갈비 전문점 '인생극장' 대표)
- 20 이건한 (64회·레퍼)

MEMBERS & BRANCH

- 24 지회소식
- 30 성우회·사대부고 성탄축하예배의 추억
선후배 모두 함께 부르는 헨델의 할렐루야 잊지못하죠
- 36 임원회비 및 연회비 납부자 명단
- 38 글로벌 동창회 소식
애틀란타 동창회 / 뉴욕 동창회
남가주 동창회 / 토론토 동창회
- 42 팔순에 떠난 14회 졸업60주년 기념여행
모두 건강하자고요...구순 여행 가야하니까
- 46 24회 졸업50주년 수학여행
50여 년만에 찾은 경주 불국사 계단엔
까까머리 소년·단발머리 소녀가 '어른어른'
- 50 동기회소식

ALMA MATER NEWS

- 58 모교소식



2만 8천 명이 구독하는 동창회보

발행인 이강년 발행일 2022년 12월 20일 발행처 서울사대부고동창회 홈페이지 www.snubugo.net

편집위원장 한경준(31회) 편집위원 정교철(24회) 송원기(30회) 이윤형(33회) 조용식(35회) 류한경(36회) 문효숙(38회) 임재승(41회) 전수용(45회) 김제나(73회)

주소 04600 서울시 중구 다산로 43 전화 02)588-7871 팩스 02)588-7872 이메일 snubugo@chol.com 디자인 한스 02-3273-1247

1982년 12월 15일 첫 호가 발행된 서울사대부고동창회보는 2만 8천여 동문과 더불어 동창회 4대 지표인 참여·대화·협력·번영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그대들의 열정이 있기에 .

제47차 정기총회 · 부고인상 시상식

자랑스러운 부고인상을 수상한 최명상(14회, 전 공군대학총장) 동문을 비롯해 300여 명의 선·후배들이 한자리에 모인 ‘제47차 정기총회’가 지난 12월 6일 엘타워 7층 그랜드홀에서 개최됐다.

이날 정기총회에서 이강년(25회) 총동창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총동창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지속 가능한 동창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소통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는 동창회보의 확대 발행을 통해 10회 이전 선배부터 60, 70회 후배까지의 저변 확대와 미주 연합 동문들의 기사와 응원 광고 유치하는 성과를 이루

었다”라며 “1000명 이상에게 알림 전달을 위해 구축한 알림톡 채널 가입과 동문들의 취미와 주소 변경 등이 자유로운 선농 수첩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 신임 동창회장으로 선출된 이진형(26회) 동문은 “보람 있고, 유익하며, 즐거운 총동창회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히며 “국내·외 기존 및 신규 지회 활동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2022년 행사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와 함께 내년도 행사 계획 및 예산안 승인이 이루어졌다. 2부에서 진행된 시상식에서는 자랑스러운 부고인상을 비롯해 성기학 고문(17회)에 대한 공로패, 공로상, 감사장, 모범





.. 천하부고는 계속됩니다

교사 표창, 총동창회장 공로패 등이 수여됐다. 3부에서는 이강년 총동창회장의 트럼펫 연주, 셔플댄스, 그리고 총동합창단의 합창 등의 공연을 감상하며 만찬을 즐겼다.

〈공로패〉 성기학(17회, 고문)

〈공로상〉 이경진(29회, 청구회 회장), 정순철(36회, 총동문산학회장), 임성원(48회, 선농가족체육대회), 노용오(33회, 모범기수상)

〈감사장〉 동창회 발전기금: 각각 1,000만원
24, 34, 44회 동기회, 심상인(27회, 상임부회장)

• 임원회비 완납기수: 20, 21, 23회

• 임원회비 최다납부: 25회

• 동창회비 최다납부: 17회, 23회

• 모범교사 표창: 권승만(역사), 허철호(수학),

김양희(사회), 변정효(지구과학)

〈총동창회장 공로패〉 이강년(25회, 전임총동창회장)

〈찬조 내역〉

• 물품찬조: 성기학(17회) / 노스페이스 티셔츠 330벌

강상빈(19회) / 미네럴 핑크소금 10세트

이상민(39회) / 네오라이프 마스크 320매

• 기별찬조: 50만원: 13, 14, 15, 16, 16(왕), 19, 22, 42회

100만원: 17, 20, 25, 26, 30회

• 지회찬조: 50만원: 나라사랑모임



제24회 '자랑스러운 부고인'에 최명상 (14회), 류병일 (24회)

제24회 '자랑스러운 부고인상'으로 최명상(14회), 류병일(24회) 동문을 만장일치로 선정했다. 자랑스러운 부고인상은 매년 국내·외를 막론하고 사회적으로 모교의 명예를 드높인 인물을 선출하여 연말에 개최하는 정기총회에서 시상식을 한다. 최명상 동문은 전 공군대학총장으로 국가안보와 영공수호에 헌신해온 국가유공자로



최명상 (14회)



류병일 (24회)

34여 년간 군에 헌신한 업적으로 많은 표창장을 받았다. 류병일 전 삼성전자 부사장은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에서 24년 동안 일하면서 오늘날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의 초격차 기술발전의 초석을 놓았으며, 대한민국의 메모리 반도체산업이 부동의 세계 1위를 유지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수상소감 8페이지>

신임동창회장 이진형(26회) 선임

지난 11월 10일 총동창회관에서 열린 2022년 제2차 정기이사회에서는 동창회장 추천위원회의 만장일치로 추대한 제29대 총동창회장 이진형(26회/ Global Procurement Partner 대표) 동문을 추인했다.



<이진형 회장 주요 프로필>

- 1974 서울사대부고 졸업
- 1978 서울대 공대 기계설계학과 졸업
- 1974 - 1978 서울대 공대 기계설계학과
- 1978 - 1980 ROTC 16기 근무
- 1983 - 1985 한국과학기술원 산업공학과 석사
- 1980 - 2015 삼성엔지니어링
- 1996 - 2002 삼성엔지니어링 미국 지점장(휴스턴)
- 2017 - 2022 GPC(Global Procurement Co., Ltd) 대표

2022년 제2차 정기이사회

지난 11월 10일 총동창회관에서 열린 정기이사회에서는 2022년 사업보고 및 행사보고에 이어 2022년 행사 및 회계 결산안과 2023년 행사 계획 및 예산안 승인이 진행됐다. 기타 안건으로 자랑스러운 부고인상 규정 제3조, '자랑스러운 부고인상은 1년에 1~2명을 선정한다.'에서 '1년에 1명을 선정한다.'는 것으로 개정했다. 또한 40대 이후 기수에게 뉴 리더상(가칭)을 만들어 젊은 기수에게도 자랑스러운 부고인의 영예를 누릴 기회를 제공 하자는 의견에 합의했다.

300여 동문 참석 선농가족체육대회

지난 10월 9일 모교 운동장에서 진행된 48회 주관 선농가족체육대회가 우중에 진행되었다. 하지만 코로나로 3년만에 진행된 체육대회여서 그런지 열기가 가득했으며 비가 내림에도 불구하고 300여 명이 가까운 동문들이 모여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동창회 발전기금 1,000만 원 기탁



지난 8월 25일 총동상임부회장 심상인(27회, 사진) 동문이 동창회 발전기금으로 1천만 원을 기탁했다. 또한 자랑스러운 부고인상을 수상한 최명상(14회) 동문이 1백만 원, 류병일(24회) 동문이 1천만 원을 쾌척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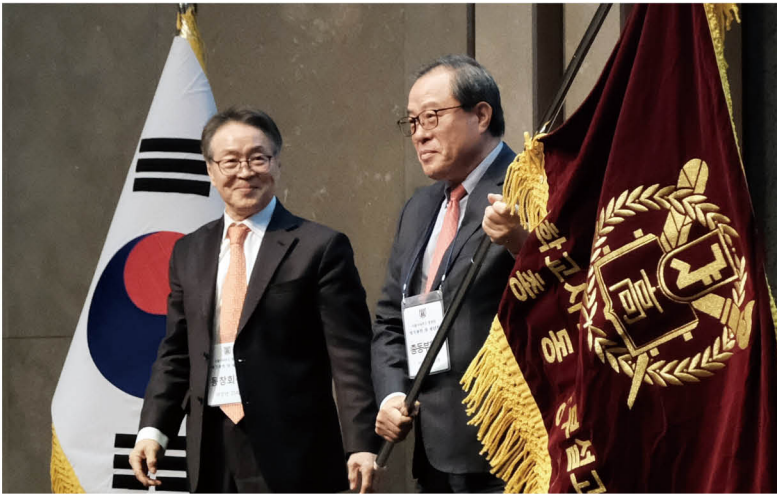
동창회장배 탁구대회 24회 단체우승



지난 11월 5일 토요일 모교 강당에서 개최된 제2회 동창회장배 선농가족 탁구대회에서 24회가 단체우승을 차지하고 25회가 준우승을 차지하였다.



제47차 정기총회·부고인상 시상식



가을비도 동문체육대회 열정을 막을 순 없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선농가족체육대회를 개최한다는 설렘은 굵은 빗방울로 위기를 맞았었습니다. 48회 저희 동기들은 동문 노래자랑으로 프로그램을 변경하여 체육이 빠진 체육대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갑자기 변경된 프로그램이었지만, 기수별 대표분들이 노래하실 때 모든 동기분들이 함께 나와 즐기시며, 행복한 웃음을 보여주신 열정 가득 선배님들... 부족한 체육대회 너무나 열정적으로 즐겨 주셔서 고맙습니다.

동기모임이 따로 없었던 저희 48회였기에 과연 체육대회를 진행할 수 있을까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체육대회를 준비한다는 소식을 듣고 바쁜 직장생활과 육아에도 하나 둘 모이기 시작하였고, 체육대회 당일에는 많이 참여하지 못해서 미안하다며 아침부터 달려와준 동기들 덕분에 부족하지만 선농가족 체육대회를 잘 진행할 수 있었고, 동기회도 정식으로 발족할 수 있었습니다. 힘든 직장생활과 육아



에도 서로서로 도와주며 준비해준 동기들 고맙습니다. 체육대회를 준비하면서 후원물품과 후원금 모금이 무척 힘들었습니다.

3년간 진행되지 않았던 체육대회, 긴 코로나 시국이 계속 이어져 모두가 힘든 시기에 얼굴도 잘 모르는 선배님들께 후원금, 후원물품을 이야기를 꺼내기가 무척이나 죄송스러워,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3년 만에 체육대회를 진행한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고생한다며 후배들을 걱정해 주시고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신 선배님들 덕분에 체육대회를 잘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성원(48회)

최명상(14회 전 공군대학총장) 자랑스러운 부고인상 수상 소감

류병일(24회 삼성전자 고문)



김정은의 핵위협에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국가안보상황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김일성의 협박을 이겨내는데 일조한 비화를 소개하고자 한다.

나는 1975년 F-4 팬텀기 조종사였다. 김일성이 신년사에 서해 5개 도서가 북한 땅이라고 선언(?)하자 인천-백령도 여객선이 두 달째 출항을 못했다. 마침내 박정희 대통령이 결단, 출항을 강행하면서 F-4 전폭기로 공중 엄호하고 적기가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오면 격추하고 해주, 태탄, 사곶 등을 보복공격하라는 특명을 받았다. 다시 못 볼지도 모르는 아내에게 갑자기 출장간다는 말을 남기고 출격에 임했다.

자정이 가까워 세 번째 출격비상벨이 울렸다. 긴급이륙 NLL을 향해 탐색 중 48마일 전방에서 수상한 항체를 발견했다. 적기(MIG-21)였다. 나는 숨이 가빠졌다. 조종사가 된 이래 처음으로 적기를 내가 잡은 것(Lock on)이다. 최고속도로 추격 30마일 20마일 접근하면서 모든 무장을 장전했다. 곧 전투가 벌어질 극한상황에서 어린 딸과 아내 그리고 어머니의 모습이 순간적으로 스쳐갔다. 그런데 발사직전 적기가 북쪽으로 도망가기 시작했다. 그러자 나의 편대도 남쪽으로 선회하라는 지시다. 무슨 소리, 일격필추 결의로 방아쇠를 당기려는 순간 “나 사령관인데 00편대 즉각 남쪽으로 틀어라”는 작전사령관의 엄한 명령이다.

기지로 귀환하니 비행단장이 다가와 “최소령 잘했어, 을지무공 훈장감”이라고 했다. “적기를 격추 못해 분합니다”했더니 “네가 김일성을 이겼다”고 했다. 심야에 남북한 30여대 항공기가 전투대치한 급박상황에 내가 제일 선두에서 적기 일당을 물리친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의 결단이 김일성의 야욕을 제압한 것이다. 나 자신이 이렇게 용감하고 사명감에 투철한지 그때 실감했다. 만약 한밤중에 백령도 상공에서 공중전이 벌어졌다면 적기를 격추시켰겠지만 연료부족으로 무사귀환이 어렵기 때문이다.

오늘 날 미중 패권경쟁의 국제질서에서 북한의 핵위협을 제압하는 국가전략이 요구된다. 박정희 리더십이 절실하다. 한미동맹과 안보국방태세를 정상화시킨 윤석열 대통령의 계승발전을 확신한다. 이러한 나의 애국신념과 용기는 바로 모교 은사님들의 훌륭하신 가르침과 천하부고라는 자긍심에서 형성됐다고 생각되어 감사드린다.

대한민국 만세! 천하부고 만세!

큰 일의 성사됨은 때때로 아주 우연스러운 계기에 이루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5월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시 반도체, 특히 미국으로부터 처음 기술이 도입되었던 64KD램에 대한 언급이 있었

는데, 그즈음 한 일간지 칼럼에서 당시 개발스토리가 재조명되면서 부족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사회에 공헌이 되는 훌륭한 공적을 남기신 선후배 동문이 많이 계심을 알기에 이 상을 받는 데에 부끄럽고 송구스러운 마음이 앞섭니다마는, 한편으로 문혀 지나갔던 반도체 신화를 다시 알리게 된 기회를 주심에 무한한 기쁨을 느낍니다.

1983년 64KD램의 개발은 엄청난 투자를 각오한 기업 생사의 갈림길에서 맨땅에 헤딩하듯이 달려들어 이룬 국가적인 위업의 달성이었습니다. 잊을 수 없었던 그때의 환희는 곧 대내외적인 명분만 남아있음을 깨달았고, 이듬해 연이어 개발 성공한 256KD램의 공로로 자랑스러운 삼성인상의 전신인 기술대상을 수상했을 때에도 잠깐의 기쁨 뒤에 후발기업으로써의 냉엄한 현실을 걱정해야 했습니다.

그때 메달을 걸어주신 이병철 삼성 선대 회장님의 매서운 눈매를 오래 기억합니다. 그 후 모든 인력이 자신의 생활을 포기하고 매진한 노력 덕에 4년 뒤 흑자를 만들게 되었고, 64KD램이 개발된 이후 불과 8년만인 1991년에 10년여 동안 무너지지 않을듯 했던 일본의 아성을 깨고 세계 메모리 산업 1위에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메모리 산업 세계 1위의 기록은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한 해도 깨지지 않고 지켜오고 있으니 이는 세계 산업사에 찾아보기 힘든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저는 2007년 반도체 연구소장의 업무를 끝으로 25년여의 반도체 일생을 마쳤습니다만, 메모리가 이 땅에 처음 탄생하여 성숙하고 진화하는 동안 강인한 초격차의 DNA를 만들었던 반도체인의 한 사람으로서 큰 자부심을 가지고 지내왔습니다.

이에 모교로부터 받는 이 자랑스러운 부고인상은 제 인생에 가장 영광스럽고 보람찬 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를 추천해 주시고 지명해 주신 동창, 동문회 그리고 모든 선후배 동문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반도체 사업을 기획하고 이끌어 한국 최고의 산업으로 일군 사대부고의 큰 별, 고 이견희 회장님을 추모하며 이 글을 마칩니다.



ganong | egg shop

초신선계란의 기준 3단 구조
가농 에그샵에서 확인하세요



농장에서 바로 오는 초신선계란

농장에서 오늘 낳아서 바로 보내는 초간편 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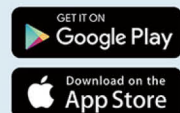
오후 8시전에 주문하시면 다음날 아침 7시까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초신선배송 기준)

가농 에그샵에서 맛있는 초신선계란을 경험해보세요!




GB마크는 가농에서
생산한 등급 계란의
인증마크입니다.

가농 에그샵 APP 다운로드 받으세요



유재홍 (25화·가농바이오 회장)



MANDARINA  DUCK

젊은 동창회를 만드는 것은 시대적 흐름

총동창회장을 내려 놓으며 이강년(25회, 제28대 총동창회장)

공사다마한 연말인데도 불구하고 귀한 시간을 내어 총회에 참석해 주신 고문님들과 동문 선후배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10월부터 15개월 동안 역대 회장님들의 유지를 받들어 “선배에게는 사랑을, 후배에게는 도움을 준다”는 동창회의 슬로건을 구체화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지속 가능한 동창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다행히 5월부터 코로나 규제가 풀림에 따라 선농축전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한 달도 안 되는 짧은 준비기간에도 불구하고 동문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1300여 명이 참여하는 큰 행사를 성황리에 치를 수 있었습니다. 역시 서울사대부고는 달랐습니다. 다른 학교는 엄두도 못 내는 일을 해낸 것입니다. 이러한 동문들의 결속은 올해 동창회비를 낸 회원수가 예년 수준 이상으로 늘었다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소통의 도구인 동창회보는 연간 3회에서 4회로 발행을 늘려 10회 이전 선배님들로부터 60, 70회 후배 기수에 이르기까지 관심을 갖고 저변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700여 명에 달하는 미주연합회 동문들의 기사와 응원광고를 함께 신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전에 미주연합회 주관으로 진행하던 “후배 재학생 미국 견학”을 총동에서 주관하기로 하고 미주연합회는 협력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만든 동창회보를 보내면 300부 이상이 되 돌아왔습니다. 주소가 바뀐 탓인데 이를 해결하고자 주소록을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휴대폰으로 각자의 주소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선농수첩”을 만들었습니다.

나아가 동창회 소식과 동문의 개업 소식, 정보 공유 등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알림톡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하여 수천 명의 동문들에게 동시에 알림을 보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동창회관에 “유튜브 방송제작 시스템”을 구축하여 동문들이 자유롭게 동영상 제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선농TV에 올라온 좋은 동영상은 골라 매년 시상도 할 계획도 세웠습니다.

이 밖에도 사무국 인력을 줄여 고정비 감축을 통한 재정적으로 안정을 이루었고, 회계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가 쉽고 연도별 비교도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동창회관 2층에 걸려 있던 회장단 액자를 깔끔하게 재정



비하였으며, 동창회관 내 모든 창고에 들어 있던 1.5톤에 달하는 불필요한 쓰레기도 치웠습니다. 열심히 노력을 하였으나 아직 미진한 것들이 눈에 보입니다.

총동창회가 번영하려면 각 지회의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깨달

았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서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지회 활동에 지원금만 쫓지 경영에는 관여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총동창회와 지회가 긴밀히 협력하여 지회 활동에 더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뒤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1년 만에 회장직을 내려놓는다고 하니 많은 분들이 의아해 했습니다. 저는 정관에 나와 있는 동창회장 임기가 1년이기 때문에 그만 두는 것이 아니라 젊은 동창회를 만들기 위한 시대적 흐름이라는 생각했습니다. 70회 기수까지 내려가는 젊은 후배들과의 소통을 위해서라도 총동창회장 기수를 아래로 빨리 흐르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지회에서 회장을 넘기고 싶어도 물려줄 사람이 없어서 못 하고 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협력을 해서라도 젊은 기수의 지회장을 찾아야 총동창회 운영에도 역동성이 유지된다고 봅니다.

이제 차기 동창회 경영을 능력과 열정이 있는 26회 이진형 회장에게 자리를 넘깁니다. 아주 훌륭하게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물러나도 지회 활동 등을 통해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끝으로 물심양면 큰 힘이 되어주신 역대 회장님들과 멀리서 응원해 주신 선배, 후배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동기가 회장이 되었다고 따뜻한 애정으로 많은 도움을 준 25회 친구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저에게 동창회를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 영감을 주고, 지금도 동창회보를 통해 사대부고동창회의 위상을 드 높이고 계신 31회 한경준 동창회보 편집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적은 인원으로 사무국 일을 감당하느라 수고해 주신 43회 김연중 부장과 황은자 대리에게도 감사를 전합니다.

《주님만 따라간 삶》의 저자 **석은옥** (12회 · 봉사활동가, 故 강영우 박사 부인)

‘시각장애인을 사랑한 여인’으로 알아졌으면

12회 석은옥 동문이 10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책 ‘석은옥, 주님만 따라간 삶’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대한민국 시각장애인 제1호 강영우 박사의 아내로, 남편과 차남의 백악관 입성을 위해 내조를 했고, 아버지의 눈을 고치겠다고 안과 의사가 된 장남 강진석 박사와 오바마 대통령의 선임 법률보좌관이었던 차남 강진영 변호사를 훌륭하게 양육해 내조의 여왕으로 알려진 석은옥 동문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책 출간을 축하드립니다. 소감이 어떠세요?

그날 그걸 정말 잘했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사대부고 동기들이 꽃도 보내주고, 우리 부고 동문도 많이 왔지요.

어떤 마음으로 책을 내셨어요?

강영우 박사가 돌아가신 지 올해로 만 10년이에요. 내 왼쪽 팔을 붙잡고 50년을 같이 다니며 자원봉사를 했는데 갑자기 돌아가시니 이제 내 왼팔을 잡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직도 옆방에서 나를 부르는 것 같은데, 나 혼자 나가려니 왼쪽 팔이 허전한 거예요. 그래서 같이 찍은 사진도 벽에서 내리고,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하였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 강영우 박사가 부모도 없이 맹인학교에서 공부를 시작해 교육자로서 어려운 학생을 돕는 삶을 살았는데 나도 한국 시각장애인들을 돕는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2013년 강영우 장학회를 시작해 지금까지 왔는데 강영우 박사 추모 기념으로 10년 만에 책을 내게 됐어요.

책에 사대부고에 관한 내용도 나오는데 생각나는 추억이 있으신지요?

나는 시골에서 중학교에 다녔는데 사범대에 가고 싶어 서울사대부고에 진학했어요. 그런데 성적이 안나와 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때 문예반에서 봉사 정신이 투철한 크리스천이었던 백숙자라는 친구가 적십자사 정신을 소개해 주면서 대학에 들어가면 청년봉사회라는 게 있다는 걸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친구 따라다니며 고등학교 봉사도 하며 다른 친구들과도 재미있게 지내던 기억이 나요. 특히 책에도 썼지만 나는 우리 교훈이 참 좋았어요. ‘튼튼한 사람이



석은옥, 주님만 따라간 삶 | 행복에너지 권

이 책은 무남독녀 외동딸로 태어나 많은 주변의 사랑과 배려를 받고 자라난 후, 자신이 받은 사랑과 배려를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돌려주는 삶을 평생 살아온 석은옥 여사의 일대기이다. 석 여사가 어린 시절 하나님을 알게 되어 타인을 위해 나누는 삶을 살겠다는 맹세를 하게 된 일에서부터 시작하여 대학생 때 사교로 가족과 시력을 모두 잃고 만 서울맹학교 학생 강영우를 자원봉사자로서 만나 의남매를 맺고 교류하면서 결국 결혼에까지 이르고, 장애인에 대한 인프리와 올바른 인식의 부족에 큰 아픔을 겪으면서도 좌절하지 않고 미국으로 건너가 성공적인 삶을 일구어낸 일대기는 ‘아메리칸 드림’의 성취로 볼 수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더 크고 깊은 뜻이 숨어 있다는 것을 이 책은 강조한다.

되자, 쓸모 있는 사람이 되자, 따뜻한 사람이 되자.’

아직도 교훈을 기억하시는 걸 보면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면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10살 때 위인전을 읽었는데, 페스탈로치 선생에 대한 글



을 읽고 나도 훌륭한 교육자가 되고 싶다는 꿈을 기르게 됐어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는 마음이 강했어요.

부모님의 영향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부모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어머니는 평범한 가정주부로 저를 따뜻하게 돌봐주셨고, 선생님이셨던 아버지는 굉장히 성실한 분이셨는데 학생들이 장학금도 주시며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셨어요. 성실하게 사는 법을 본으로 보이며 가르쳐 주셨고 내가 착하고, 성실하고, 건강하고 튼튼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정신적으로 이끌어 주셨어요. 그래서 시각장애인을 봤을 때 도와줘야겠다는 마음이 저절로 생긴 거예요.

여러모로 선한 영향력을 마음에 새기셨기에 강영우 박사님의 지팡이가 되는 삶을 기꺼이 택하셨네요. 또한 강영우 박사는 석 선배님의 빛이 되어주셨고요.

그래서 내가 60대에 ‘나는 그대의 지팡이, 그대는 나의 등대’라는 책을 썼어요. 사람들은 정상인인 내가 시각장애인 학생을 도와주는 줄로 생각했겠지만, 시력이 좋았던 나는 시각장애인 동생이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안내해 준 거고, 현명한 판단력이 있었던 강영우 씨는 내가 꿈과 비전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그런 것이 우리 가정을 세우고 두 아들을 양육하는 데 큰 도움이 됐어요.

두 분의 글을 읽으면 천생연분이란 생각도 드는데, 어떤 점 때문에 결정적으로 결혼을 결심하셨어요?

우리가 나이 차는 얼마 안 되는데, 처음 만났을 때 나는 대학생이었고, 강영우 씨는 중학생이었어요. 그런데 강영우의 누나가 세상을 떠났다는 말에 무남독녀로 혼자였던 내가 강영우의 누나가 되면 서로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편지를 썼는데 기쁘게 나를 누나로 맞아줘서 오누이처럼 6년을 지냈어요. 그러면서 어느덧 서로에게 정이 들었던 거 같아요.

꿈과 비전을 향해 나아갈 때 어려움은 없으셨어요?

두 아이를 기르면서 힘들다고 생각한 적도 많아요. 그럴 때마다 남편이 해보기도 전에 미리 포기하지 말고 도전해 보자고 했어요. 내가 학교 교사를 할 때도 문서 작업하는 것을 도와주기도 했고, 내가 28년이나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그래서 내가 60살이 되는 해에 고마운 마음을 담아 ‘나는 그대의 지팡이, 그대는 나의 등대’라는 제목으로 책을 낸 거예요.

어떻게 지금까지 강 박사님 없이 봉사를 계속하실 수 있으셨어요?

여러 사람이 도와줬어요. 우리 동기 손성혜, 성기학 회장, 정기영 씨, 김종량 이사장 등 내가 우리 부고 덕을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몰라요. 부고 다닐 때는 그렇게 친하지 않았는데 같은 부고를 다녔다는 이유로 이렇게 도와주고 심지어 강영우 박사 고별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까지 온 동기도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는 이런 선 후배를 만나서 우리 부고를 잊지 못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 사대부고에 가서 교장 선생님께 책을 기증했어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데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세요?

책에도 썼어요. 내가 세상을 떠나는 날 내 묘에는 “시각장애인을 사랑한 여인이 여기에 묻혀 있다.”라고 써달라고.

마지막으로 선후배님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지요?

선배님들께는 “우리 사대부고 정신으로 인연이 되어 좋은 삶을 살 수 있게 되어 반갑고, 감사합니다. 건강하셔서 앞으로도 우리 후배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쳐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후배들에게는 “우리 학교의 훌륭한 교훈을 가슴에 새기고 큰 꿈을 가지고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고 그 꿈을 향해 계속 도전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 국가와 세계를 위해 유익한 일을 할 수 있는 훌륭한 사랑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글_ 문효숙(38회)

김여영 (21화·S&B휴먼 대표)

아웃소싱이나 헤드헌팅 서비스 궁금한 내용 있으면 연락주세요

“배려가 인생을 결정한다.”

인력 아웃소싱 전문기업 S&B 휴먼의 김여영 대표의 좌우명이다. 김여영 대표는 GS칼텍스, LG CNS에서 인사·노무 담당 본부장, 홍보실장 등을 역임하면서 사람이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는 것을 일찌감치 깨달았다. LG를 그만두고,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가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인력 파견회사를 설립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사업 구조를 선진화하면 승산이 있겠다 싶어 창업에 결심했다. 늦은 나이에 창업했지만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롯데제과, GS리테일, GS칼텍스, GS엠비즈, LG CNS, 한국거래소 등 국내 유명 기업들을 고객으로 맞으면서 자리를 잡았다. S&B휴먼을 11년 넘게 경영하면서 “배려가 인생을 결정한다”는 김 대표의 좌우명은 회사를 지탱하는 기본적인 철학이 됐다.

김 대표의 인생 스토리를 듣다보면 남다른 열정과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 마음으로 전해져 온다.

“시골 촌부의 아들로 태어나 고향에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사대부고에 입학했어요. 집안 어른들의 간절한 소망으로 고대 법대에 진학해 오랫동안 고시 공부에 매달렸지만, 좋은 결실을 맺지는 못했어요. 이 때문에 다른 동기들보다 사회 진출이 늦어졌지요. GS칼텍스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했지만 고시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5년 만에 사직하고 재도전했지만 실패했지요. 결국 LG CNS에서 재입사해 홍보실장 등을 역임한 후 퇴직하고, S&B 휴먼을 설립했지요. 이런 순탄치 않은 과정을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열정적인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S&B휴먼은 아웃소싱 전문기업이다. 아웃소싱이란 기업이나 조직에서 제품의 생산, 유통, 용역 등 업무의 일부분을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위탁사업은 도급과 파견으로 구분된다. 도급에는 주로 경비/미화, 건물관리, 생산 제조업, 물류업 등이 있고 파견에는 비서, 콜센터, 사무직, 전문직, 판매직, 단기 근로직 파견 등이 있다. S&B휴먼은 단순한 채용대행에서 벗어나 헤드헌팅

등 고부가가치 사업까지 진출하겠다는 목표를 세워 놓고 있다.

김 대표와 공덕동의 한 식당에서 만나 식사를 하면서 궁금한 얘기들을 물어봤다.



젊지않은 나이에 창업하면서 어려운 점은 없으셨나요?

“기업 경영을 하면서 첫 번째 겪은 시련은 바로 경쟁 입찰이었어요. 무조건 단가를 낮춰 입찰에 참여해야만 낙찰을 받을 수 있는 제도지요. 후발주자로선 결코 쉽지 않았어요. 인력파견 사업은 인맥이 영업의 성과를 좌우하는 업(業)이기도 해요. 이것도 만만치 않았죠. 때로는 정면 승부하고 때로는 타협하면서 역경을 헤쳐나갔어요.”

“‘하면 된다’는 자신감과 한번 마음먹은 것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는 정신으로 친절한 인간관계를 맺으면 기회는 와요. 저는 자신감과 용기를 잃지 않는다면 사업상 어려움은 극복할 수 있다고 믿고 있어요”

S&B 휴먼을 앞으로 어떤 회사로 키우고 싶으세요?

“단순히 영업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인력파견 사업이 아니라 우수인력을 공급하는 믿을만한 회사라는 이미지를 고객들에게 심어주려고 해요. 체계적이면서 선진적인 인력파견 회사를 만들고 싶은 꿈을 갖고 있어요. 또한 직원들의 전문성을 최대한 살려주고, 근무조건과 복리후생이 좋은, 누구나 다니고 싶은 회사로 키우고 싶어요. S&B휴먼은 직원들을 가족 같이 생각하고 직원들과 모든 걸 상의하고 고민하며 신중하게 결정하는데, 앞으로도 ‘소통’을 가장 우선시하는 회사를 만들고 싶어요”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후배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창업은 가능하면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또한 창업 하기전에 반드시 해당 사업 분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입수해 시장 상황과 개발 여지 등에 관해 정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이 가장 잘 할 수 있고, 좋아하는 분야에서 창업한다면 자신감이 생기고, 성공 확률도 높일 수 있겠지요."

학창 시절이나 졸업 후에 재미 있는 에피소드나 동문회 활동에 대해 소개해 주신다면?

"경북 예천에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사대부고에 입학했기 때문에 모교에 대한 자부심이 아주 컸어요. 을지로 5가에서 입학했는데 2학년 1학기를 마치자 청량리로 교사가 이전했어요. 을지로 시절 옥수동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시내버스가 얼마나 만원이었던지 교복이 흠뻑 젖고 구겨져서, 할 수없이 장충단 공원을 거쳐 멀리 걸어다녔어요. 수학여행 때의 기억도 생생해요. 남녀 혼성칸에서 말썹부린 학생을 이풍기 선생님께서 '박력있게' 제압하시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해요. 도서관에서 연탄 난로의 불을 갈다가 떨어뜨려 불이 크게 날뻐한 끔찍한 사건도 있었지요."

"재학시절에는 도서관 활동을 열심히 했어요. 졸업 후에도 동기 모임은 물론이고 도서관 모임에 빠짐없이 나갔고, 회장을 역임했죠. 동문들의 경제인 모임인 선경회에도 꼭 나가고 있어요. 최근엔 총동창회 산악회 모임에도 참가 신청을 해놓았고, 내년부터는 고등학교 골프 모임인 청구회에도 참여할 생각이예요"

동문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동문들이 나이에 상관없이 사회 활동에 적극 참여했으면 해요. 나이들어 모임에 나가면 좀 쑥스럽다든지, 그런 곳에 나갈 연배가 아니라든지 하는 핑계를 대기 쉬운데, 그러지 말고 각종 세미나나 연극, 영화, 음악감상 등 취미 활동을 열심히 하세요. 그게 바로 건강 비결이기도 해요."

저는 매월 책 2권 정도 독서를 하고, 음악 감상을 좋아해 1500장 가량의 CD를 갖고 있어요. 주말이면 좋은 음악을 들으면서 국내 곳곳을 드라이브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어요. 모두 재미있게 사세요."

S&B휴먼의 아웃소싱 서비스를 도와드립니다. 아웃소싱(도급, 파견, 채용대행)이나 헤드헌팅 서비스에 대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언제라도 연락주세요. 동문들에겐 인사, 노무에 관한 기본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하겠습니다.

대표전화 (02)713-5033, 이메일 snbhuman@snbhuman.co.kr

클_장길수(31회)

김민승 (47회) (주)다다크리에이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아트웍으로 광고 트렌드를 선도하다

드러난 마음보다는 드러나지 않는 마음을 헤아려야 한다. 성공한 광고 캠페인은 수면 아래 보이지 않는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 성공한 것이다. 사람의 마음을 사는 방법, 그것이 (주)다다크리에이션의 김민승(47회) 대표가 생각하는 성공의 열쇠이다.

2012년 설립 이래 전문성 강한 광고회사로 인정받으며 업계에서 입지를 탄탄히 다져온 (주)다다크리에이션이 사업 확장의 일환으로 홈페이지(www.dadacreation.com)를 새로 오픈했다. (주)다다크리에이션은 차별화된 기획력과 전문적인 마케팅 프로세스, 철저한 시장 분석을 무기로 성장을 거듭하고 왔다. 또한, 참신한 아이디어와 창의적인 크리에이티브는 한번 인연을 맺은 클라이언트가 파트너십을 맺고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는 이유이다.

주요 클라이언트로는 GS건설, HDC현대산업개발, SK에코플랜트, 신세계건설, 한화생명, KB손해보험, 삼육보건대학교 등이 있으며 분야를 넘나들며 날카로운 컨셉과 트렌디한 크리에이티브를 선보이고 있다.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광고업계가 만만치 않은 상황에도 김민승 대표는 광고계의 스페셜리스트로서 전문성과 경쟁력을 높여 백년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락처 010-6540-5441



유재홍 (25회·가농바이오 회장)

“달걀 먹으면 장수합니다.
동문님들 건강 챙겨 드세요”

“달걀은 자연에서 찾을 수 있는 완벽한 식품 중의 하나’라고 할 정도로 사람에게 이로운 식품입니다. 달걀의 영양성분을 보면, 단백질 12.91%, 지방 8.25%, 탄수화물 0.79%(출처 식약처)로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당뇨환자, 노인들에게 좋은 식품입니다.”

‘오늘 새벽에 낳은 달걀을 다음 날 새벽, 고객 문 앞까지 배송시켜 드린다’는 캐치프레이즈로 우리 가정의 아침 식탁을 책임지는 유재홍 가농바이오 회장. 가농바이오는 120만 마리의 닭에서 매일 95만 개의 달걀을 생산하고, 비타민과 오메가3가 강화된 구운란, 반숙란 등의 초간편 달걀 판매 등으로 매출 700억 원(2021년 기준)을 기록하는 증권 기업이다.

하루에 3개의 달걀을 먹을 정도로 달걀 마니아

국제계란위원회(IEC)가 2021년 발표한 ‘2020년 각국의 1인당 달걀 소비량’을 보면, 멕시코가 380개, 일본이 340개, 한국은 270개로 조사됐다. 하루에 달걀 한 개도 먹지 않는다는 통계이다. 반면에 유재홍 회장은 하루에도 3개의 달걀을 먹을 정도로 달걀 마니아이다. 그렇다면 달걀의 적정 소비량은 어느 정도가 좋은 걸까?

“달걀의 적정 소비량을 제가 정의하기엔 무리가 있을 수 있어 몇 가지 재미있는 팩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네스북에 세계 최장수 기록을 보유한 이탈리아 엠바 모라노(117

세, 2017년 사망)도 자신의 장수 비결을 ‘혼자 사는 삶과 하루에 3개의 달걀을 먹는데, 2개는 날것으로 먹고, 1개는 요리해서 먹는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통계에서 보듯이 세계 대표 장수국인 일본의 경우 1인당 연간 340개의 달걀을 먹고 있으며,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건강한 성인의 경우 하루 평균 2~3개의 달걀 섭취를 권장하고 있다. 계란은 영양학적으로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면에서도 압도적인 영양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다른 동물 단백질보다도 저렴하고, 토지, 사료 섭취량 대비 단백질 생산율, 그리고 오염물 배출 등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우수하다는 것이 유 회장의 설명이다.

전자동 시스템을 통해 하루 95만 개의 달걀 생산

하루 95만 개의 달걀을 생산하고 있는 포천의 가농바이오는 국내 최대 규모이자 최고 수준의 산란계 스마트팜으로 불리고 있다. 닭의 사육에서 달걀 생산, 출하까지 전자동 시스템을 통해 관리해 오고 있어 고병원성 조류독감 감염 사례가 한 번도 없었던 안전지대이기도 하다.

120만 마리의 닭이 먹는 사료는 하루 150t. 사료를 가득 담은 25t 트럭 6대가 하루도 빠짐없이 포천 가농바이로를 오가고 있다. 매일 생산되는 95만 개의 달걀은 사육장과 선별장으로 연결된 지하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 이동된다. 시간당 최대 18만 개가 선별과정을 거쳐야 한다.

달걀 선별과정이란 컨베이어 벨트로 이동된 달걀을 브러쉬로 닦고, 물로 헹구고, 건조를 시키는 과정을 거친다. 세척한 달걀은 이물질 확인을 거쳐 살균, 중량, 성분 확인을 통해 최종 선별장에서 품질에 따라 포장이 이루어진다. 이런 자동화 시스템이 구축된 것은 그가 아버지의 가업을 물려받는다며 마음먹은 1987년부터 시작됐다.

1955년부터 사료공장과 축산업을 병행하던 부친(유시련 회장)과 함께 사료공장에서 근무했던 유재흥 회장은 경쟁이 심해진 사료공장을 그만두고 농장을 하다 유학하러 가게 된다. 공부는 끝냈지만, 미국에 거주할 생각으로 몇 년을 머물러 있다가 어느 날 귀국을 해서 농장을 방문했더니, 양계장 8동 중 2~3동이 비워진 것을 목격하게 된다.

농장에 닭이 없는 이유를 어머니에게 물었더니 “장남이 미국에서 돌아올 생각이 없는 것 같아 농장을 그만두시려는 것이 아버님의 생각”이라는 것이었다. 결국 유재흥 회장은 아버님의 가업을 잇기 위해 미국 생활을 청산하고 1989년 한국으로 들어오게 된다. 다만, 그는 한국으로 돌아오기 전에 미국에서 300개의 질문지를 적은 평생 사업계획서를 작성한다.

자신이 경영할 농장을 둘러본 이후, 선진국에 대한 시찰이 먼저 떠올랐다는 그는 미국의 시스템부터 견학하게 된다. 양계박람회가 열린 애틀랜타를 돌아본 후, 모든 생각이 달라졌다. 어설프게 실현하려했던 농장 증설 계획을 모두 중단한 후, 미국과 독일, 덴마크, 네덜란드, 그리고 일본으로 이어지는 산업 시찰을 강행했다. 그리고 나서야 300개의 질문지에 대한 답을 얻었다는 유재흥 회장은 1991년 독일의 빅 더치만(Big Dutchman) 설비 전문회사에 150억 원의 자동화 시스템 설비를 발주시켰다. 사실상 국내의 첫 현대식 산란계 농장으로 알려지면서 사람들이 관광버스를 대절해 견학했으며, 우리에게도 똑같은 시설로 지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한다. 또한, 독일 빅 더치만과의 한국 대리점 사업까지 이어지면서 현재까지 국내 신축 계사의 약 40%에 해당하는 설비를 공급해 오고 있다.

반숙 달걀 후라이, 달걀 그대로의 맛을 느낄 수 있어

“달걀로 만들 수 있는 음식은 정말 다양합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계란찜이나 계란말이부터 요즘 인기를 끄는 샷슈

카, 에그베니트 등의 요리까지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일 수 있는 매력이 많은 음식이 달걀입니다.”

유재흥 회장은 그중에서도 달걀 그대로의 맛과 품질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반숙 달걀 후라이를 추천한다. 해외에서는 ‘씨니사이드업(sunny-side up)’이라고 칭하는 프라이는 뒤집지 않고 타지 않을 정도의 약한 불로 천천히 익혀낸 프라이를 말한다. 또한 신선하고 품질 좋은 달걀이 가장 돋보이는 방식의 조리 방법이고, 프라이팬에 깎을 때 퍼지지 않고 붕긋하게 솟아있는 신선한 가농 계란을 이렇게 먹으면 가장 맛있다고 강조한다.

가농바이오는 최근에 ‘모닝에그’라는 신제품을 와디즈와 카카오메이커를 통해 선보인 후, 가농바이오 에그샵은 물론 쿠팡, 마켓컬리, 이마트 등에서 정식 출시를 했다. 모닝에그는 국내 최초로 선보이는 수비드 공법으로 조리한 달



걀이다. 가농 계란의 진하고 고소한 맛은 노른자가 따뜻하게 흐를 때 극대화되지만, 집에서 완벽한 수란을 만들기는 생각보다 까다롭다. 그래서 수란의 장점을 살리고 고객들의 편의성을 고려해 만든 것이 ‘모닝에그’이다.

모닝에그는 전자레인지에 20초만 데우고 바로 취식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쌀밥, 빵, 짜장라면, 떡볶이 등 여러 가지 음식에 잘 어울리는 제품이라고 소개한다. 특히 흰자는 탱글탱글하고 노른자는 부드럽게 흐르는 것이 최대 장점이자 특징이라고.

아버지의 사업을 이어받아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문과를 나와 연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그는 사대부중 시절부

터 화학을 좋아했으며, 사대부고에서 적성검사를 할 때면 문과보다 이과가 더 적성에 맞는다는 결과를 받았다고 한다. 이공계의 특성이 더 잘 맞는 덕분에 가농바이오의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들이 지금도 재미있다고 말하는 유재흥 회장. 그는 지금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있다 바로 자신이 35년 전에 작성했던 300개의 질문지를 완성하는 것이다.

“사람이 없이 무인으로 돌아갈 수 있는 로봇 시스템으로 이루어진 양계장의 미래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완전 자동화는 물론 완전 친환경으로 설계하여 오염이 배출되지 않는 그런 농장을 포천에 세울 계획입니다.”

글_조용식(35회)·사진_송원기(30회)

쪽갈비 전문점 '인생극장' 종암점 이정근 (57회·대표)

유도반 맛집아지트로 쪽갈비 드시러 오세요

사대부고가 위치한 종암동에는 오래전부터 사람들의 발길이 잦아 붙여진 골목 이름이 있는데, 바로 '명동골목'이다. 트럭 1대가 지나가면 사람이 걸을 공간이 거의 없을 정도로 작은 골목이었지만, 1980년을 전후로 학생들의 1호 맛집인 분식점을 비롯해 문구, 식당, 옷 가게, 금은방, 레코드, 상회 등 다양한 상권이 형성된 곳이기도 하다.

35회 이후 사대부고 졸업생에게 '명동골목'을 물어보면, "아직도 명동골목이 있어?", "요즘도 옛날 모습 그대로인가?"라고 질문한다. 오랫동안 종암동에 살고 있는 덕분에 집을 오가며 명동골목의 변화를 지켜보고 있던 터라 고민 없이 이야기해 준다. "요즘 명동골목이 다시 핫해지는 느낌이야! 젊은 사람들이 자주 가는 술집들이 하나둘 생겨나고 있거든."

여행 기자라는 직업 때문에 집에 머무는 시간도 적고, 동네에서 술을 마시는 일도 별로 없지만, 우연히 43회 김연중 동문과 종암동에서 술자리를 하게 됐다.

"선배님! 요즘 여기가 사대부고를 졸업한 후배들이 많이 찾는 곳이라요. 아세요. 옛날 이 자리가 분식점이 있던 자리였다는 것도."

맞다. 고등학교 시절, 명동골목에서 제일 인기가 많았던 곳, '일미당'. 매콤달콤한 떡볶이와 쫄면, 냉면, 그리고 여름이면 시원한 빙수까지 팔았던가? 이제는 메뉴가 무엇이었던지는 기억하기 힘들지만, 그래도 당시의 추억이 하나둘 떠올려지는 추억의 공간이다. 추억의 '일미당'이 지금은 쪽갈비 전문점인 '인생극장'으로 바뀌었다.

쪽갈비를 주문하면 약 15분을 기다리게 되는데, 이는 주문과 동시에 쪽갈비 초벌구이를 하기 때문이다. 쪽갈비를 굽는 이정근 대표의 등에는 아주 작은 글씨가 빼곡하게 적혀 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사람들의 이름이다.

"등에 적힌 이름들이 무엇이냐?"고 묻는 손님들이 많아요. 자세히 보시면 기수와 이름이 적혀 있는데, 바로 서울 사대부고 유도부 동문들의 이름입니다. 저는 유도부 42기 이정근이구요."

중학교 때부터 유도를 했던 이정근 대표는 사대부고에 들어가지마자 유도부가 되었다. 선·후배들과의 끈끈한 유대가 더욱 남달랐던 유도부 생활은 전학으로 인해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사대부고 축제인 '선농제'에서 시범으로 낙범 등을 선보이려 했던 유도부에서 '후배들에게 유도 기술을 좀 가르쳐 달라'고 부탁하며 그를 찾았다. 그렇게 또다시 유도부와 인연을 맺은 이정근 대표는 군대를 다녀온 이후, 지금까지 서울사대부고 유도부와 연을 같이 하며, 유도부 송별회, OB전 등에 참석하며 지금도 정을 나누고 있다. 퇴근 시간이 가까워지면, 인생극장의 좌석은 하나, 둘 채워지며, 부딪히는 술잔과 함께 쪽갈비를 굽는 숯불이 화려한 조명으로 손님들의 테이블을 밝힌다.

쪽갈비를 맛있게 먹는 팁

쪽갈비 아래쪽은 뼈만 있는 부분이다. 아래쪽 뼈를 태워서 그 열로 살을 익히는데, 뼈가 타면 거의 다 익은 것이기 때문에 먹으면 된다. 쪽갈비를 뒤집으면 살이 타고 육즙이 빠져 맛이 없어지니 절대 고기를 뒤집으면 안된다.

글·사진_조용식(35회)

엘타워, 최고의 연회를 빛내다

39,202 회

연회행사 개최



세계 유수의 기업들과 함께한
39,202번의 연회, 60만 명의 누적고객
품격의 신뢰까지 높인 엘타워,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프리미엄 연회를 선보입니다.



닛산 /



마이크로소프트 /



SFAA 서울 컬렉션 /



인텔 /

예약·문의 02-526-8600~4

- 10개의 대·중·소 연회홀을 갖추고 있어 패션쇼, 자동차 런칭쇼, 스페셜파티, 세미나, 국제회의 등 다양한 연회가 가능합니다.
- 특별하고 기품 있는 행사를 완성하는 EL Tower 연회 프리미엄을 느껴보십시오.

total banquet hall
TOWER 엘타워

3호선, 신분당선 양재역 9번출구 바로앞 위치

뮤지션 **이건한** (64회 · 래퍼)

‘Mother 엄마 말이 다 맞아 … Mother 가장 아름다운 존재’
사과향이 풍기는 야채가게 래퍼

종 종 내 머릿속을 맴돌고 있는 가사가 하나 있다. 이 곡은 마치 어머니의 삶을 매우 직접적이면서도 진솔하게 표현한 곡이다. 이 곡을 부른 가수는 채피니스(Chappiness)로 64기 이견한이다.

견한이는 현재 64기 전교 부회장 출신 예능이의 야채가게에서 일을 하며 음악의 꿈을 펼치고 있는 멋진 래퍼다. 음악을 하겠다는 그 열정이 그의 음악세계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주었고, 이 친구의 노력은 64기 동기의 야채가게에서도 일을 하는만큼 끈끈한 우정과 동지애를 보여주고 있다. 견한이를 다시 만나게 된 것은 고등학교 졸업 후 7년만인 2019년 나의 콘서트장에서다. 견한이는 17살때부터 래퍼가 되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날은 나의 음악 색깔이 궁금해 공연을 들으러 왔다고 이야기해주었다. 나는 졸업 이후 살아온 견한이의 이야기도 들으며 음악을 공유하는 친구가 되었다. 견한이는 자신이 의미있게 남기고 싶은 곡이 하나 있다고 소개하였고, 나는 견한이와 ‘Mother’라는 곡을 함께 피쳐링하면서 처음으로 곡 작업을 같이 하였다.

함께 사대부고를 졸업한 친구 중에 이렇게 나와 같은 음악에 종사하는 친구를 처음 만났기에 기대와 즐거움이 넘치는 작업이었다. 그 무엇보다도 견한이라는 친구의 음악을 향한 열정과 진정성이 굉장히 순수해보여 참 좋았다. 나는 문과였고 견한이는 이과였기 때문에 서로의 공부 분야에 대해 깊이 알지는 못했지만, 견한이는 생각보다 창의적이면서도 뭔가 본질적인 것에 대해 탐구하고 궁금해 하는 친구였다. 견한이는 고등학교 때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신이 처한 상황이나 기분을 글로 자연스럽게 표현하다가 가사를 써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자연스럽게 힙합 속에 스며들었다고 한다. 또한 견한이는 고등학교 때부터 수학을 너무 좋아했고 심지어 영어 시간에 수학 공부를 하다 책을 빼앗길 정도로 수학을 좋아했다고 한다. 또한 견한이는 학창시절 부끄러움이 많았던 친구였지만,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걸 좋아하는 아이였다. 그래서 수학



여행에서도 SG워너비 노래를 부르며 자신의 음악을 당당하게 표현하였다.

견한이가 음악을 하게 된 계기를 물어보니 고등학교 때 야자실에서 리쌍 노래를 들으며 공부하면서 자연스럽게 힙합이라는 장르와 주옥같은 가사 한 줄 한 줄에 반해버려 그때부터 음악 듣는 거에 흥미가 생겼다고 한다. 고등학교 때는 리쌍의 전 앨범 들으면서 학교생활을 보냈다. 노래를 들으면서 가사 한 줄에 마음이 몽클해지거나 평소에 못했던 생각들을 하게 되었고 앨범은 영감을 주는 일종의 듣는 문학책이었다. 고등학교 때는 친구들이랑 노래방에 가면 언제나 발라드보단 리쌍 노래 위주로 예약곡을 꼭 채웠다. 그 관심은 견한이가 대학교를 가서도 주옥이 어졌고 지금 이렇게 멋진 래퍼가 되어 활동하고 있다.

견한이가 의미있게 소개하고 싶은 곡은 바로 ‘꿈의 섬’이라는 곡이다. 대학을 앞두고 천문학과를 가기 위해 노랑진에서 재수생활을 할 때, 수학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다. “노랑진에 공무원 준비하는 사람들이나 수능

을 또 준비하는 사람들 모두 벽찬 꿈을 갖고 들어오지만 이곳 노량진에 갇혀 버린다"고... 그래서 노량진은 꿈의 섬이라고 표현을 했고, '꿈의 섬'에 있었던 시기와 꿈의 섬에서 탈출한 뒤 자신의 이야기를 곡으로 썼다고 한다. 나는 그 말을 듣고 '건한이가 살아가면서 어떠한 작은 포인트도, 삶의 의미로 와닿고 곡으로 표현해내는 멋진 능력이 있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다. 음악을 하는 사람에게는 무엇이든 같은 사물과 상황을 경험해도, 다르게 해석하고 풀어내는 능력이 중요하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매우 입체적이고 다양한 측면의 감정을 느낀다는 것은 음악가로서, 또한 친구로서 건한이의 예술성을 정말 칭찬해주고 싶다.

건한이는 지금도 자신이 경험을 통해 자작곡을 정말 많이 만들고 있다. 최근 제일 제목에 신경썼던 곡은 첫 싱글곡 '땅'이라고 한다. 노래는 다소 비관적인 느낌이 강하다. 영화 동주를 보며 영감을 받고, 독립운동가에 빚대어 나라의 현 주소를 이야기한 곡이다. 우리는 땅 속에 묻힌 독립운동가들을 기리지만 그들의 정신은 기리는 척만 하는 모습을 보며 땅 속에 묻혀있다는 의미에서 땅이라고 지었다고 한다. 건한이의 꿈은 앞으로도 꾸준히 주위 사람들이 이대로만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음악을 하며

자신을 세상이라는 들판 위에 표현하면서, 때로는 자신의 감정의 배출구, 책을 읽으면 독자와 작가가 만나는 것처럼 자신의 음악을 들으면서 사람들도 자신과 같이 마주했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건한이는 두번째 싱글곡으로 '빠빠용'이라는 곡을 소개하는데 '인생은 짧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짧은 인생 모두가 행복을 찾아서 잘 살아가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곡을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고 싶어한다. 앞으로 인생에 하고 싶은 게 없다면 지금 처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앞으로 박차고 나가며, 가지고 있으면 비참해질 꿈이라면 과감히 포기할수 있는 용기, 이 세가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한다.

건한이를 만나면 사과향이 풍긴다. 당차면서도 풋풋한 그의 목소리와 랩의 가사를 통해 많은 위로와 울림을 얻는다. 또한 건한이가 음악을 하는 에너지와 이유들이 곡 안에 담겨 있고 지구를 바라보는 관점 또한 천문학과 출신답게 다양하면서도 편견 없이 바라보는 모습이 나에게 참 멋진 모습으로 보여진다. 난 건한이가 채피니스로 써 앞으로 더욱 자신의 길을 빛내는 가수로 성장하였으면 좋겠다.

글_김한별(64회)



서울사대부고 동문님들, 최고 음향, 최저 가격으로 모십니다

- 각종모임 및 체육행사
- 음향설치 및 렌탈
- 음향매입 및 판매
- 그룹 장비, 드럼 올겐 기타 및 소모품
- 무대설치 (운동장 행사용 개노피 천막 티테이블 의자)

M스타음향

대표이사 **이애용**(35회) 010-8200-2214

● 회원동정



▶ 9회 윤석남

대구미술관은 대구 출신의 화가 이인성을 기리기 위해 제정한 '제23회 이인성 미술상' 수상자로 서양 화가 윤석남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구미술관은 현대미술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추천위원 회의를 거쳐 최종 5명의 수상 후보자를 결정하고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화가 윤석남을 최종 수상자로 선정했다.

▶ 12회 석은옥



10월 19일에 강영우 박사 출판기념회를 겸해 미국에서 온 강영우님의 부인 12회 석은옥님과 문광순님, 손성해님이 모교에 방문하여 이화성 교장 선생님과 환담하였다.

▶ 17회 함순영

故 함순영 동문의 부군되시는 최준호 선생님께서 후배들을 위해 장학금 \$16,000을 모교에 보내 주었다.



▶ 26회 김현주

지난 11월 21일, 미국에 거주중인 김현주 동문이 모교에 졸업 입학 시기를 맞이하여 형편이 어려운 모교 후배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장학금 100만원을 기탁하였다.



▶ 30회 한명호

엘 엑스 하우스는 8일 정기 임원인사를 하며 한명호 전 대표이사를 새 대표이사로 다시 선임했다.

한 대표는 엘 엑스(LX) 하우스 (당시는 엘지하우스)가 엘지화학에서 분리 출범한 뒤 초대

(2009~2012년) 대표이사를 역임했는데, 10년 만에 복귀했다.

2012년 말 엘지하우스 대표이사에서 물러난 뒤에는 한화 엘 엔시(L&C)와 한라엔컴 대표이사를 지냈다. 엘지하우스 대표이사 재임 시절 건축용 고성능 피에프(PF) 단열재, 완성창, 고단열 로이유리 등 신사업을 주도했다.

엘엑스 하우스는 "국내외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성과를 창출한 성과주의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와 수익성 중심의 사업 체질 개선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16회 김윤중

카이스트 최고경영자(AIM) 총동문회장인 김윤중 회장은 카이스트 알파인클럽 초대회장으로 시작한 국내 해외 산행을 책으로 묶

어서 12월 12일 카

이스트 흥능캠퍼스에서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이 책은 KAIST Alpine 20년의 기록이다. 이날 총동문산악회 최흥병(32회), 정순철(36회) 동문이 참석해 축하했다.



▶ 31회 박성민

현재 대한당구연맹 공인심판으로 활동중인 동문이 2022년 12월부터 '경기도 장애인 당구협회' 심판이사로 영입되었다. 지금까지 활동하던 대한당구연맹 공인심판과 동시에 장애인당구협회 이사직과 장애인 심판활동도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 35회 차승환



동국대학교 ROTC 총동문회는 지난 11월 23일 왕십리 민자역사 내에 위치한 디노체컨벤션에서 '동국대학교 ROTC 총동문화 2022년 정기총회 및 송년회 &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동국대학교 윤성이 총장을 비롯 9기성 영석 명예회장부터 62기 후보생까지 220여 명이 참석했으며, 29대 윤재민(23기)회장이 이임하고 30대 차승환(25기)회장이 취임했다.

행사는 1부 2022년 정기총회, 2부 총동문화장 이취임식 및 만찬, 3부 송년회 및 임관 축하연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차승환 취임 회장은 "선택과 집중의 관점에서 ▲올트라 장학사업의 내실화 ▲후보생과 연계된 행사 진행 ▲30기 이후 모든 후배 기수가 총동문화 활동의 주역으로 등장하는 발판을 만드는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이를 위해 "선후배들의 조언과 의견에 열린 마음으로 청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엄중한 자세로 '강한 조직 112ROTC총동문화'를 만들기 위해 선후배들의 지속적인 사랑과 관심, 격려와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 36회 이성철



한국일보사는 12월 1일자로 대표이사 겸 발행인인 편집인에 이성철 콘텐츠본부장을 선임했다. 이 선임 대표이사는 1991년 한국일보에 입사해 경제부장, 산업부장, 디지털부장, 뉴스부문장, 편집국장 등을 지냈다. 이 대표이사는 "발행인·편집인으로서 한

국일보의 치우침 없는 중도 정론지 역할과 위상을 더욱 확고히 하고, 뉴스 콘텐츠 품질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둘 것"이라며 "경영자로서는 경기악화에 대비해 경영 안정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성기학(17회) 동문 '다산경영상' 수상

지난 12월 7일 한국경제신문사 다산홀에서 '제31회 다산경영상'을 수상했다. 다산경영상은 한국경제신문사가 다산(茶山) 정약용 선생의 경세제민(經世濟民)사상을 기리기 위해 1992년 제정해 탁월한 경영 실적과 훌륭한 기업문화를 일궈낸 기업인에게 수여한다. '글로벌 경영의 귀재'로 불리는 성회장은 1980년대 섬유·패션업계 최초로 대규모 해외투자를 실행해 현재 방글라데시, 베트남, 엘살바도르, 에티오피아 등에 세계적 규모의 생산시설을 갖췄다. 이를 기반으로 해외 유명 브랜드 제품의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사업을 주도하고 있다.



한국경제 다산경영상 심사위원회는 올해 창업경영인부문에 성기학 영원무역 영원아웃도어 회장을, 전문경영인 부문에 구현모 KT사장을 선정했다.

아울러 성기학 동문(17회, 영원무역, 영원아웃도어 회장)은 지난 10월 31일부터 두 달간 매주 한번 한국경제신문 오피니언면의 인기 코너인 '한경에세이'에 컬럼을 기고하고 있다. 성 동문은 10월 31일자 첫번째 컬럼 (제목: '남들이 가지 않은 길에서 답을 찾다')에서 섬유·패션 산업에 몸담아온 지난 반세기를 되돌아봤다. 성 동문은 '아웃도어'라는 용어조차 생소했던 1997년부터 우리나라 아웃도어 산업을 개척하고, 다른 기업들과 동반 성장을 모색해왔으며 지난 25년의 세월을 돌이켜 보건대, 결국은 남들이 가지 않은 새로운 길을 먼저 걷고자 했던 선택이 자신의 삶과 사업에 큰 영향을 줬다고 털어놨다.

2024년 창립 50주년을 앞두고 있는 영원무역은 글로벌 유명 아웃도어 및 스포츠브랜드에 대한 제조 OEM 사업부문을 영위하고 있다. 방

글라데시, 베트남, 엘살바도르, 에티오피아 등에 생산법인을 두고 미국, 스위스, 일본, 싱가포르, 홍콩 등 해외지사를 포함해 총 17개 국가에 거점을 두고 있으며, 현지 직원 수는 9만 명 이상에 달한다.

한편 영원무역 성래은 사장은 지난 11월 29일 부회장으로 승진했다. 성 부회장은 미국 스탠포드대학을 졸업한 뒤 2002년 영원무역에 입사해 2016년부터 지주회사인 영원무역홀딩스의 대표이사를 맡아왔다. 성 부회장은 친환경 제품과 지속가능한 경영을 앞세워 글로벌 시장에 우수 브랜드 제품을 공급하고, 국내 섬유·패션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2021년 섬유·의류산업에 대한 산업포장을 받았다. 영원무역 2021년도 매출액은 전년대비 13.2% 증가한 2조7925억원,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70.4% 증가한 4425억 원을 달성하면서 코로나 감염병 위기에도 견실한 경영 성과를 거뒀다.



▶41회 김준표

외교부는 지난 12월 5일, 북미국장에 김준표 통일부 통일정책협력관을 임명하는 등 소폭 인사를 실시했다. 국장급으로는 김준표 북미국장을 비롯해 공공문화외교국장에 이경아 유럽국 심의관을, 해외

안전관리기획관에 정강 언론담당관을 각각 임명했다. 김준표 신임 북미국장은 장관비서관, 주미국참사관, 대통령비서실, 북미1과장을 거쳐 통일부 통일정책협력관으로 일해왔다.

동창회보에서는
동문 여러분들의 소식을 기다립니다

전화 02)588-7871 팩스 02)588-7872
이메일 snubugo@chol.com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 | |
|-----------------|-----------------|
| 박복출(05회) 11.08. | 장영자(14회) 08.14. |
| 김기열(08회) 10.03. | 최현근(16회) 12.07. |
| 유성삼(11회) 09.01. | 김기원(17회) 06.27. |
| 황준길(11회) 11.02. | 김문상(20회) 10.29. |
| 김종년(11회) 11.09. | 성백엽(20회) 11.13. |
| 김현자(12회) 10.07. | 성한경(21회) 11.06. |
| 이장구(12회) 10.18. | 이명숙(24회) 08.30. |
| 박흥섭(12회) 11.08. | 김행숙(24회) 11.28. |



지회소식

● **총동합창단** _ 단장 김태식(22회)



총동합창단은 10월 25일 서울교육대학교 음악관 콘서트홀에서 정기연주회를 열었다. 권혁준(42) 지휘, 박은애(46) 반주로 열린 이날 연주회는 '시월의 어느 멋진 날에'라는 부제 아래 「행복 그리고 사랑」 「아름다운 것들」 그리고 「어느 멋진 날에」 등 3부로 구성되어 혼성합창, 남성합창, 플루트 이중주, 솔리스트 연주 등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였다.

김창욱 전 MBC 아나운서가 사회를 맡은 이날 연주회에는 많은 동문과 가족들은 물론 대한민국 고교동문 합창단 연합의 안희동 대표, 용산고등학교, 부산여고, 창덕여고, 제주여고, 춘천 유봉여고 등 각 학교 동문합창단의 단장과 단원들이 대거 참석해 축하해 주었다. 총동합창단은 그동안 선농축전, 선농음악제 등 동창회 행사와 서울사대부고 신축교사 개관식 축하 공연 등 모교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으며 대외적으로는 고교동문 합창단연합의 일원으로 한민족통일음악회, 유엔평화음악회, 순국선열추모음악회 등 국가와 사회를 위한 공익성 있는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서울사대부고의 위상을 높이는 데 일조를 해왔다. 총동합창단은 12월 6일 열린 총동창회 송년회에서도 흥겨운 노래로 동문을 즐겁게 했다.

● **럭비OB회** _ 회장 심영복(34회)



10월 23일 토요일 선배와 후배 친선경기라는 교류의 장을 통해 후배들이 훌륭한 선배들을 본 받으며 한껏 성장할 기회의 장이 열렸다. 재학생들에게는 훈련에 더 열심히 참여하게끔 만드는 긍정적 동기를 끌어낼 수 있었던 자리였으며, 졸업생들에게는 추억 한 페이지를 열어볼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다.

이번 OB전에는 16회부터 74회까지 총 27개 기수가 모여 총 70여 명의 OB들이 참석하였다. 매년 재학생과 졸업생의 럭비경기 행사를 준비하시느라 고생한 OB집행부, 감독, 코치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 **도서반** _ 회장 김기황(24회)



코로나 이후 도서반 선후배가 오랜만에 모여 10월 20일 청와대 관광을 하였다. 경복궁역에서 12명의 선후배가 만나 화창한 가을을 느끼며 경복궁을 지나 청와대로 향했다. 청와대 곳곳을 돌아보며 선후배 간에 추억을 만들며 돈독한 정을 쌓았다. 경복궁 주변 맛집에서 만찬을 함께하며 소중한 시간을 보냈다. 내년 2월 23일 6시에 다시 만나기로 약속하고 아쉬움을 남기며 헤어졌다.

● **선농여성전문인회** _ 회장 정범순(20회)



지난 9월 26일, 주영숙 고문(7회, 전 덕성여대 총장)이 경기도 양주에 소재한 조각공원으로 초대하여 회원 30여 명이 조각작품을 감상하며 하루를 보냈다. <예술의 향기>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조각공원은 2008년 조각가인 주영숙 동문이 마련한 자신의 작업장이자 전시장이다. 이날 회원들은 임호순 부회장이 준비한 다채로운 음악프로그램과 김상숙 총무의 사회로 더욱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곽삼근, 문재숙, 신인호 회원은 주영숙 고문이 내놓은 조각작품이 당첨되는 행운을 누렸다.

또한 11월 17일에는 선녀회 제163차 모임으로, 김태련 고문(8회, 아이코리아 이사장)이 서울 장지동에 위치한 아이 코리아로 초대했다. 32명의 회원은 특강 <위기의 시대, 이순신이 답하다>을 듣고 오후에는 사육 정원의 만추를 즐겼다. 이날은 총무공 연구가인 방성석 박사가 강의하였다.



꿈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합니다

| Beyond the Horizon with Infinite Potential



POLARIS
S H I P P I N G

한희승 (20회)

● 지회소식

● **고양파주지회** _ 회장 이재훈(29회)



지난 5월 모임에 이어 10월 11일 이종오(20회) 동문부터 몇 개월 전에 공방공장에 화재를 당하신 동영애(22회) 동문, 현재 미국 뉴저지에 거주 중인 김성범(29회) 동문, 사진작가 유동훈(29회) 동문, 막내 기수 한영아, 임찬기, 홍기환(38회) 동문까지 29명이 일산 대화동 제주 마라도횃집에서 모임을 했다.

2~3년 정도의 공백에도 언제나 본 듯한 반가운 동문의 얼굴에서 우리 부고의 끈끈함이 은근히 베풀어 있는 듯 서로의 안부와 그간의 그리움 해소에 여념이 없는 듯하다. 애모한 소주병만 늘어가고 가을밤만 깊어가는 가운데 홍기환(38회) 동문이 찬조한 고급수건 세트를 나누면서 1차를 마무리하고 2차로 생맥주팀과 커피 팀으로 나누어 다음 모임을 기약하면서 만남의 아쉬움을 달랠다. 몇 년 만에 맞이한 가을 모임이지만 비번 일정에도 지회 모임에 변함없이 참석하시는 선후배님들께 감사드린다.

● **탁우회** _ 회장 정만호(16회)



11월 5일 제2회 총동창회장배 선농 탁구대회가 총동회장단, 모교 교장, 교감 선생님 등 내외빈을 모시고 58명의 선수 50여 명의 응원단 기타 지원팀 등 모두 120여 명의 동문이 시합의 열기를 뽐내며 동문 간의 우애를 더욱 돈독히 다지고 한껏 즐거운 하루였다. 탁우회는 탁구의 활성화를 위해 매주 월요일, 수요일에 (16시~19시) 모교 탁구장을 개방하고 또한 직장 및 사업상 평일에 참석지 못하는 동문을 위해 매월 셋째 주 토요일 2시부터 5시까지 탁구장을 개방하고 있으니 많은 동문의 참석을 바란다.

● **나라사랑모임** _ 회장 이형권(25회)

나라사랑모임은 대한민국의 기본이념인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부고 졸업생의 모임이며, 2016년 12월에 15회 졸업생들을 중심으로 창립되어 현재 5회부터 26회 졸업생 약 200명으로 구성되었다. 1기 회장 진창수(15회), 2기 회장 박승(15회), 3기 회장 진창수(15

회)에 이어 4기 회장 이형권(25회)이 현재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나라사랑모임은 특정 정파에 소속되지 않은 순수히 나라를 사랑하는 회원들의 모임이다. 회원 간의 친목 활동,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필요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을 독자적으로, 혹은 다른 고등학교 졸업생들과 연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자유시민의 의무를 다하며 애국시민으로서의 긍지를 고양하고 있다.

나라사랑모임의 문은 항상 열려 있으며, 뜻을 같이하는 동문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회장 이형권(25회) 010-5040-4795

총무 강인화(24회) 010-4208-8382

● **대전지회** _ 회장 임성팔(27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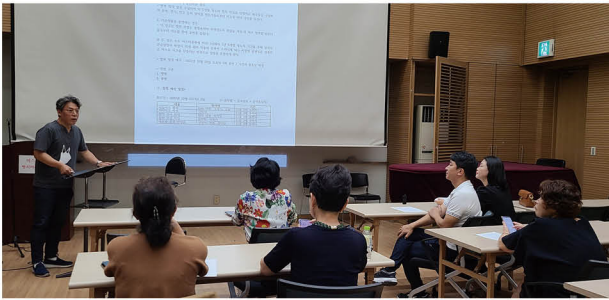
코로나-19로 그동안 무기 연기되었던 동문 모임이 지난 11월 8일 대전현충원에서 오랜만에 개최되었다. 김종오 동문(12회)를 비롯한 15명의 동문이 참석하여 대전현충원 둘레길 산책, 점심, 차를 곁들이며 환담하였다. 아울러 지금까지 대전 동문회장으로 수고한 이영규 동문(25회)에 이어 앞으로 봉사할 차기 임원진 선출도 함께 이루어졌다.

모임 참석자와 차기 임원진은 다음과 같다.

참석자 : 김종오(12), 서동수(19), 도영규(20), 강정희(21), 서성숙(21), 이해숙(23), 이안기(23), 정태영(23), 한공창(23), 김태홍(23), 이영규(25), 임성팔(27), 이호진(28), 채태식(28), 원은미(33)
차기 임원진 : 회장 임성팔(27), 수석부회장 채태식(28), 부회장 원은미(33), 총무 윤주영(38)

앞으로 대전 동문 모임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 **선농뮤지컬단** _ 단장 심상덕(25회)



<선농뮤지컬단 탄생>

도전과 극복으로 새로운 재능을 발굴하면서 남아있는 젊음을 뽐어내고 종합예술의 가치를 경험하면서 깊이 있는 삶을 느껴보고자 뜻있는 동문이 모였다. 지난 9월 14일 저녁 7시에 관심 있는 동문 10여 명이 모여 설명회를 가진 후 바로 선농뮤지컬단을 창단하면서 바로 소통의 장으로 단톡방을 열었고 한 명 두 명 모여 현재 19명의 특 가족이 되었다. 첫 프로덕션을 위한 임원 구성, 극본 창작 synopsis meetig 3회 가졌고 12월과 내년 1월에 전문가 초청 음악, 연기 수업 4회가 예정되어 있으며, 기금마련을 위한 월회비와 후원금이 통장으로 속속 들어오는 등 본격적으로 공연 준비를 하고 있다. 극본이 완성되면 내년 2월부터 매주 1회 연습에 들어가고 10월 또는 11월에 공연무대에 설 예정이다.

특별한 기회에 대한 기쁨과 감사의 마음, 뜨거운 열정으로 구성된 단원들을 위해 일할 지도자와 임원은 다음과 같다.

<지도자>

연출: 김선영(초청) **조연출:** 김태현(초청)

음악감독: 권혁준(42회) **조감독:** 박은애(46회)

<임원 및 운영위원>

단장: 심상덕(25회) **총무:** 최윤진(36회)

홍보: 채웅석(47회), 우남영(47회)

운영위원: 이화연(17회), 신진우(17회), 최희경(26회), 정혜영(47회)

▶ **선농미술인회** _ 회장 이종수(14회)

지난 9월 21일부터 26일까지 제5회 정기 전시회를 열었다.

올해는 다섯 명의 신입회원 작품을 더한 37명의 회원이 출품하여 더욱 풍성하고 멋진 전시회가 되었다.

주영숙(7회) 작가의 가을 여인 브론즈 조각품, 윤석남(9회) 작가의 강렬한 채색으로 표현된 이매창 인물화, 이순규(10회) 작가의 은은하고 평화로운 코스모스, 신입회원 김무일(13회) 前 총동회장의 Toledo城의 가을 등 대선배님의 작품들이 크게 눈길을 끌었던 이번 전시회의 오픈식에는 김인식(20회) 부회장의 말씀에 이어 이강년(25회) 총동회장이 동문 예술활동의 기쁨과 그 가치를 말씀하면서 앞으로 동문들이 함께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보겠다며 격려하시어 더욱 자리가 빛났다.

내년 6회 전시회도 갤러리 라메르에서 9월에 열릴 예정이며 전시회 관련 관심과 문의는 심상덕(25회) 사무국장에게 연락해주시기를 바란다. 010-9099-1303

● **선봉회** _ 회장 최승우(17회)



JRC 동문의 모임인 선봉회에서는 지난 11월 9일 속리산 범주사와 청주 청남대로 가을 여행을 다녀왔다. 그동안 코로나19 때문에 모임을 하지 못하다가 3년 만에 가진 여행이었다. 일행은 모두 36명. 40인승 버스를 꽉 채웠다. 위로는 조지명, 현광언 선배님(13회), 막 내로는 강상빈 동문(19회)이 참석했다. 기별로는 17회 동기들이 선봉회 회장을 맡은 필자에게 힘을 실어준다고 가장 많은 14명이 참석했다.

JRC는 우리말로 청소년적십자(Junior Red Cross). 적십자의 이념은 사랑과 봉사다. 그래서 선봉회는 “선(先)자, “봉사”에서 봉(奉)자를 넣어 이름을 짓고 1997년에 결성되었다. 사대 부고 총동창회 내의 각 지회(소모임)는 대부분 졸업 후에 만든 조직이지만, 우리 선봉회는 재학 시절 JRC(청소년적십자) 활동하던 동문의 모임이다. 그래서 더 정답고, 고등학교 시절 겪었던 이야기들이 화제가 된다. 고등학교 재학시절 JRC활동은 다양했다. 여름 방학 때는 강원도 신림 국민학교로 농촌봉사활동을 갔고, 겨울방학 때는 합창, 독창, 중창, 악기연주, 만담 등 연예프로그램을 준비해서 군 병원에 위문을 갔다. 학기 중에는 학교 마당을 청소하고, 고아원 방문을 가기도 했다.

그런 사랑과 봉사의 정신은 오늘날까지 이어진다. 이번 여행은 참가비 없이 진행했지만 참가자 중 10여 명이 적지 않은 찬조금을 해줬으며, 점심은 회장인 제가 산채비빔밥 정식을 제공하였고, 간식은 17회 동기생들이 마련했다. 또 남자 동기들은 직접 담근 술을 돌렸고, 막내 강상빈 동문은 양치용 핑크 소금을 나누어주기도 했다. 참으로 훈훈하고 즐거운 여행이었다.

2022년 대미를 장식할 송년회와 정기총회가 12월 27일(화) 오후 6시 엘타워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많은 회원의 참석을 바랍니다.

▶ **역우회** _ 회장 현승역(29회)



8월 21일 역우회는 포천 이동 갈비집에서 회원 22명이 연례행사인

● 지회소식

● **총동문산악회** _ 회장 정순철(36회)

지난 11월 9일 총동창회관에서 2022년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이사회 회원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집행부의 2022년 산행 보고 및 회계 보고를 마쳤다. 특별히 임공빈(5회) 회장님의 축사 및 김윤중(16회) 회장님의 격려사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이어갔으며 2022년 산행을 대과 없이 성공적으로 이끈 정순철 회장의 감사 인사가 있었다.

2022년 산행은 서울 근교 산뿐만 아니라 지방 원정 산행도 함께하면서 코로나 상황에 따라 시기 적절하게 대처하는 순발력이 돋보였다. 또한 간식 꾸러미를 준비



하여 산행하는 힘든 순간에 에너지를 보충할 수 있어서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 이전의 선후배 간의 끈끈한 정을 다시 이룰 수 있도록 백방으로

노력한 정순철 회장의 노고와 열정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 주었다. 아울러 2023년을 이끌 차기 회장 및 집행부의 역할에 큰 기대를 모았다.

하게 단합모임을 가졌다. 당일 아침 잠실역에서 대절 버스로 경기도 포천으로 이동하여 이동 갈비집에서 식사 후 근처 계곡에서 물장난도 치는 등 오랜만에 코로나에서 벗어나 즐겁게 지냈다. 11월 25일 역우회는 교대역 근처 한정식집에서 송년 모임을 하고 선후배 간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또한 임기가 종료된 29회 현승억 회장 후임으로 30회 봉대근 회장의 이취임식도 같이 진행되었다.

유회 겸 송년회를 지난 11월 19~20일 천안 자두 펜션에서 많은 동문이 모인 가운데 무사히 마쳤다. 이번 모임은 개인 회비 없이 후원금으로 진행하였다. 올해 후원해 주신 민영주(29회), 이화근(30회), 이재성(30회), 남기장(33회), 홍기환(38회) 동문께 감사드리며 내년 야유회는 6월 안면도 바닷가로 갈 계획이다. 기록~기록 갈매기 날고 갯벌에서 소라, 게, 낙지랑 놀 생각하니 벌써 마음이 설렌다.

▶ **선농문학회** _ 회장 오문숙(18회)



지난 11월 24일 더 클래식 500 라구뜨에서 이현복 지도교수님(10회)을 모시고 훈훈한 시간을 가졌다. 이현복 교수님은 "서울사대부고에 입학하면서 행복한 삶이 시작되었고 사대부고 졸업생이라는 것이 자랑스럽다." "또 여러분들과 함께한 시간은 늘 지금처럼 설렌다."고 말씀하셨다. 선농문학회는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을 글로 쓰되 형용사와 부사를 절제하며 감정을 여과시켜 품격을 지니는 수필문학을 공부하는 모임이다.



▶ **성우회** _ 회장 정지선(30회)



▶ **사진반** _ 회장 김광복(32회)

가을아~ 하고 부르면 웬지 보고 싶은 사람이, 사랑이 왜~하고 돌아볼 거 같은 달달한 그리움이 묻어나는 계절에 사진반은 1박 2일 야

동문 기독인들의 모임인 성우회에서는 12월 19일 오후 7시, 약수동에 있는 주내힘교회에서 성탄축하예배를 드린다. 이번 성탄예배는 31회 주관으로 진행되며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는 예배와 할렐루야 합창을 할 예정이다.



“언제나 좋은 얼굴, 당신의 미소를 생각합니다”

대표원장 최병기 (30회)

- 치의학박사(보철전공)
- 경희·조선대학교 치과대학 보철과 외래교수
-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 대한치과의사협회 경영정책이사 및 위원장 역임
- 북부 지방법원 조정위원
- 북부 지방검찰청 의료분과 상임위원
- 사단법인 열린의사회 의사회 명예회장
- I.C.D Korea(국제치의학회) 회장
- 국제 라이온스 협회 354-c지구 19지역 부총재 역임
- 서울사대부고 총동창회 부회장
- 민주평통 노원지회장
- 저서 : 「턱관절 교합학 교과서」, 「CBK Splint 전신건강을 지킨다」
- 특허출원 : 한국-중국 CBK(Cranial Balancing Key) Splint (두개골 균형 교합안정장치) 메탈 스트립 바이트
- CBK Splint : FDA승인 및 2015, 2016, 2017, 2018, 2021, 2022 6년 연속 메디컬 아시아 대상 수상



원장 최영균

-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 경희대학교 인턴, 레지던트(보철과) 수료
-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보철과 외래교수
- 보철과 전문의
-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 치과보철학회 인정의
- 턱관절교합학회 인정의
- 대한치주학회 정회원
-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보철학교실 박사과정
- 2021년 경희대학교 치과대학병원 최우수 전공의상
-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43대 회장 역임
- 대한공중보건치과의사협회의회 32대 회장 역임



진료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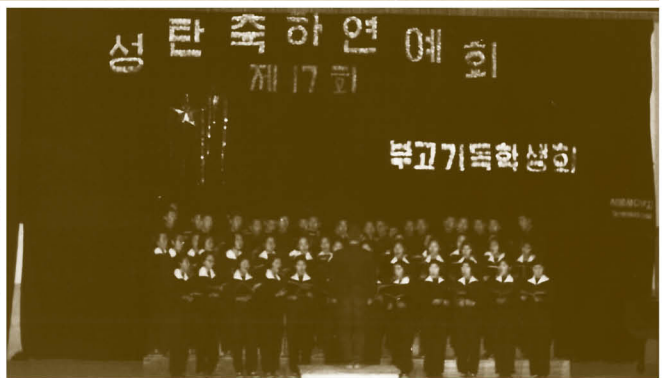
- 임플란트치료 · 심미보철치료 · 신경치료 · 치아미백 · 소아치료
- 보톡스 · 잇몸치료 · 예방치료 · 턱관절 교합치료

진료시간 · 평 일 : 오전 9시 40분 ~ 오후 7시
 · 토요일 : 오전 9시 40분 ~ 오후 4시
 · 점심시간 : 오후 1시 ~ 오후 2시

NAVER Daum YouTube CBK 스플린트 검색



좋은얼굴 최병기치과



사대부고 성탄축하예배의 추억

선후배 모두 함께 부르는 헨델의 할렐루야 잊지못하죠

12월이 되면, 그리고 '할렐루야' 합창을 들을 때면 늘 생각나는 서울사대부고 기독교학생회. 1학년 크리스마스 때였습니다. 최승운 선배님과 함께 성탄 나무 장식을 하는데 그 당시는 국산 장식품들이 조잡하게 만들어질 때였고 외국 것들은 예쁘게 값이 비싸 살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 제가 다니던 교회의 목사님께서 외국에서 가져오신 멋진 것들이 있어서 잘하고 싶은 욕심에 목사님을 졸라서 겨우 빌려다 예쁘게 꾸며 성탄 축하 연예회에 잘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일찍 그 장식품들을 거두어다 돌려 드리려고 음악실에 들어가니 웬걸, 거의 다 부서지고, 없어지고, 성한 것은 몇 개 남지도 않았습니다. 목사님께 대한 죄송함, 교회에 돌려 드려야 하는 책임, 사서 물어드릴 돈은 없고, 속상한 마음에 영영 물어 버렸습니다. Boy

Scout와 기독교학생회 악동들이 장난을 치며 재미를 본 모양인데 저는 그때 얼마나 부모님께 꾸중을 듣고 목사님 뵈랏도 없었는지 교회에서는 국산품으로 새로 사서 달수밖에 없었고 학교에서는 최선배가 붙여 준 '울보'라는 별명 때문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 해에는 최동희 음악선생님께서 마지막 Stage의 대곡들, 헨델의 '할렐루야'와 '주의 영광' 등을 지휘해 주셨습니다. "열심히 해라, 이 '할렐루야'라는 곡, 아무나 시켜주는 줄 아나? 너희 평생에 단 한번의 기회일 수도 있으니 열심히 하라" 하시며 정말 땀을 흘리며 고통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가르치시고 지휘하셨습니다. 안병찬 교감 선생님도 가끔 들리셔서 우리를 격려해 주셨고 합창 연습장이던 음악실은 크리스마스가 가까워 올수록 연일 그 열기를 더



해 갔습니다. 대강당에서 전교생이 학부모님들을 모시고 학교 잔치로 큰 행사를 치렀는데 합창, 독창, 중창, 연극 등 모든 것이 전통대로 선배님들의 도움과 보살핌 속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짐을 보며 혼연일체 된 그 정신과 저력에 새삼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2학년이 되자 그 모든 일들은 우리들의 몫이었습니다. 여름방학이 끝나기가 무섭게 우리는 새 임원진으로 재무장하고 성탄맞을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우선 조를 나누어 대 선배님들을 찾아뵙고 정신적, 재정적 지원을 약속받았습니다. 사회 각계에서 크게 활동하시는 선배님들은 우리의 자랑이요, 본이셨습니다. 더욱이 따뜻한 격려와 함께 들려주시던 옛 이야기들은 예상 밖의 수확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프로그램을 정하고, 섭외를 하고, 일들 속에서 선배님들의 경험을 내 것으로 삼으면서 함께 일하는 친구들과 일을 잘 이루어 내기 위해 참는 법도 배우고, 양보하며 기다리는 연습도 했고, 울며 기도하는 내적 아픔도 경험했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조광남 선배님이 지휘를, 그리고 김중은 동문이 반주를 맡았는데 모든 것이 대과 없이 잘 진행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합창의 대미를 더욱 웅장하게 마무리 할 욕심으로 대학생 선배님들이 맨 뒤에 서시고 그앞에 재학생들이 의자 뒤에 올라서서 노래를 했는데 선배님들은 지휘자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마지막 소절의 ‘할렐루야’를 부르는 대목에서 잠깐 쉬고 Sign에 따라 들어가기 위해 모두 긴장하고 있는 순간에 너무 열심히 자기 Part에 도취되신 선배님 한 분이 자기 나름대로의 박자에 맞추어 “할”하고 반 박자쯤 미리 우렁차게 부르셔서 모든 사람이 당황했습니다. 지금도 그 분이 누구였는지 모르지만 우린 서로들

“우리만 들을 정도였다”고 서로 위로하기에 바빴습니다. 서울 음대 강당에서 처음으로 연예회를 했었는데 얼마나 아늑하고 좋은 환경이었는지 모릅니다.

크리스마스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집에 들어가는 시간이 점점 늦어져 어떤 때는 통금 시간 가까이에 집에 갈 때도 있었습니다.

을지로 5가에서 장충체육관 뒤에 있던 우리집까지는 약 25분 정도 걷는 거리였는데 늦을 때마다 선배님이나 동문들이 바래다주어 우리 집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고 때로는 아버지가 데리러 오시기도 했습니다. 그 시절의 그림이 화려했던 또 하나의 이유는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합창 연습으로 목이 칼칼하고 거의 지쳐 있을 즈음, 인자한 미소와 함께 사들고 오시는 사랑봉지는 우리 모두에게 인기였고 고마움이었습니다. 더욱이 내가 사춘기 아들을 기르면서 새삼 부모님께 감격했던 것은 그분들의 나에 대한 ‘절대 신뢰’였습니다.

난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내 아이를 통해 수없이 느끼면서 그때마다 나를 그렇게 믿으시고 밀어 주셨던 내 부모님이 놀라 왔고, 또 그 믿음에 어긋남이 없도록 부모님께 솔직하고 믿음직한 딸이 되고자 노력했던 나 자신으로 하여 감사를 드렸습니다. 연극에 사용할 배경 그림들을 준비하느라 오동신 동문과 최승운 선배님이 밤을 새워 그리고, 칠하고, 똑딱거리고, 찢지도 못한 채 고생이 막심했는데 그 해 따라 얼마나 추웠던지 모릅니다. 그날 우리집 김장김치와 흰쌀밥은 다른 반찬이 필요 없을 정도로 그 동문들을 행복하게 했습니다.

선배님들과 재학생 모두는 혼연일체가 되어 모두의 재능과 정성과 열심을 하나로 묶어 성탄 축하 연예회를 마련하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웠는지 모릅니다. 고선옥(16회)



12월쯤이면 방과 후 기독교학생회 1·2학년 재학생들이 음악실에 모여 행사를 위한 음악연습으로 크리스마스 캐롤과 G.F. 헨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 중에서 ‘할렐루야’를 열심히 연습하고 있는데 곡이 너무 어려워서 째째 때는 재학생들은 지휘하는 선배에게 못한다고 매번 야단을 맞곤 하였다. 그때마다 반가운 손님들이 찾아왔다. 졸업한 선배들이다.

“저는 17회 N입니다.”, “저희는 20회 졸업생입니다.” 자기 소개를 하는 선배들은 수고한다고 위로와 격려를 해주며 푸짐한 선물로 준비한 사탕이나 과자를 내놓으며, 본인들의 지난 날 재학생 때 했던 일을 은근히 자랑도 곁들이는 구수한 옛날이야기는 시간가는 줄 모르게 재미있었다.

특히 12회 J선배는 단골 후원자이다. 종로2가 학원실장인 선배는 가끔 찾아와서 연습 후에 임원들에게 “모두 배고프지? 가자.” 하고는 청량리 교정 가까이 로터리에 있는 중국집으로 데려 가서 짜장면(남학생은 주로 곱빼기), 우동과 탕수육을 시켜 주는 선배가 선생님보다 훨씬 더 존경스럽다. 배고플 때 사 주는 짜장면 한 그릇(당시 50원)이 어찌나 그렇게 맛있는지 먹으면서 ‘나도 나중에 졸업 후에 후배들에게 맛있는 걸 사주어야지!’ 하는 고마운 마음이 들곤 하였다.

지금은 병환으로 몇 해 전 하나님 곁에 가 계신 선배가 문득 보고 싶을 때가 있다. 메리 크리스마스!^^ 흥광의(22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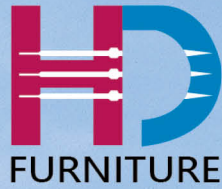
~ Fall on your knees! Oh, hear the angel voices! O night divine, the night when Christ was born. O night, O Holy Night, O night divine!” 반복하고 끝부분의 O Holy Night의 높은 음(Ab)까지 있

는 힘을 다하여 불렀는데 옆자리 친구가 말한다. “높은 소리가 잘 나네. 목소리는 안 예쁘지만...” “호호호.”

2학기 중간고사가 끝날 즈음 점심시간과 방과 후엔 부지런히 음악실로 달렸다. 기독교학생회 성탄축하예배에서 부를 합창을 연습하기 위해서였다. 2학년, 3학년 선배들도 함께였다. 때론 졸업생 선배님들도 찾아와 함께 연습하던 생소한 경험이었다. 아직 교복의 풀기가 빳빳하고 반짝이던 것처럼 1학년인 내 마음은 긴장과 설렘으로 빛났던 기억이 난다. 학교내 행사를 넘어 서울대 음대 강당에서 대선배님들과 예배하고 찬양을 하다니... 게다가 원어로 O Holy Night, I Wish Your Merry Christmas, 할렐루야, 잣나무와 칠팜쿨 등 대곡을 합창하는 것 자체가 자부심 넘치는 무대였다. 아니 지금까지 해마다 성우회 성탄축하예배 찬양에 함께 할 때는 고1 그때 그 마음이 된다.

그때도 예수님의 탄생을 기쁘고 감사하여 노래했지만 오늘엔 더더욱 이 땅에 평화가, 높은 곳엔 영광을 위해 간절히 노래하고 싶다. 그렇게 함께하던 친구와 선배들도 빠짐없이 그 때처럼 노래하고 싶다. 그리고 후배들도 이 감격으로... 어쩌면 이제 목소리가 더 예쁘지 않다고 말해줄 지도 모를 옆자리 그 친구는 먼저 간 천국에서 온전한 찬양을 하겠지... 심영옥(24회)

성우회 성탄예배도 헌신하는 동창들의 도움으로 매년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위로와 쉼의 시간을 갖는다. 그리고 기다림과 그리움의 거룩한 탄생을 축하한다. 기다림의 대림절, 그것보다 더 오래 우리는 성탄예배를 기다렸다. 예배 후 함께 부르는 헨델의 메시아 ‘할렐루야’는 우리가 한 동문임에 너무 감사하게 되는 순간이고 또 이것이



현대퍼니처

-장애인지정조달업체-



면목중앙교회 시무장로
전국주일학교연합회 부총무
전국주교수도권협회 증경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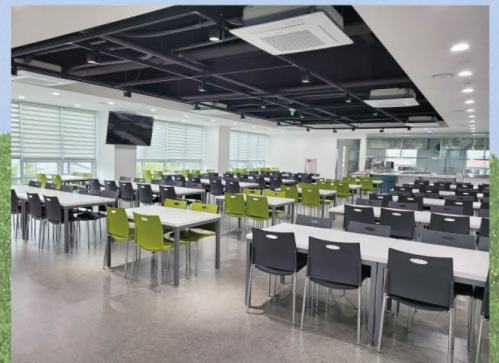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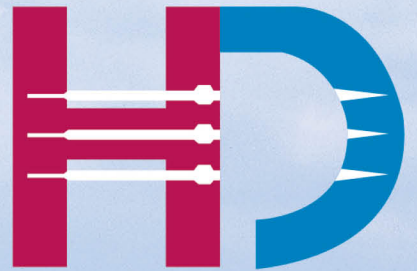
010-4728-7800

E-mail. jung4girl@naver.com

代表 鄭址善 (30회)



교회, 관공서, 학교 병원, 금융기관 등
사무용가구, 교구, 불박이용 가구
인테리어설계시공



사무실 : 서울특별시 중랑구 상봉중앙로 46 Tel : (02)2209-0709 Fax : (02)491-0920
공 장 :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가곡로72번길 40-9



은혜요 감사할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참으로 헤어지기 쉽지 않는 여운의 시간들이 그래도 흘러가고 다음을 기약하는 그 얼굴에서 우리는 모두 약 50년 전의 우리의 해맑은 얼굴들을 본다. 현찬홍(28회)

지회를 하던 영돈이가 자꾸 일으켜 세우는 거야. 음 이 틀렸다고. 다시 불러보라고. 그것도 잘 보이고 싶은 여학생이 옆에 있었는데...영돈이가 얼마나 야속한지... 40여 년 전 일이지만 결코 잊을 수 없자...그런데 그 덕에 누군지도 몰랐던 헨델의 대곡 메시아중 할렐루야 베이스 파트를 확실히 익혔지...넬 모레 열리는 서울사대부고기독인 성탄축하예배가 기다려져요. 정지선(30회)

성탄예배 준비한다고 노래도 못 부르는 내가 합창하는 모습이 우습기도 하였다. 방송에서만 듣던 헨델의 메시아 중 '할렐루야 대합창'을 연습하고 한국일보 대강당, 새문안교회 등에서 졸업하신 대 선배님(부모님 세대의 선배님)들과 함께 할렐루야를 함께 합창하던 감동은 지금도 잊지를 못한다.

또한, 갓 졸업한 선배님들(33회 지동회, 김효중, 김영숙)이 우리 연습하는 곳으로 고구마며 호빵 등의 간식을 가지고 찾아오셔서 응원하고 함께 참여해주는 모습에서 우리라는 것이 좋았던 것 같다. 2학년이 되어 임원으로 성탄예배 준비를 시작하면서 당시 성우회 회장이셨던 12회 정종점 선배님께서 근무하시던 종로2가 고려학원을 찾아갔을 때 남녀학생(36회 류한경, 박미진, 양정애, 이덕은)이 교복을 입고 2층에 있던 다방에 들어가던 기억은 마치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미팅을 시켜주는 듯한 모습이어서 지금 생각

하면 피식 웃음이 나온다. 이태화(36회)

무엇보다 성탄축하예배를 드리기 위해 성극과 합창을 준비하던 일이 기억의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학교 강당에서도 성탄축하예배를 드렸지만, 학교 근처 교회를 빌려 예배를 드리기도 했다.

예배장소와 연습장소 섭의를 위해 동분서주하던 친구들(경유하, 김선경, 김용운, 류창수, 민경준, 민기웅, 서미진, 신미라, 신재환, 심윤숙, 왕장기, 유주영, 이대훈, 이상희, 이수영, 임진우, 전대근, 조동일, 차승훈, 한인석, 한주연, 홍정순, 황정필)의 모습이 떠오른다. 조동일(44회)

매년 겨울이 되면 성우회 성탄 예배 추억이 떠오른다. 마지막 기말고사가 끝나면 성탄 예배 중 재학생 순서를 준비하기 위해 매일 교실과 학교 근처 교회에 모여 준비했다. 당시 재학생은 성극과 위십을 준비하였다. 성극을 준비할 때 열정적으로 가르쳐주었던 53기 선배님들, 배고픈 시간이 되면 양손 가득 간식과 함께 찾아와 주셨던 김룻 선배가 제일 기억에 남는다 선배님들의 열정과 사랑을 추억하면 지금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이 느껴진다. 동기 문경, 태호, 은혜와 함께 했던 즐거웠던 시간들, 양초를 앞에 놓고 있다가 머리카락이 탔던 장난스러운 기억들...

한 해는 성탄예배를 마친 후 문광순(12회) 고선옥(16회) 선배님께서 택으로 초대해주셔서 따뜻한 차와 다과를 나누어 주셨다. 추운 겨울 예쁜 트리와 함께 너무나 따뜻했던 선배님 댁에서의 시간은 성탄의 기쁨으로 충만했던 시간이었다. 김은실(54회)

식약처 인증 KF94 마스크 서울사대부고 동문특가



KF94 네오라이프 소프트 항사방역마스크

새부리형마스크 동문특별 할인판매가

30,000 원

100개 (5매 X 20개)

KF94 네오라이프 항사방역마스크

3D마스크 동문특별 할인판매가

29,000 원

100개 (10매 X 10개)

주문처

문자나 카카오톡 주문 가능합니다.

(주)네오메디제약 대표이사
이상민(39회)

(주)네오메디제약 이사
손경수(45회) 010-3413-0678



의약외품 전문제조사 / OEM전문기업

네오 NEO 네오메디제약



“동창회 사랑은 연회비 납부로부터”

2022. 01. 01
~
2022. 12. 10

연회비 4만원, 모교발전기금 1만원입니다.

보내주신 연회비는 투명성과 합리적 관리 체계로 천하부고의 역사를 계승합니다.

사랑을 보내주신 동문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납부방법** (문의 : 사무처 02-588-7871)

- ▶ 무통장 입금 : 우리은행, 서울사대부고 동창회 계좌 1005-701-788162
- ▶ 지로 입금 : 동봉한 지로용지 이용 금융기관에 납부
- ▶ 현장 납부 : * 각종 행사 시 동창회에서 접수 창구 설치 예정
* 동창회관 2층 사무처에서 연중 접수

임원회비

회장회비 (200만원)

이강년(25회)

부회장회비 (100만원)

권경임(25회), 김성욱(25회), 김인호(25회), 김현만(25회), 심상덕(25회), 원유동(25회), 유재홍(25회), 이광형(25회), 이훈(25회), 임우성(25회), 정인모(25회), 한명웅(25회), 홍성태(25회), 윤관선(26회), 이진형(26회), 김기명(27회), 심상인(27회), 장덕상(30회), 장세결(30회), 최병기(30회), 김영준(32회), 정순철(36회), 최치영(36회), 현숙원(44회)

감사회비 (40만원)

김종규(20회), 조성만(36회)

기별회장회비 (40만원)

윤승태(07회), 조동암(09회), 김태무(10회), 조지명(13회), 성경모(14회), 김성식(15회), 심향섭(16회), 이진구(16회), 정선(17회), 송남영(18회), 이호균(19회), 이성홍(20회), 오부근(21회), 이기선(22회), 손창조(23회), 변형완(24회), 강준석(25회), 권영선(26회), 이한방/이명숙(27회), 이예선(28회), 김경순(29회), 장세준(30회), 이종식/윤현숙(31회), 배병철(32회), 노용오(33회), 김영범(35회), 김준호(36회), 이종오(39회)

이사회비 (20만원)

조혜옥(11회), 이희숙(13회), 현광언(13회), 김명자(14회), 황대우(14회), 황해선(14회), 구화자(15회), 연향흠(15회), 진근찬(16회), 김해령(17회), 이병림(17회), 정명애(17회), 정인숙(17회), 강창희(18회), 김현숙(18회), 성기정(18회), 오증근(19회), 윤웅열(19회), 이재희(19회), 장기숙(19회), 강현자(20회), 박영욱(20회), 신은승(20회), 오삼숙(20회), 윤금호(20회), 정은숙(20회), 조순희(20회), 김미희(21회), 김영수(21회), 김해진(21회), 노부호(21회), 오원석(21회), 임선옥(21회), 한민덕(21회), 남윤순(22회), 박정례(22회), 이종문(22회), 김중희(23회), 박혜인(23회), 배성숙(23회), 이지용(23회), 이혜경(23회), 정만용(23회), 정윤용(23회), 홍승업(23회), 김유준(24회), 박정은(24회), 배형수(24회), 한정희(24회), 설옥희(25회), 신성호(25회), 안병걸(25회), 윤상학(25회), 장영수(25회), 김원오(26회), 차경호(26회), 현숙희(26회), 박영준(27회), 서동훈(27회), 이근혁(27회), 이원호(27회), 최운선(27회), 김영순(29회), 김판규(29회), 허석자(29회), 김은선(30회), 박귀희(30회), 이화근(30회),

강명준(31회), 권희안(32회), 김정애(32회), 박대순(36회), 강현철(44회), 이상욱(44회), 박장군(47회)

기별분담금

50만원 : 13회, 14회, 15회, 16왕, 38회, 39회, 42회, 44회, 47회 / 450만원
100만원 : 16회, 17회, 18회, 19회, 20회, 21회, 22회, 23회, 24회, 25회, 26회, 28회, 30회, 31회, 32회, 33회, 34회, 36회 / 1,800만원

연회비

- 1회 : 故박봉배 (1명)
- 2회 : 강성은, 김여순, 김중희, 변용성, 유병무, 정현태, 무기명 (7명)
- 3회 : 김영이, 백남수, 이의영 (3명)
- 4회 : 김영순, 김인수, 김인숙, 김정자, 김탁일, 유지한, 정주영, 최계숙, 최정숙, 홍용균 (10명)
- 5회 : 김선양, 김순희, 김정환, 김중오, 나금순, 박복출, 박세춘, 신현태, 유재봉, 이해영, 임공빈, 한문희 (12명)
- 6회 : 김명국, 김정순, 박종오, 안인선, 안정원, 유인숙, 윤석연, 이순원, 이재분, 이종열, 임영숙, 임은경, 최광률, 홍성일 (14명)
- 7회 : 경동호, 김영숙, 김충한, 노순주, 목요상, 민병채, 박영숙, 박성호, 송태진, 신윤식, 심영보, 안정순, 윤승태, 이봉주, 이용분, 이인호, 이재원, 이창인, 임동호, 정국수, 정숙경, 주영숙 (22명)
- 8회 : 구자홍, 김기열, 김삼열, 김석영, 김의재, 김인애, 김진억, 김태련, 박봉순, 손근수, 송복경, 우종삼, 이묘범, 이꽃자, 이옥근, 이창배, 이현영, 이현태, 장형경, 조영태, 홍순자 (21명)
- 9회 : 고화영, 권재혁, 김낙배, 김명기, 김승진, 김영원, 김의나, 김정일, 김지현, 김태환, 민대식, 변금진, 손경해, 신승일, 양현선, 염정자, 오명옥, 이기준, 이수빈, 이태욱, 이현선, 장문기, 전수영, 정수진, 황광자 (25명)
- 10회 : 권형춘, 김서환, 김연기, 김윤순, 김정숙, 김종서, 김주영, 김중환, 김진호, 김창규, 김태무, 김현순, 민경선, 민병섭, 박귀희, 박영숙, 박인재, 박임성, 서군자, 염준세, 오현근, 유경순, 이규식, 이규진, 이병재, 이석형, 이선호, 이순규, 이윤주, 이종구, 이종무, 이창배, 이해봉, 장병용, 전성희, 정순영, 조정호, 진명식, 최광문, 최윤만, 최중서, 하여환,

- 한규섭, 한은희, 황인수 (45명)
- 11회 : 강신중, 강창호, 권오경, 김동연, 김영승, 김영은, 김인, 김정기, 김정자, 김해동, 김홍민, 류간성, 류재호, 민완기, 박성하, 박여일, 박옥순, 박창욱, 사종식, 성기호, 신혜숙, 심형진, 엄창섭, 연홍숙, 유익선, 유철자, 윤경자, 윤정철, 윤혜자, 이광용, 이인숙, 이정란, 이정자, 이창동, 이창용, 이황원, 전정혜, 정영자, 정지우, 정태환, 정화자, 조혜옥, 최부원, 최영자, 현정자, 홍명자, 홍승표 (47명)
 - 12회 : 고국남, 김영철, 김에나, 김유, 김철희, 김현자, 민수광, 박양서, 박영자, 서홍석, 송영옥, 심현실, 안진자, 원병희, 유승웅, 이문영, 이문호, 이성주, 이수자, 이영배, 이재현, 이정자, 이창대, 임영자, 정광호, 정철, 최윤현, 호문익, 황원섭 (29명)
 - 13회 : 강양빈, 광정선, 권근자, 김기영, 김봉환, 김수창, 김영일, 김영호, 김용언, 나길운, 문혜자, 박성학, 박영구, 박영범, 박영숙, 박영자, 배기풍, 배명식, 백호희, 변영일, 서장원, 손문익, 오형근, 우영남, 원춘자, 윤상열, 이경희, 이기재, 이범관, 이석호, 이순자, 이원호, 이용웅, 이익돈, 이종훈, 이철용, 이치운, 이해민, 이형, 이형택, 이희자, 인형무, 임경자, 장순주, 전관, 정광자, 정길자, 정용우, 조정자, 조지명, 조한익, 채수명, 최규순, 최부일, 한정선, 홍경자, 홍순자, 홍혜자 (58명)
 - 14회 : 고문자, 권혜자, 금정호, 김광자, 김동호, 김명자, 김성자, 김용찬, 김인숙, 마영자, 발달현, 박인순, 박준삼, 박용아, 방수자, 변정선, 변중홍, 서정숙, 송기범, 송선희, 신호영, 안영근, 엄숙자, 오수자, 오영환, 왕준자, 유기원, 유승빈, 윤덕중, 이근우, 이광재, 이규중, 이대경, 이무준, 이병일, 이선자, 이순민, 이승모, 이용건, 이창홍, 이태운, 전문자, 정규학, 정선자, 조경자, 조완숙, 조종하, 채현기, 채혜자, 최경희, 최명성, 최철건, 하민영, 한영광, 허수창, 홍수경, 홍창용, 황대우, 황대현, 황혜선 (60명)
 - 15회 : 구용해, 구화자, 권순옥, 김경숙, 김경애, 김경자, 김동철, 김성식, 김수자, 김승춘, 김사나, 김영갑, 김정윤, 김중결, 김홍중, 박기용, 박순성, 박원세, 박정옥, 백정현, 손용구, 송규섭, 송유선, 신현철, 안신일, 양기수, 연향흠, 왕진수, 윤계선, 윤병걸, 이남구, 이두호, 이부자, 이성은, 이용우, 이용이, 이정복, 이태경, 이희자, 장규식, 장기중, 전건영, 전행자, 정동진, 정두경, 정명자, 정승수, 조종만, 조해석, 주성수, 진창수, 채영세, 최동진, 최명옥,

최원명, 한영만, 홍영표, 홍원유, 황동규 (59명)
16회: 강기중, 강인자, 김광현, 김명현, 김양자, 김윤종, 김은영, 김정차, 김중숙, 김진국, 김용자, 노준용, 맹해열, 박상규, 박수일, 박정숙, 박재애, 박호범, 방유정, 백상기, 신동복, 신인숙, 신해순, 심춘자, 심향섭, 오동신, 이상래, 이석영, 이종근, 이항숙, 이호숙, 장용웅, 정만호, 정숙자, 정영경, 정영숙, 정재영, 정태영, 주현길, 천주훈, 한동진, 홍대림, 홍사순, 황정환 (44명)
16왕: 고평자, 권진세, 김순자, 김인영, 김장환, 김종건, 신홍식, 이근자, 장공자, 전홍식, 잔근찬, 채영희, 최차복 (13명)
17회: 강신호, 강창길, 경의영, 광경호, 권유중, 김근실, 김명재, 김명자, 김백균, 김숙화, 김정은, 김영철, 김영택, 김영화, 김영희, 김옥례, 김원영, 김인기, 김정규, 김정애, 김정희, 김중애, 김혜영, 김흥기, 나진욱, 남기영, 노창무, 목철수, 문정자, 박군자, 박숙자, 박영태, 박정규, 박춘자, 박해영, 박해우, 백일성, 사공영, 서병수, 송병길, 송영수, 신길승, 신진우, 심상훈, 엄영섭, 엄성열, 오동진, 오성환, 유기동, 유이순, 유지현, 유지방, 유창중, 윤현오, 이강선, 이광성, 이근수, 이문연, 이병림, 이병석, 이병환, 이성용, 이성환, 이연희, 이영숙, 이일희, 이정숙, 이현숙, 이희숙, 이화연, 이화진, 이효은, 이희림, 임근식, 임재홍, 임정엽, 장경민, 장문선, 장재선, 장정수, 전재영, 정기현, 정병애, 정병조, 정 선, 정순채, 정용진, 정인숙, 정재순, 조대영, 조정자, 조희원, 채희자, 최석찬, 최승우, 홍관숙, 황광익 (97명)
18회: 강항욱, 권오성, 권정임, 김두성, 김성환, 김순애, 김용배, 김정순, 김중락, 김철수, 김춘영, 김춘태, 박운용, 박현재, 변진식, 심건섭, 오문숙, 오진영, 유재희, 유제철, 이광렬, 이기항, 이덕연, 이명섭, 이상조, 이석목, 이재임, 이현주, 이화봉, 장구하, 전광우, 전동수, 전화숙, 정준양, 정택주, 조동관, 조창래, 진영문, 최정민, 표천근, 함소남, 황규철, 황병조 (43명)
19회: 강상빈, 강영식, 권순성, 김동진, 김명기, 김명복, 김수자, 김윤걸, 김 정, 김중성, 김중현, 김혜성, 문창석, 박 종, 박 찬, 박찬용, 박현숙, 변원일, 변인석, 서지영, 성영중, 손환원, 송영옥, 신동국, 신태건, 유옥자, 윤도중, 윤명숙, 윤용열, 이규성, 이기훈, 이도영, 이상분, 이상재, 이상일, 이옥용, 이원강, 이인자, 이재성, 이재희, 이지영, 이호균, 임석재, 임연철, 임재봉, 장기숙, 장동원, 장수명, 전동검, 진석연, 최용장, 한문희, 한정희, 현영옥, 황석영 (55명)
20회: 강석완, 강익순, 강진경, 고승범, 구관서, 김경오, 김기순, 김상현, 김성진, 김영식, 김영옥, 김영희, 김옥련, 김용민, 김 인, 김인식, 김종규, 김진분, 김향숙, 김현수, 남기윤, 민성남, 박동욱, 박상연, 박영순, 박정숙, 박준구, 박찬범, 박찬욱, 박충남, 성백엽, 성철중, 손정순, 송신실, 송재영, 양규석, 염공섭, 원선자, 유인선, 유근호, 윤기숙, 윤두중, 이난희, 이상규, 이세영, 이종오, 이종일, 이찬민, 이해완, 이현희, 이호림, 임광수, 임희규, 정기준, 정범순, 정은희, 정주식, 조남철, 조문행, 조순희, 조영익, 주동선, 차성은, 한규현, 한정민, 한희숙, 황인규 (67명)
21회: 강광희, 강권철, 강인하, 강정희, 고종환, 김동준,

김미화, 김상림, 김억조, 김여영, 김영두, 김용빈, 김원근, 김주선, 김주완, 김해진, 김혜경, 김혜순, 김효경, 노부호, 민혜옥, 박수영, 박순호, 박종만, 박해동, 박해옥, 서정근, 송완영, 안양근, 안희영, 안희태, 엄익환, 오부근, 오정희, 원운국, 유달준, 유성무, 유정옥, 유 탁, 윤기정, 윤자중, 윤치훈, 윤희상, 이기섭, 이마자, 이상란, 이서향, 이영화, 이은식, 이인숙, 이종원, 이종민, 이창길, 이해문, 이해자, 이효범, 임재복, 전제녀, 조석순, 조성교, 지윤업, 차현덕, 최영해, 최정국, 팽경애, 한대교, 홍현숙, 황준용 (68명)
22회: 강인숙, 고석현, 곽순애, 권영철, 김관수, 김금량, 김선옥, 김성철, 김옥숙, 김의식, 김인걸, 김진영, 김진완, 김태식, 김화자, 남윤순, 박계화, 박남준, 박은화, 박정복, 박정희, 신형식, 신혜란, 안광임, 양충진, 윤소성, 이근우, 이기용, 이상국, 이상래, 이용금, 이익식, 이종문, 이주명, 이필녀, 이홍숙, 임호순, 정옥경, 정윤정, 정인준, 정진태, 최병숙, 표정자, 한승훈, 한준희, 허무정, 홍사건, 홍사성 (48명)
23회: 강명숙, 박삼근, 권옥귀, 김경자, 김광은, 김복경, 김성직, 김성현, 김순호, 김영희, 김우식, 김유화, 김윤희, 김은정, 김인순, 김재영, 김재용, 김정숙, 김정영, 김중미, 김진국, 김태현, 김태홍, 김현중, 김혜란, 김홍진, 노문선, 맹형열, 문순자, 문인화, 박계용, 박상숙, 박옥규, 박윤근, 박은희, 박정화, 박홍식, 배경숙, 배환기, 서순경, 서재선, 성기열, 송요상, 송재철, 신기수, 신언선, 신정희, 신종원, 오광봉, 오현희, 우종찬, 유 라, 윤명자, 윤영규, 윤재운, 이경제, 이규영, 이기환, 이명자, 이미근, 이석하, 이소현, 이순열, 이만기, 이상용, 이정우, 이주진, 이현식, 장명자, 장중환, 전상우, 전형석, 정명숙, 정복숙, 정상국, 정성식, 정영수, 정인환, 정재희, 정태영, 정태호, 정혜용, 조동근, 조동순, 조양래, 조연옥, 조완구, 조화숙, 조한복, 주성혜, 채희규, 천배영, 최경진, 최광순, 최병철, 최성옥, 최영옥, 최인선, 최인숙, 최정애, 한영민, 한홍자, 홍복기, 홍예영, 홍현숙, 무기명 (106명)
24회: 강영숙, 강인하, 강준원, 강준환, 계세찬, 김경애, 김경희, 김교민, 김기영, 김기항, 김영철, 김유준, 김인성, 김혜란, 김혜선, 김화윤, 남정애, 류병일, 문상영, 문재현, 박명숙, 박성영, 박순순, 박윤진, 박정은, 박홍일, 백연화, 백영란, 변영화, 서광호, 선성규, 신영숙, 심기윤, 심영숙, 유병옥, 윤미용, 이경희, 이기찬, 이명숙, 이사랑, 이상필, 이성범, 이영자, 이인숙, 이재홍, 이종래, 이진순, 이태중, 이향희, 임정훈, 임혜영, 정경훈, 정교철, 정인숙, 조규식, 최영원, 최성식, 최영귀, 한주숙, 허동욱, 홍리매 (61명)
25회: 강윤창, 강준석, 강태숙, 곽한우, 권경임, 김광래, 김명희, 김병애, 김보미, 김보옥, 김순자, 김인호, 김정건, 김종만, 김창동, 김태영, 김도진, 김현만, 김혜서, 남선례, 남화창, 노규형, 박정영, 배원중, 변진호, 봉원표, 서명자, 서병일, 설옥희, 성국현, 송상영, 신영자, 심상덕, 안병걸, 양일승, 오인자, 우순옥, 우재명, 원우동, 유성수, 유재홍, 윤상학, 윤설희, 이경희, 이광수, 이광형, 이기열, 이선희, 이상일, 이성희, 이수자, 이 숙, 이영규, 이영무, 이완기, 이원호, 이종윤, 이준원, 이학길, 이형권, 이 훈, 임우성, 임흥선, 장명철, 장 신, 장영수,

전인숙, 정내나, 정성혜, 정영숙, 정은근, 정인모, 조순자, 조문순, 조현주, 최문자, 최재범, 한영순, 현상남, 현종찬, 홍성연, 홍성태, 홍성태, 황건중 (84명)
26회: 권금옥, 권오용, 김명신, 김명희, 김문성, 김순희, 김영실, 김원일, 김은미, 김중희, 김태오, 남기열, 박진규, 변순영, 신용경, 유서영, 유양순, 윤석균, 이용은, 정성근, 정영희, 조순정, 차경호, 홍영규 (24명)
27회: 계용준, 고광욱, 고은희, 권영옥, 권현수, 김기명, 김서영, 김영아, 김영희, 김옥천, 김지현, 김진혁, 김현숙, 남찬현, 박교식, 심상민, 이근혁, 이난희, 이명숙, 이용우, 이 혁, 임도희, 임윤규, 조용길, 주만중, 진양교, 한현우, 홍혜경 (28명)
28회: 김동환, 김우성, 김중철, 김한길, 김혜경, 김효명, 민동준, 서태경, 성경애, 송예민, 신동자, 오성진, 유재영, 윤성택, 이영희, 이예선, 이옥식, 이진복, 이한석, 조영수, 채동훈, 한재광 (22명)
29회: 권기선, 김중춘, 김만규, 노명환, 민영주, 박금순, 박미숙, 박순찬, 변상선, 설희자, 송태경, 심동명, 안성용, 안경희, 유보형, 이경진, 이상배, 이재훈, 정병덕, 허석자 (20명)
30회: 김미숙, 박윤수, 김대진, 김영춘, 김은선, 김재호, 박귀희, 박재용, 박찬호, 박현희, 성혁진, 송원기, 신선미, 안태현, 오호진, 유종숙, 이경미, 이병국, 이선규, 이충열, 이현자, 이혜원, 이효정, 장동권, 장영석, 정수경, 정연삼, 태중순 (28명)
31회: 강명준, 김경훈, 김기운, 김동백, 김태희, 서종원, 손혜정, 양경숙, 이정현, 이형준, 임혜진, 정권천, 정시현, 조창식, 한경준, 황달연 (16명)
32회: 권우희, 김광복, 김명순, 김상숙, 김영례, 김영준, 김정애, 김희정, 나기훈, 박우순, 배병철, 성대중, 안성진, 이경찬, 이승섭, 이 원, 임영희, 전홍재, 정경돈, 정순희, 최홍병, 허동성 (22명)
33회: 김광훈, 김미혜, 노용오, 박영석, 주철림, 지동희, 지현호 (7명)
34회: 강구창, 김미미, 박봉우, 유춘화, 이원중, 정정화 (6명)
35회: 김영범, 김용호, 박종완, 송병준, 이창희, 조용식, 한혜선 (7명)
36회: 김효신, 류한경, 서경숙, 성기동, 유성현, 윤찬호, 이덕은, 이원섭, 장보아, 장임철, 전 환, 정순철, 최병석, 최지영, 허정윤, 홍성표, 홍지숙 (17명)
37회: 김연태, 김희진, 오현주, 이강희, 이승수, 황승경 (6명)
38회: 김진규, 박영애, 오인환, 정순희, 조주은 (5명)
39회: 박동근, 이성옥, 최선옥 (3명)
40회: 김현정, 황수경 (2명)
41회: 이해범, 임재승 (2명)
42회: 김형찬, 한정민, 황용기 (3명)
43회: 김연중, 김태근, 류한천, 이승환, 정원심 (5명)
44회: 김형관, 안주덕, 윤정숙, 정동근, 현숙원 (5명)
45회: 이승진 (1명)
46회: 김은옥, 오 룡 (2명)
47회: 김현정, 나용식, 박성용, 신혜진, 우남영, 정혜영, 채용석 (7명)
48회: 권형택, 박상수, 박종학, 심형선, 임성원 (5명)
49회: 구진백 (1명)

• 무기명 : 35명 • 납부인원 : 1,378명

▶ 애틀란타 동창회 회장 황춘기(22회)



서울사대부중고 애틀란타 동창회는 지난 9월 14일 치코피우드 골프클럽에서 가을맞이 골프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에서 남자부는 1등 김남철(20회), 2등 김순홍(13회) 동문이, 여자부는 1등 최혜심(14회)이 차지했다. 이정우(29회) 동문은 싱글을 쳤지만, 진행위원으로 등수에서는 제외됐다. 황춘기 동창회장은 “내년부터는 봄가을 두 번 골프대회를 갖기로 했다”며 동문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송년회 일정과 장소는 다음과 같다.

송년회: 날짜 12월 15일(목) 오후 4시 장소 Longlake Clubhouse 1405 Haddenham Dr. Cumming, GA30041. 참고로 Longlake Clubhouse는 동창회장이 거주하는 subdivision의 clubhouse이다. 위치는 Johns Creek H-mart에서 Peachtree parkway(141)에서 북쪽으로 15~20분 거리에 있다. 많은 동문들이 참여하면 행사 준비하는 임원진에게 많은 힘이 될 것 같다.

동문회 연락처 : 황춘기(22회) 213-595-8335

이정우(29회) 914-320-5354



9월 24일 산행에는 11명이 참석했다. 산행 후 점심 식사 때 탁무생 선배님 부부께서 참석해주셔서 더욱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오늘 점심은 각자 준비한 재료로 비빔밥을 매운 비빔밥과 덜 매운 비빔밥을 만들어 오랜만에 야외에서 즐겁게 지냈다. 후식으로 약식을 준비해 주신 이강순 선배님 사모님과 케이크를 손수 만들어 준비해 주신 노홍식 선배님 사모님께 감사드린다.



10월 28일 산행은 9명이 참여했고 산행 후 탁무생 선배님 부부께서 멕시코 레스토랑에서 특별 주문하신 브리토를 먹으며 모두 환담을 하며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 선배님께 감사 말씀드린다.



10월 19일 Cherokee Bluffs Park에서 가을 야유회가 있었다.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22명이 참석했다. 특히 오늘 야유회는 노홍식 선배님의 팔순을 기념하는 뜻깊은 날이기도 했다. 노 선배님 사모님께서 팔순 기념으로 모든 음식과 게임 상품을 손수 준비해 주셨다. 식사 후 임혜옥 선배님의 재치 있는 게임 준비와 진행으로 모든 분이 박장대소하며 즐거운 게임 시간을 가졌다. 특히 상품으로 무와 배추, 단호박까지 등장해 더욱 즐겁게 지냈다. 추운 날씨에도 야유회 모임에 참석해 동문 모임을 더욱 빛내주신 선배님들께 감사드린다. 노 선배님 만수 무강하시고 음식과 상품 준비에 고생하신 사모님 그리고 재미 있는 게임을 준비해 주시고 진행해 주신 임혜옥 선배님과 야유회 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이정우 총무님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

홍보업 선생님께서 12월 10일 토요일 오후1시쯤 폐렴으로 소천 하셨습니다. 장례식은 지난 12월 12일 저녁 7시 30분에 마리에타에 있는 베다니 장로교회에서 있었다. 64년부터 71년까지 사대부고 재직하던 중 2년간 풀부라이트 장학금을 받고 미국에서 수학 하셨습니다. 1937년 7월 12일 출생하셔서 향년 85세로 소천하셨습니다.

▶ **뉴욕동창회** 회장 오시국(22회)



뉴욕동창회는 10월 23일 춘계골프대회가 있었다. 16회 이청일, 21회 강덕중, 20회 권일준, 23회 유응렬, 25회 변진호, 22회 오시국, 21회 김용환, 16회 이종근, 22회 문선, 그리고 이청일, 이종근, 김용환, 권일준 동문들의 부인 네 분 모두 13명이 참가했다.



또한 11월 13일 뉴욕 동문은 단체로 monet garden에 가서 입체 명화를 관람하고 왔으며 12월 10일 35회 한윤미 동문 집에서 44명이 참여하여 성황을 이룬 즐거운 만남을 가졌다.



퀸즈 칼리지에 재학중인 72회 황찬미 동문에게 1000불의 장학금도 수여했다. 교장 선생님과 학교의 추천을 받은 학생 중 뉴욕장학회에서 선정하여 두 명의 재학생에게 1000불씩 수여하기로 결정하였다. 내년에는 장학금을 많이 수여하려고 계획 중이며 내년 월례회에는 4분이 더 참가를 원하셔서 성황을 이룰 듯하다. 내년 1년 더 현 집행부의 유임을 결정했다. 회장 22회 오시국, 부회장 재무 24회 한근재, 새롭게 구성된 장학위원회에 35회 한윤미 동문이 돕기로 의결을 하였다.

▶ **남가주 동창회** 회장 박흥주(22회)



지난 11월 12일 남가주 청구회 모임이 있었다. 김흥숙, 김지백, 성한석, 안성주, 민건홍, 이길주, 김용주, 원건희, 김정호, 신광재, 이석규, 강병찬, 이씨니, 이창준, 김민주, 최광훈, 정봉철, 윤재욱, 이태윤, 이 연 모두 20명이 참석하였다. 송년의 밤은 코로나의 여파로 기수가 높은 선배님들이 많으신 관계로 이번 연도는 일정을 생략했다.



▶ **남가주 7회 모임** 회장 윤병남



남가주에 거주하는 7회 남자 동기들(동기 7명과 배우자 4명)이 지난 9월 21일 L.A.에서 정기 오찬 모임을 했다. 실은 우리 동기들이 연로하여 기력도 약해지고 장거리 운전도 여의찮아 회장이 마지막 모임으로 소집하였으나 회원 다수가 끝까지 가보자고 하여 연 2회의 정기모임을 계속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사진 왼쪽 두 번째부터 윤병남, 김인기, 김재형, 노원철, 장기열, 권순호, 김철구, 김인기와 권순호 동기의 배우자가 몸이 불편하여 불참하여 아쉬웠지만, 속히 쾌유하여 다음 모임 때 만남을 기약하였다.

▶ **남가주 17회 모임**

17회 동기들이 지난 12월 7일, 엘에이의 죽향에서 모였다. 지난 몇 달 동안의 안부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사진 왼쪽부터 박기순, 박성근, 신용길, 계인려, 이정혜, 나주옥, 민경자, 아래줄 가운데가 박영희. 사진찍으시느라 사진에 없는 분은 이성자.

▶ 토론토 동창회

긴 팬데믹을 무사히 보낸 후, 지난 12월 9일(금) 토론토에 있는 한식당에서 송년모임을 가졌다. 모두들 건강한 모습으로 밝은 미소속에 23명 동문들이 반갑게 안부를 나누며 끈끈한 동창애를 나누니 분위기가 화기애애하다.

맛있는 식사를 하고 간단한 회계보고 후 우리 한민족의 빼놓을 수 없는 노래방이 시작되며 코로나로 침체됐던 마음들을 열었다.

그리고 춤으로 움츠렸던 몸들을 일깨웠다. 모두들 자리에서 일어나 '사랑의 트위스트'의 리듬에 빠져들었다. 그것도 세 번이나 연속으로!! 와우~~.

맘들이 일체가 되고 신체에 활기를 불어넣으며 즐거워들 하셨으니 올해의 모임은 대만족! 감사의 맘이 넘친다!! 내년엔 여러 사정으로 참석 못한 동문들의 대거 참석을 기대한다!!

자리를 빛내준 동문들(존칭 생략)

12회 김계자(고 김강옥 부인), 14회 정관성, 15회 장혜진부부, 황영희부부, 16회 박희자부부, 17회 방종식부부, 18회 이상건부부, 19회 박세영부부, 22회 이양배부부, 23회 김은정부부, 28회 함영중부부, 31회 송명숙부부, 38회 최병재.



미주알 고주알

▶ 19회 임석재 동문의 아들

임진순 감독 영화 '압구정' 개봉

12세 이상 관람가 코미디 / 2022년 11월 30일 개봉 112분
감독 임진순 출연 마동석, 정경호, 오나라, 최병모, 오연서

'압구정' 임진순 감독 "80% 이상을 실제 압구정동에서 촬영"

지난 11월 17일 오전 CGV 용산 아이파크몰에서는 영화 '압구정'의 제작보고회가 진행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임진순 감독, 마동석, 정경호, 오나라, 최병모, 오연서가 참석해 작품에 관해 이야기했다. 영화 '동네 사람들과 슈퍼스타' 이후 '압구정'으로 돌아온 임진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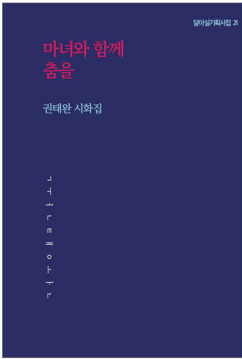


감독은 "사업 아이템은 넘치는 인물과 성형외과 최고 실력을 갖춘 인물이 우리나라 K뷰티 사업의 시조새가 되는 이야기로 가볍게 볼수 있는 코미디"라며 4년 만의 작품 소개이며 언론 앞에서 긴장된다는 임진순 감독은 심하게 떨리는 목소리로 작품을 소개했다.

임진순 감독은 "작품의 80% 이상을 압구정동에서 촬영했다. 마동석과 저의 신인시절 압구정 거리에서 맥주 한잔을 하며 나중에



꼭 작품 하자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작품까지 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며 "제목부터 압구정의 이야기여서 압구정의 배경을 담기 위해 노력했다."라며 로케이션에 관해 이야기했다. 임진순 감독은 "유쾌하고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영화다. 웃고 싶으시다면 영화를 꼭 극장에서 봐주시면 좋겠다"라며 관람을 당부했다.



▶ 15회 권태완
마녀와 함께 춤을

| 달아실
화가이기도 한 권태완 시인은 서울대학교 영어교육과를 졸업하고 20년 동안 서울 소재 공립 중학교에서 교편을 잡았다. 어느 날 시를 쓰고 싶었다. 그림을 그리고 싶었다. 마침내 선생이라는 직업을 버리고 서울을 버리고 춘천에 내려왔다. 30년 전의 일이다. 그렇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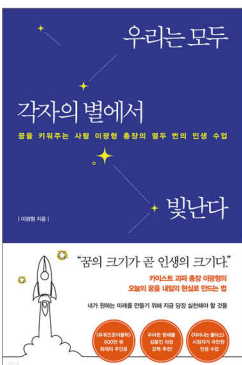
30년째 춘천에서 그림을 그리고 시를 쓰고 있는 권태완 시인이 세 번째 시집(『마녀와 함께 춤을』)을 달아실기획시집 21권으로 펴냈다. 85페이지라는 적지 않은 시편들이 수록된 이번 시집에는 권태완 시인의 그림 [Out of Memories] 연작 15점도 함께 실려서, 권태완 시인의 시와 그림을 동시에 감상할 수 있다.



▶ 19회 오현세
여자는 존재 자체로 낙인이었어

| 달콤한 책
남자들은 여자를 어떤 눈으로 보고 있나?
남자는 그것을 의식하고 있나? 여자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5천년 전의 갑골문과 한자, 그리

고 역사를 뒤져 이야기를 만들어봤습니다. 자료준비에 10년, 집필 2년, 출간과정에 1년 걸렸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오현세 작가는 동창회보에 10여년 간 만화 <함께 오래 산 부부일기>를 그렸습니다.



▶ 25회 이광형
우리는 모두 각자의 별에서 빛난다

| 인플루엔셜
꿈을 키워주는 사람 이광형 총장의 열두 번의 인생 수업

인생을 살다 보면 문득 앞이 보이지 않는 순간을 맞을 때가 있다. 그런 막막한 순간, 나보다 앞서 인생을 산 '좋은 어른'에게 조언을 얻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는 모두 각자의 별에서 빛난다》는 책상 위에 10년 뒤 달력을 놓고 사는 미래학자, TV를 거꾸로 놓고 보는 괴짜 교수, 한국 벤처 1세대의 아버지, 드라마 [카이스트]의 실제 모델 등 화려한 수식어로 불리지만, 그 스스로는 '꿈을 키워주는 사람'이라 칭하는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이 현실의 장벽 앞에 힘겨워하고 있는 젊은이들을 위해 마련한 인생 문법이다. 저자 이광형 총장은 카이스트 전산학과 교수 시절 한

국 1세대 벤처 창업가들을 대거 배출해 벤처 창업의 대부로 이름을 알렸으며, 이후 인공지능과 바이오정보, 미래학까지 분야를 넘나들며 미래를 향한 자신만의 꿈을 하나씩 실현해 왔다. 무수한 제자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한편, 본인의 삶을 통해 꿈이 가진 힘을 증명해 온 그는 책에서 이렇게 말한다. "밤하늘의 별은 모두 저만의 독특한 빛이 있다. 우리도 그렇다. 남과 비교하거나 경쟁에 휩쓸리지 말고 나만의 꿈을 찾아라. 나는 나만의 고유한 색을 찾을 때 가장 빛난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 잘할 수 있는 것에 온 마음을 다해 뛰어든 때, 비로소 우리는 밤하늘의 별처럼 유일무이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가 꿈을 찾아야 하는 이유다. 총 열두 주제로 풀어낸 그만의 인생철학은 삶의 지향점을 잡지 못하는 이 땅의 모든 젊은이에게 방향타가 되어주는 것은 물론, 인생의 변곡점에서 방향하는 장년층에게도 유용한 지침을 제시해줄 것이다.



▶ 27회 이분용
분용이의 데굴데굴 인생일기

| 솔과학
저자에게 글쓰기란 삶의 시절시절을 지탱하게 해준 힘이 되었다! 쓰면서 애환을 풀고 객관화하며 그렇게 견뎌낸 세월이었다. '분용이의 데굴데굴 인생일기'는 읽는 동안 어느새 나의, 우리의 이야기가 된다! 분용이의 꿈, 사랑, 행복, 그리움은 나이고 나의 이야기이다! 저자의 글 속에는 삶의 기쁨과 슬픔과 행복이 오롯이

녹아 있다! 하지만 저자의 글 속에 있는 유머는 피식 미소를 짓게 하고... 나의 삶에 그대로 투영된다! "그 삶을 지탱하게 해준 건 그즈음 알게 된 고등학교 동기회 컴퓨터 게시판이었다. 그 게시판이 속을 털어내는 유일한 길이었었는데 핸드폰의 카톡방으로 자리가 옮겨지면서 지난 그 세월을 돌아보니 어느새 20년이 넘었더라. 일기장 같은 카톡들..."
잔잔한 감동이 스멀스멀 올라오고... 삶의 위로가 되는 글이다.

팔순에 떠난 14회 졸업60주년 기념여행

모두 건강하자고요... 구순 여행 가야하니까

고대하던 2022년 9월 28일, 모이기로 한 시각은 8시 20분, 출발 예정 시각이 8시 30분. 한 시간이면 충분하리라 계산하고 한 시간 반 전에 여유 있게 출발했지만 모임 장소에 도착한 건 아슬아슬한 8시 27분이었다. 몇 년간 출근 시간대에 전철을 타본 적이 없으니 그 시간대에는 전철 운행 시간이 밀린다는 것을 염두에 두지 못한 탓이다. 내가 제일 늦게 도착하여 멧쩍어하며 살펴보니 다른 남녀 학생(?)들은 모두 정해진 자리에 들뜬 얼굴로 앉아 있다. 이 시간에 맞추려고 먼 곳에서 온 친구들은 필경 밤잠을 설쳤으리라. 팔순이 되어서도 수학여행은 즐겁고 마음 설레는 것. 머리 허연 늙은 학생들이 벌써 수다가 늘어지기 시작한다. 평소에도 저렇게 웃음이 흐드러질까, 여기저기 희망 가득한 웃음이 터져 나온다. 렉서리한 버스 두 대에 나누어 타고, 각 버스에는 우리 동기 중에 가장 예쁘고 씩씩한 엄숙자, 정선자 두 동창회 간부들이 제각기 말솜씨와 유머를 뽐내며 안내와 주의사항 등을 엮어낸다. 삼척에서 갖가지 생선구이로 걸쭉한 점심에, 즐기는 친구들은 벌써 한잔 술에 거나해져서 첫 번째 방문지인 덕봉산 해안생태공원으로 향했다. 아스라한 푸른 수평선 옆에 다만 홀로 암전하게 솟아있는 덕봉산, 길지 않은 돌레길과 정상으로 오르는 길을 각자 기운에 맞추어 오른다. 그러나 아아, 그 불과 몇 계단 되지 않는 오르막을 무릎을 잡고 간신히 오르는 친구들이 꽤 여럿이다. 어이하라. 세월의 무상함을... 불과 10년 전 50주년 여행 때만 해도 그렇게 뛰다시피 씩씩하던 친구들이었거늘. 다시 얼마를 달려 동해 바닷가 민속 테마를 주제로 삼았다는 해신당 공원에 다다랐다. 애랑이라는 처녀와 결혼을 약속한 동네 총각이 있었는데 고기잡이 간 총각을 바닷가 바위에 앉아 기다리던 애랑이 바닷물에 휩쓸려 그만 빠져 죽었더라. 그 후로 애랑이의 한이 서렸는지 이 바다에서는 고기가 잡히지 않았더라네. 고심하던 동네 노인들이 애랑의 혼을 달래기 위하여 총각들을 모아 바닷가에 늘어세워 놓고 그들의 거

룩한 양다리 사이의 물건을 흔들게 하였더라. 그렇게 양물 전시회를 감상한 애랑이 화를 풀어 그 후로는 고기가 잘 잡혔단다. 그런 전설을 기리려고 이 공원에는 각양각색의 남근을 조각하여 세워 놓았는데 크기도 제각각, 모양도 가지가지, 그런 조각상들을 애랑이 질투하여 심술부리면 어찌 하려고 몇몇 여동들은 쓰다듬고 어루만지며 야릇한(?) 미소까지 휘날리며 사진을 찍는다. 아스시오. 애랑의 질투도 질투려니와 철없는 그 녀석들에게서 물이라도 흘러 나오면 그 또한 어찌 감당하리오. 저녁은 이 지역 명산이라는 영덕대계와 해산물로 거하게 즐기고 청송의 호텔로 향했다. 이튿날은 느지막이 해발 660m의 청정 고산 수목원으로 향했는데, 전날의 호사스러운 저녁에 한잔 술이 과했던지 버스 안에서 졸다 보니 어느덧 목적지에 도착하였다. 그야말로 청정수목원으로 갖가지 종류의 수목이 어우러진 수풀 속으로 이어진 산책로와 연못, 정자들이 마음의 휴식을 가져다준다. 그 사이를 누비며 소풍 나온 초등학교 꼬마들의 재잘거리는 모습은 또 얼마나 귀여운지, 수목원 경치도 경치려니와 고 녀석들 구경도 또한 오밀조밀한 즐거움이였다. 내려올 때 깽 상태로 밖을 내다보니 해발 660m라는 높이가 장난이 아니라 꼬불꼬불한 산길이 그야말로 구절양장(九折羊腸)이었다. 이런 길을 경치만 믿고 좋다고 도보로 오르내리려면 그 고생을 어쩔 뻔 했을꼬? 이번 여행길에 또 한 가지 감격은 동창회 간부들의 치밀한 계획과 사전답사로 우리 나이에 걸맞게 무리 없는 여행을 준비했다는 점이다. 그들의 노고를 다시 한번 치하한다. 점심은 저녁의 거한 만찬을 위하여 냉면과 갈비탕으로 간단히 넘기고 포항 시내를 운하 크루즈로 즐겼다. 가히 이번 여행의 하이라이트라 할만하다. 멀리서 전망하는 포스코의 전경도 웅장하였고 운하를 누비는 크루즈 선에서 바라보는 오밀조밀한 시가지 풍경, 낚시터와 해상정자, 포항시를 배를 타고 관광할 줄은 미처 상상하지 못했다.



저녁은 기대했던 화합의 한마당.
 호화로운 호텔 뷔페식이 무르익을 무렵 우리의 성경모 회장의 거룩한 인사말이 있었다. 요는 즐겁게 놀고 늙어가는 우리들의 우의를 다져가자는 것이었는데 그 말이 끝나자마자 노래한 곡 요청을 받은 성 회장의 익살스러운 흥! '있을 때 잘해!' - 눈은 지그시 감고 그 특유의 경쾌한 몸놀림, 매력적이고 걸쭉한 목소리, 한순간에 분위기는 그야말로 즐거운 잔치 마당으로 옮겨간다. 이후 이어지는 갖가지 레파토리들, 뽕짜서부터 샹송, 이탈리아 민요까지, 그리고 흥에 겨워 어우러지는 춤판, 어찌 저런 흥을 속에 감추고 살아왔으면 싶을 정도로 시간이 끝나감이 못내 아쉬울 만큼 즐거움이 넘치는 밤이다. 평소에 점잔을 빼던 여동들도 거리낌 없이 춤판에 어우러진다. 이런 신나는 밤이 앞으로 몇 번이나 더 있을까?
 이윽고 마지막 날, 영주 무섬마을 관광에 나선다. 삼면이 하천으로 막히고 이웃 마을과는 기나긴 외나무다리 하나로만 연결되는 마을로서 전통 기와집과 초가가 어

우러지는 마을인데 근사하게 지어진 정자 위에서 대충 구경하고 외나무다리로 향했다.
 넓은 모래사장을 지나서 막상 외나무다리로 오르려는 순간, 뒤에서 짙은 여자 목소리가 들린다.
 "어휴! 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렇게 많아?"
 뒤통을 두드리며 한마디 내뱉는다. "뭘, 할아버지?"
 햇바닥을 날름하고 도망가듯 비껴가는 아가씨가 이 할아버지 눈에는 귀엽기만 하다.
 무섬마을을 지나, 전에도 몇 번 들렸던 영주 축협에서 운영하는 식당에서 푸짐하고 맛 좋은 한우 불고기로 이번 여행 마지막 식사를 즐겼다.
 이번 여행에 참석하지 못한 여기 영주가 고향인 금정호 동문이 떡 한 상자씩을 보내와서 고마웠고, 특히 멀리 미국에서 이 여행에 동참하려고 온 안태민 동문 부부가 시종 우리와 함께 즐거움을 나누었다. 10대에 3년을 함께 공부했던 인연이 팔순에 이르러서도 태평양을 건너왔다. 어찌 감개무량하다 아니할쏘나? 글_박연우(14회)

팔순에 '졸업 60주년 수학여행' 소감 한 마디



〈김현숙〉 짧지만 긴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다. 70명이 함께 하기로 했으나 막상 떠날 때는 50명. 버스 두 대가 꼭 차서 떠났다. 남쪽을 택한 이유는 비 피해가 심한 곳을 도와야 한다는 집행부의 깊은 생각 때문? 비 피해가 심한 곳이어서 숙소나 음식에 차이가 있었으나 우리 중 아무도

불평하는 친구는 없었고 씩씩이도 여유로웠다. 포항제철, 자랑스러운 곳, 바다를 바라보며 최명상 장군의 선창으로 예정에 없었던 애국가를 불렀다. 누군가가 태극기를 꺼내 들었고, 모두 차렷 자세로 비장하게 불렀다. 가슴이 뭉클해졌다. 사진은 없다. 모두 애국가를 불렀으니까... 떠날 때 서먹했던 분위기는 돌아올 땐 사랑으로 가득해졌다. 또 이런 날이 오게 되기를~~~ 모두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했다. 몸 사리지 않은 봉사 회장님, 엄대장, 양자썩 등등 모두 모두 수고 많으셨어요!



〈안태민〉 우리 한국 여행이 늦게 잡히는 통에 엄 대장한테 예비명단에 넣어 달라고 부탁했더니 걱정말고 오라고 해서 그 말만 믿고 왔습니다. 잊지 못할 추억이 됐으며, 여러분 친구들 이렇게 반가워해 줘서 너무 너무 고맙습니다!



〈권철혜〉 안태민 부고 미주지역 14회 회장님 사모님께서 2013년 그 곳에서 동창회할 때 저녁식사 대접부터 관광안내도 해 주시고 수고 많으셨어요. 다시 뵈고 함께 여행할 수 있어 반가웠어요. 그곳에 계시는 동문 여러분 더 건강하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자〉 즐거웠던 여행 기록을 친구들 수고로 보게 되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도 아슬아슬하게 다녀온 탓에 그땐, 모르고 지낸 기본 순간들이 많군요. 회장단을 비롯한 친구 여러분 덕분에 좋은 여행 했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김명자〉 우리가 긴 인생을 살았지만,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그 시절이 좋았고 즐거웠습니다. 이번 여행에서 다시 한번 그 시절을 회상하며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모두 건강 잘 지켜 구순 여행도 기대합니다. 성경모 회장을 비롯하여 정선자 부회장, 엄숙자 총무,

여러 친구의 헌신적인 마음으로 우리 동기들은 행복한 여행을 했습니다. 사랑합니다!



〈권혜자〉 마음들이 하나로 모였던 2박 3일! 글과 사진을 보면서 가슴이 뛰고 계속 눈가가 촉촉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가 이렇게 웃음이 나는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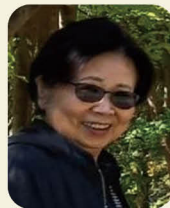
〈변정선〉 14회 회장님을 비롯하여 보물 같은 훌륭한 집행부 님들 덕분에 60주년 기념 여행은 모두 기대 이상으로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을 거예요~~. 헌신적인 노고에 감사, 또 감사한 마음 전합니다~~^^



〈홍수경〉 멋진 우리 친구들 만나서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사진이 너무너무 많아서 예쁜 모습 다 못 올립니다. 양해 바랍니다. 부디 건강 조심하고, 예쁜 모습으로 행복하게 다시 만나요. 모두 모두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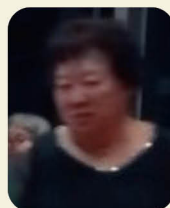
〈김광자〉 성 차장님, 베트남 여행 때를 기억해주셔서 너무 감동했고, 여러 사람을 일일이 챙겨주셔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방수자〉
또 만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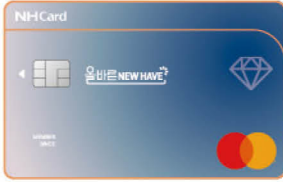
〈신호영〉 친구들아, 긴말 필요 없고, 각자 체력 단련하고 이런 세월 간직하자. 사랑한다!



〈이선자〉 이대로 영원히 건강합시다, 모두들! 아니 벌써 여기까지 왔네요! 오, 내 청춘 돌리도~!

우리지점 추천상품!

올바른NEW HAVE카드



※연회비: LOCAL 1만 2천원
MASTER 1만 2천원

나를 가장 잘 아는 스마트한 카드

- ✓ 국내/외 이용가맹점 **0.7%** NH포인트 적립
- ✓ 6개 영역 중 당월 이용금액 1위/2위 영역 기본적립의 **3배/2배** 자동적용
 1위 영역 기본적립 0.7% + 추가적립 1.4% 총 2.1% 적립 2위 영역 기본적립 0.7% + 추가적립 0.7% 총 1.4% 적립
- ✓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통합 월 10회)
- ✓ 국제공항 라운지 무료이용(월 1회, 연 2회 제공)

스마트적립 영역

🛒 온라인 쇼핑/배달앱 🛒 오프라인쇼핑/잡화 📞 이동통신 / 구독 ☕ 커피 / 편의점 🚗 대중교통 / 택시 ✈ 해외

※ 전월실적에 따라 제공한도내에서 혜택이 제공됩니다.

올바른POINT UP카드



※연회비: W (JCB) 1만 2천원,
VISA·MASTER 1만 4천원

적립한도 없이 최대 2.0% NH포인트 적립

- ✓ 국내·외 전 가맹점 **0.7%** 기본적립
- ✓ 하나로가족고객 **+0.1%~0.3%** 우대적립
- ✓ 생활영역 **+0.5%~1.0%** 추가적립 (쇼핑/편의점·잡화/영화/커피·제과/해외/교통)
- ✓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통합 월 10회)
- ✓ 국제공항 라운지 무료이용(월 1회, 연 2회 제공)

※ 전월실적에 따라 제공한도내에서 혜택이 제공됩니다.

SOHO BAZIC카드



※연회비: LOCAL 1만원
MASTER Platinum 1만5천원

품격을 경험하라! 개인사업자 필수 기업카드

- ✓ 국내·외 전 가맹점 **0.3~0.7%** 청구할인
- ✓ 주요 사업경비업종 **0.5~0.7%** 추가 청구할인
주유/대형마트/농협판매장/온라인쇼핑/이동통신/의료/골프/전기/미용재료/차량정비/해외

※ 전월실적에 따라 제공한도내에서 혜택이 제공됩니다.

사외이사 노용오(33회 동기회장) 010-7676-6476

※ 카드이용대금과 이에 수반되는 모든 수수료를 지정된 대금 결제일에 상환 합니다. ※ 신용카드 발급이 부적절한 경우(연체금 보유, 신용점수 낮음 등) 카드발급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금융소비는 금소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해당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카드서비스 적용은 NH농협카드 가맹점 분류상 해당 가맹점·업종 이용액에 한합니다.
 ※ 카드 이용 시 제공되는 혜택, 이용조건(포인트 적립 및 할인 제외 조건 등)에 대해서는 약관, 상품설명서, NH농협카드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해외원화결제서비스(DCC) 사전차단 서비스 이용방법 - 홈페이지/모바일앱 : My NH > 안심서비스 > 해외원화차단서비스 / 영업점 및 고객센터를 통하여 신청바랍니다.
 ※ 해외이용 시 국제브랜드수수료 및 해외서비스수수료가 별도로 포함되어 청구됩니다.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card.nonghyup.com

카드고객상담센터
1644-4000

※ 신용능력에 비해 신용 한도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개인 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개인 신용평점 하락 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정기간 원리금을 연체할 경우,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연체이자를, 회원별 이용상품별 약정금리 최대 3%(법정 최고금리 20%) 이내 단, 연체 발생 시점에 약정금리가 없는 경우는 아래와 같이 적용함 - 일시불 거래 연체 시 「가맹발생 시점의 최소기간(2개월), 무이자할부 거래 연체 시 「가맹발생 시점의 동일한 할부 계약기간의 유이자 할부 금리 적용 - 그 외의 경우 약정금리는 상법상 상사법정이율과 상호금융 거래지급대출금리* 중 높은 금리 적용 * 한국은행에서 매월 발표하는 가장 최근의 비은행금융기관 기준평균대출금리 산출기준

영업점 연락처

24회 졸업50주년 수학여행

50여 년만에 찾은 경주 불국사 계단엔 까까머리 소년·단발머리 소녀가 ‘어른어른’

9월 27일(화) - 첫날

나는 서울역(KTX)이 아닌 수서역(SRT) 출발팀이었다. 처음 가보는 역이라 일찍 서둘러 3호선을 타고 와 두리번거리며 둘러보니 반백의 머리를 모자로 눌러쓴 채 웅기웅기 모여 있는 뒷모습들. 가슴 설레며 조심스럽게 가우똥거리며 보니 동창 맞네.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 멋지게 익어가는 친구 몇몇도 있다. 전광판을 보고 일단 홈 번호 6을 기억창고에 넣고는 앱으로 예매한 티켓은 종이 티켓으로 바꾸어야 하는지 매표창구에 확인하니 그냥 보여주면 된단다. 일단 한 가지 고민은 해결. “근데, 저 이거 경로 티켓인데요?” “……” 묵묵부답. 창구직원이 묻지도 않았는데 나 스스로 노인, 아니 어르신임을 스스로 고백한 건, 젊어 보이기를 희망하는 반증의 심리가 깊이 자리했는지도 모를 일이다. 껌연쩍게 웃으며 함께 탈 친구를 살펴보니 아뵘싸! 아무도 보이지 않는다! 슬며시 걱정하며 2호차에 오르니 이미 여유 있게들 앉아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출발 멘트가 들리고 같은 칸에 동승했을 친구들을 찾느라 아수라 같은 몇 초의 시간이 흐를 때, 젊은 청년 같은 안내원이 “마스크를 쓰셔야 합니다~!”며 지나간다. 설레는 마음을 알아채기라도 한 듯 기차는 우리를 소리 없이 실어가기 시작한다. 뒷좌석 동기들이 벌써 시간여행을 떠나며 숫자를 세고 있다. “2022에서 1968을 빼면 몇 년 만이지?” 답이 필요 없는 줄 알면서도 서로가 틀린 답을 내놓고 즐거워하며 소녀 같은 웃음을 터뜨린다. 흔히 여행의 진미는 어디로 가는지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더 멋진 추억을 만든다고 하지 않던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수다 삼매경에 빠져 있다 보니 어느덧 대전을 지나 두 시간 쯤 지났을까? “신경주역입니다!” 새로 지어 말끔한 역사와 신선한 초록과 가을하늘이 눈에 들어오자 모두가 환호성을 지른다. 안전하게 도착했음을 즐기는지, 두 시간 남짓 짧은 기차여행의 아쉬움인지, 아니면 코로나로 몇 년 만에 보는 친구들 얼굴을 보는 반가움의 비명인지… 분명한 건 50년 전으로 타임머신을 타고 온 개구쟁이 소년소녀들이었다. 주차장에서 기다리는 두 대의 28인승 버스 앞에는 타지역에서 미리 도착한 친구들이

반갑게 맞아준다. 잔뜩 기대를 안고 차에 오른다. 그리고는 그때의 소년 소녀들이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시작되는 우리들의 시간. 참으로 많은 추억을 남겨준 짧고도 알찬 여행이 시작되고 있었다. 가이드가 일정 안내를 하는 동안에도 참을 수 없는 반가움, 집을 떠나온 자유로움과 우리가 만들 추억에 들떠 모두 소란하다. 이틀간의 세부 일정표를 보니 우선 세심하게 선정된 느낌의 5끼 식사 장소와 메뉴가 눈길을 끈다. 세월이 좋아져 수학여행 단독방에 식당 이름은 물론 메뉴 사진까지 올라와 있다. 행사를 준비한 임원이 여행사 직원과 미리 답사해 시식까지 하며 꼼꼼하게 고른 식당들이라 한다. 맛난 음식 탐방도 여행의 즐거움에 속하지 않는가? 남편 고향이 이곳 경주다. 경상도 음식이 뭐 그리 맛난 것이 있었던가? 기억에는 그저 짜고 맵고 했지만 그래도 즐겁다. 아무튼 이틀간 할 일이라곤 걷고 놀고 쉬며 먹는 일뿐이니 무척 기대된다. 바닷가 암초 틈에 모셔진 문무대왕릉과 (경주에서만 볼 수 있다는 부채꼴로 누운) 주상절리를 보고 불국사를 보기 전 석굴암에 먼저 들렀다. 입장하며 담은 단체 사진은 57명 모두 흰 상의를 준비해 앞으로 남은 시간에서 가장 젊은 우리의 모습을 담았는데 참 보기 좋았다. 그리고 54년 전 (사대부 중 수학여행 때) 반별로 층계에 앉아 단체 흑백 사진을 찍었던 불국사 청운교, 백운교를 지나 수십 년 만에 마주한 다보탑, 석가탑, 대웅전. 아름답고 눈부시다. 점심으로 먹은 떡갈비 정식은 주요 식단 그릇이 방짜유기 놋그릇에 담겨 나왔고, 첫날 일정을 마친 후 마주한 저녁 식단은 흑돈 바비큐였다. 황성에 귀촌한 남자 동기들이 직접 빚어 (크고 운치 있는) 유리 용기에 담아온 야관문주와 야홍화주가 테이블마다 돌고 도니 신라 왕족인들 이보다 더 잘 먹었겠는가. 첫날의 '사고', 아니 작은 '참사'의 원인은 저녁 식사 후 우리가 숙소로 가기 전 야간투어로 들른 동궁과 안압지(월지)에 있었다. 버스로 이동하는 구간마다 가이드를 자처한 개구쟁이 남자 동기가 퀴즈로 숨통 조이듯 우리들을 웃기고 울리며 괴롭혔다. “잘 기억하면 둘째 날 점심 후에 결선을 거쳐 경주빵을 상품으로 준다”며. 치매 초기는 아닐지라도



자주 깜박하는 일이 일상이 되어가는 이 나이에 뭘 암기며 퀴즈 놀이? 결국 열심히 외우고 외워 손을 번쩍 들고 퀴즈 정답인 '동궁과 월지'를 급하게 목 터지라고 외쳤다. 근데 '동궁 과월지'로 들렸다면 띄어쓰기를 트집 잡으며 상품을 안 준단다. 거기에다 못된 이 남학생이 내 이름을 '과월지'로 새로 지어주었다. 그래서 귀가 때까지 여행 참여자 단독 방에서 난 <과월지>로 불렸다. 아무래도 좋았다. 경품으로 받지 못한 경주빵은 내 돈으로 푸짐하게 살 거니까! 야경 투어를 마치고 경주 외곽에 위치한 럭셔리한 콘도에서 룸메이트들과 쓰시지와 닭발 볶음을 곁들인 맥주 10캔으로 시작한 신라의 달밤은 새벽 한 시 넘어 막을 내렸다.

9월 28일(수) - 둘째 날

콘도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싱그럽다. 일기예보는 종일 흐리다고 했는데? 행복 만만!

신경주역에 도착한 어제도 간간이 떨어지던 빗방울에 순간 모두가 외쳤다. “앗, 우산~!” 하지만 버스 출발 5분 후 빗방울은 멈췄고 문무대왕릉 바닷가에서 불국사까지 가는 곳마다 우리를 환영하듯 시원한 공기 속에 햇살이 간간히 비추어 주었다.

첫날 저녁 흑돈 바비큐로 배가 불러 아침은 생략하고 싶었다. 아침 8시 숙소를 나와 버스로 아침 식장으로 끌려갔다. (답사팀이 추가한) 전복이 한 마리씩 들어간 순두부 정식. 엄청난 반찬 양과 종류가 놀랍다. 건너편에 앉은 친구 전복이 더 커 보인다고 투정도 부려 보며 아침을 먹고 따사로운 햇살을 등 뒤로 받으며 여학생 모두가 선글라스로 한껏 멋을 부리고 고즈넉한 한옥들이 있는 양동마을로 향했다. 근

데 그곳은 경주가 아닌 포항이며, 256명 인구에 150가구가 사는 민속 마을이란다. 이 모두가 (경주빵 20상자가 걸린) 퀴즈 문제로 나올 만한 수치였기에 열심히 외웠다. 근데 출제된 문제는 뜬금없이 “양동마을 초등학교 교사 수는?”이다. 아뿔싸! 또 당했다. 난 평생 경품 운이 없으니 일찌감치 저 수북이 쌓인 경주빵을 포기하는 게 속 편하다.

푸짐하고 다양한 싹밥을 점심으로 먹은 후 들른 국립경주 박물관엔 수학여행 온 학생들로 북적였다. 사대부중 수학여행 때 본 에밀레종, 금관, 토기들 외에 전시품목들이 많이 증가했고 조명과 시설이 좋아졌다. 이제 첨성대와 대릉원의 천마총 그리고 유명한 최 부자택이 남았다고 한다. 몇몇 여자동기들이 다리가 아프다고 더 걷기를 포기한다. (참가비 20만 원을 생각하며 악착같이 따라 간) 나머지는 천마총, 첨성대, 교촌 최 부자 집까지 둘러보고 드디어 처음으로 2시간 자유시간이 주어졌다. 모두가 쇠사슬에서 풀려난 노예 상선의 노예라도 되는 듯 미친 듯이 카페로 달려간다. 딱딱한 1박 2일 일정에 천년 고도 경주의 모든 것을 보여준다고 행사를 꾸민 임원진의 노력과 여행사의 정성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졸업 50년에 성큼 다가온 일흔이라는 숫자는 단지 숫자만이 아니라 우리의 기를 조금씩 갉아먹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카페 휴식 후 우리 1박 2일 경주 수학여행의 마지막 진수성찬이 저녁 식사로 제공됐다. (식당 이름도 <진수성찬>이다.) 우리가 이틀간 먹은 5끼 식사가 모두 진수성찬이었음을 기억하게 하려는 주최 임원들의 악랄한 작전인가? 아니다. 실제 교촌마을의 (100년은 족히 넘어 보이는) 한옥 식당의 모든 방을 57명이 접수해 받은 상들은 정말로 진수성



찬이었다. 보리굴비, 해물, 육회, 찌개 그리고 다양한 전과 나물들. 식사를 끝내고 한옥식당의 넓은 마당에서 동기회장의 멋진 노래와 또 다른 소년의 춤사위 섞인 원맨쇼를 본 후, 헤어짐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버스에 올라 신경주역으로 떠난다. (우리보다 하루 먼저 경주에 왔다는) 24기 공식 찍사 남자 동기는 (경주 남산 돌부처님들을 촬영하러) 2박을 더 머물고 금요일에 귀경한다며 차창 밖에서 우릴 배웅한다.

앞산 저 멀리 노을이 금관의 황금색보다 더 환하게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다. 신라 아니 경주의 노을은 붉은색이 아니고 진한 황금색인가? 태어나 처음 보는 황금빛 노을이었다. 순간 내 눈을 의심하며 다시 한번 쳐다보자 빠르게 녹아내리는 빙하처럼, 금빛 후광을 남기며 사라졌다. 짙은 금빛 노을,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올해로 졸업 50년을 맞은 우리들 모두의 노을이었다.

클_박명숙(24회 차기 회장), 김영철·사진_정교철(24회)

부고 졸업 50주년 기념 여행에 부쳐

그 어린 시절에 만났던 우리들이 50년 후에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리라고 그 누가 짐작할 수 있었을까. 중고교 6년을 함께 한 우리 24회는 유대감이 더욱더 각별할 수밖에 없지만 50년 후에도 이렇게 함께 한다는 건 서로 운이 좋아서 가능한 것이겠지.

어느 한 사람이 추억의 편린을 꺼내면 그로부터 이어지는 이야기의 실타래는 끊임없이 풀려나오며 어느새 우리는 타임머신을 타고 순식간에 그 시절로 시간과 공간이동을 하곤 했다. 까까머리 소년, 단발머리 소녀들이 굽이굽이 세월의 강을 건너 초로의 모습으로 함께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을까! 저마다 자기 몫의 삶을 열심히 살아내며 지금에 이른 우리들 각자는 누구나 자기 삶의 주인공이 아니겠나. 처음 부중에 입학했을 때 생각이 난다. 내성적이고 왜소했던 나는 덩치도 크고 똑똑해 보이던 동기들 사이에서 이들을 따라가려면 참 쉽지 않겠구나 하며 험난할(?) 앞날을 예감했었다. 그런데 그때는 몰랐지만, 이제는 안다. 사대부고를 다닌 것이 내 삶에서 얼마나 큰 행운이었는지를... 안팎으로 훌륭한 친구들을 보며

여러모로 배우려고 애쓰다 보니 모든 면에서 더디고 깨달음이 늦는 나도 겨우겨우 발을 맞출 수 있게 되었다. 세월은 우리에게서 발그레한 얼굴과 검은 머리카락, 푸릇한 꿈 등 많은 것을 거두어 갔지만 이제 와 보니 내어준 선물도 있음을 알겠다.

막막하고 외로울 때 곁을 내어주는 친구 그리고 올바르게 살게 해주는 삶의 지혜는 공들인 시간으로 인해 주어진 보상이 아닐까.

고맙네! 사대부고 24회 친구들! 그대들이 있어서 쉽지 않은 인생길 지금까지 잘 헤쳐 왔다네. 앞으로도 남아 있는 우리 여정 서로서로 도움 주고받으며 마무리를 잘 할 수 있기를...

추신 : 이 다음에 즐겁게 떠올릴 수 있는 추억의 한 갈피를 선물해준 집행부 변형완 회장, 배형수 부회장, 박정은 총무, 김유준 총무. 무보직임에도 불구하고 사전 답사부터 여행 내내 친구들을 챙겨준 이태종 동문. 삼삼오오 모여 있으면 어느샌가 나타나 예쁜 사진을 찍어준 정교철 동문. 모두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김영철_일산 (서울프라임치과) 원장



소백산
자연
풍기사과농원

최플가든

최플가든 : 네이버쇼핑 스마트스토어
smartstore.naver.com

달콤하고 향기로운 사과로
명가의 대를 이어갑니다



벼 재배에 가장 적합한 땅 이천에서 식량 자급자족을 꿈꿀 시기 선친이 수상한 통일벼 전국 다수확 최우수상 수상 농가의 영예를, 그 둘째 아들이 사과에 가장 적합한 기후와 토질의 땅 풍기에서 맑고 깨끗한 테라피계곡의 청정수를 먹으며 산소농도 짙은 소백산 바람을 가장 많이 맞는 사과밭, 최플가든에서 달콤하고 향기로운 사과로 그 명가의 대를 이어 갑니다.

미리 주문하지 않으면 맛볼 수 없음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소그룹이 1박하며 소백산을 오를 수 있도록 컨테이너 하우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 ※ 11월 수확한 미안마 후지사과는 연말연시, 설 선물 및 가족소비용으로 내년 4월까지 저장 판매 예정이니 언제나 연락 · 주문 바랍니다.(010-9070-4687).
- ※ 동문들의 구입이나 소개판매분에 대하여 총동창회에 일정부분 기부됩니다.



● 동기회 소식

▶ 9회 _ 회장 조동암



아~더워 죽겠다를 입에 달고지냈던 여름이 가고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니 우리 9회 친구들이 다시 뭉쳤다. 10월 28일 22명 친구들이 경북공영 토속촌에서 오후계백숙으로 든든하게 겨울을 지낼 준비를 하고 길건너 경북궁으로 들어가 경회루의 우아한 아름다움과 어우러진 초가을의 단풍을 한껏 즐겼다. 오랫동안 서울 궁궐나들이를 하고 다리가 건강함을 자신하는 몇몇 친구는 최근에 개방된 '송헌녹지광장'의 아름다운 야생화 군락지를 돌아보는 기회를 가졌다. 이곳은 일제강점기때는 동양척식회사 부지로 해방후에는 미국대사관 숙소로 사용되어 4m의 높은 돌담으로 막혀 있어 답답했던 곳이 110년만에 우리에게 돌아왔다. 이곳에 2027년에 '이건희 기증관'이 건립되면 고궁과 어우러진 멋진 문화공간이 만들어지겠쥬. 지난 11월 4일에는 윤석남 친구가 제23회 이인성미술상을 수상했고 전시회도 열렸다.

▶ 10회 _ 회장 김태무



그동안 코로나로 자제해 왔던 단체여행을 1박 2일 일정으로 동해안 정동진 부채길로부터 시작해 강릉에서 초당두부 집에서 두부찌개로 중식을 하고 속초로 올라가 회 정식을 무집하게 먹은 후 인근의 마리나베이 호텔에서 1박하고 다음 날 고성 통일전망대 관람, 송지호를 둘러보고 바우자음 조각공원에서 작품을 감상 후 이곳 카페의 유명한 커피를 맛본 후 귀경하였다. 총 38명(남 18, 여 20)의 동창이 참석 오랜만에 즐거운 만남의 회포를 풀고 왔다. 또한 선농산우회는 만추의 역사꽃을 즐기기 위해 10월 정기산행 일인 10월 28일에 하늘공원을 찾았다. 전주의 동해안 여행 여독이 안 풀려서인지 참석인원이 다소 저조한 편이었으나 13명(남 6, 여 7) 참석, 얼마 남지 않은 금년의 마지막 가을을 즐기고 왔다.

▶ 11회 _ 회장 이민섭



지난 11월 11일 11시에 회원 61명(여 30, 남 31)이 양재동 엘타워 8층, 엘가든 홀에서 2022년도 정기 총회를 개최했다. 11회 소모임인 산책회는 9월 14일 12명의 회원이 광화문 광장을 답사하였고 10월 12일에는 남산 백범광장을 9명의 친구들이 답사한 후 남산 성곽길을 걸었다. 매월 1, 3째 주 수요일에는 인사회 회원의 기부금으로 마련한 새 컴퓨터로 동창회관에서 열광하고 있다.

▶ 12회 _ 회장 강선중



코로나 감염병으로 그동안 총회를 열지 못하고 동기회 카톡방에서 정겨운 대화를 주고받으며 지내다 거리두기 제한이 완화되어 지난 10월 21일 낮12시에 양재역 갈비사랑에서 총회를 개최하고 새로운 회장단을 선출했다. (회장 : 강선중, 부회장 : 이희자, 감사 : 정철, 총무 : 서흥석, 정경숙) 앞으로 소모임인 등산과 바둑모임도 활성화하여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그리고 10월 26일 오후 2시 30분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여순문 석은옥 저서 '주님만 따라간 삶' 북콘서트를 성황리에 개최하였고 11월 1일 오후 5시 30분에는 프레지던트호텔에서 미국 백악관 국가 장애위원회 정책보좌관을 지낸 석은옥 동문의 부군 강영우 박사 10주기 추모회도 있었다.

▶ 13회 _ 회장 조지명

하늘도 파랗게 드높고 화창한 9월 30일 가을을 만끽하며 다녀온 아산 외암 마을과 봉곡사 천년 숲. 지중해 산토리니 모방 마을에 예술일곱의 친구들이 다녀왔다. 코로나가 약간 주춤한 때이지만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만난 친구들이 너무나도 평화롭고 여유 있는 모습으로 아름다운 시간을 누려본 순간이었다. 민속 마을 문화해설사 선생님의 유머에 재치 있는 답변을 하는 친구들의 모습이 너무 푸근했다. 돌담길에 삼삼오오 짝을 지어 걷는 친구들의 모습이 얼마나 보기 좋은지 아름다운 시간이었다.



민속 마을 저잣거리에서 우리는 푸짐한 해물파전과 빈대떡 육전 그리고 연잎주 막걸리와 산채비빔밥, 우거지탕으로 점심을 맛있게 들고 봉곡사의 천년 숲길을 잠깐 걸었다. 울창한 소나무들이 일제의 만행으로 송진 수탈당한 고통 속에서도 살아남아 상처를 아물고 의연하게 멋진 숲으로 거듭 태어나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주었다.

그리스 산토리니를 모방해 만든 지중해 마을에서의 커피, 팔빙수, 주스의 달콤함은 더욱 친구들의 마음을 녹아내리게 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 정말 감사했고 가을 나들이에 참석해준 모든 친구에게 꾸벅 인사드린다.

▶14회_ 회장 성경모



연초부터 계획했던 졸업 60주년 기념 여행이 다행히 가능해져서 남여동기 50여 명이 9월 28일부터 2박 3일간 동해안을 거쳐 포항, 영주를 돌아오는 여행을 하였다. 이제 우리 14회도 어언 나이 80줄에 들어 일반적으로는 노인이라 말할 수 있는 나이이지만 동기들이 만나면 마음은 여전히 옛 고교 재학 시절의 그 풋풋했던 어린 마음으로 돌아가 남학생, 여학생으로 부르며 깔깔댄다.

11월 14일에는 양재동 L타워 홀에서 정기총회 겸 송년모임을 가졌다. 회장단의 업무보고와 전년도 임원진에게 감사장 수여, 동기회에 공헌이 많은 동기에게 감사장과 기념품이 증정되었고 80세 자축 케익커팅에 이어 노래와 춤이 어우러진 흥겨운 시간을 가졌다. 올해는 특히 졸업 60주년 기념으로 동기들의 주소록인 회원수첩을 새로 발간해서 이날 배부하였다.

▶15회_ 회장 김성식

10월 27일 51명이 참석해 강원도 철원의 한탄강, 고석정 국민관광지로 가을 여행을 다녀왔다. 한탄강에서 통통배를 타고 가을 단풍과 어우러진 주변의 기암괴석과 주상절리의 경관을 만끽하고, 민물고기 매운탕으로 그동안 지들었던 기력을 보충하기도 하였다.



계속 연기하였던 정기총회 겸 송년회도 12월 1일 도곡동 군인공제회관에서 가졌다. 또한 내년 졸업 60주년 기념행사 계획을 만들어 총회에 보고하고 추진할 예정이다. 동창회 모임도 활발하여 산악회(회장직대 정동진)는 서울 근교의 둘레길을 걸으면서 건강과 우의를 다졌다. 당구모임(회장 김태경)과 바둑모임(회장 최명욱)도 매월 정기모임을 갖고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나사모(회장 25회 이형권) 회원들은 고교연합이 주관하는 9.28 서울수복기념일, 개천절 등 보수단체 행사에 적극 참여하고 매주 토요일 집회에도 꾸준히 참석하고 있다.

▶16회_ 회장 심향섭



7월 26일 동기 35명이 용문산을 방문, 천년 은행나무의 기를 받고 근처 계곡에 발을 담고 더위를 날려 버리고는 그곳에 오래 살고 있는 송정섭 부부의 안내를 받아 점심식사를 나누며 환담을 즐겼다. 9월 27일 여주에 있는 세종대왕의 능(英陵) 및 효종대왕의 능(寧陵)을 방문하고 신륵사 옆의 남한강 흐르는 모습을 여유롭게 즐겼다.

11월 2일 동기 43명이 철원 한탄강 주상절리 옆의 잘 가꾸어 놓은 잔도 3.5km를 걷고는 무한 리필되는 한우 생고기로 점심식사를 즐기고는 승일교를 걸으며 예쁘게 물들어가는 단풍을 즐기고는 노동당 당사를 돌아보고 돌아왔다.

▶17회_ 회장 정선

17회 입학 60주년으로 8월 25일~26일에 정동진, 정선으로 50명의 동기들이 여행을 다녀왔다. 9월 29일 대청호 가을 나들이에 65명이 참가하여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산우회에서선 10월 28일~29

● 동기회 소식

일 22명이 거제도를 탐방하며 맛있는 해산물을 맛볼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또한 12월 7일 2022년 총회 및 송년회를 브라이드밸리에서 101명이 참석한 가운데 모처럼 동문들과의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 18회 _ 회장 송남영



10월 27~28일 1박 2일 일정으로 강원도 여행을 다녀왔다. 동기 43명이 참가해 양양~속초~고성으로 떠나는 7번 국도여행을 즐겼다. 코로나로 3년간 중지되었던 전체 여행을 하게 되어 그간 만나지 못했던 친구들과 정겨운 이야기를 나누고, 수려한 가을 풍광을 만끽하며 즐겁고 값진 추억을 만들었다.

고성 통일전망대에서는 쾌청한 날씨에 금강산 한 자락도 멀리서 바라보고, 화진포 해수욕장을 거쳐 속초에서는 렉서리 요트투어를 즐겼다. 황혼 무렵에는 영랑호 물 윗길을 걷고 더클래스300호텔에서 단잠에 빠져들었다. 이튿날 설악산 국립공원에서 가볍게 트래킹한 후 케이블카를 타고 권금성에 오른 다음 중식 후 낙산사 관광을 끝으로 귀경하였다. 모두가 만족하고, 이구동성으로 앞으로 자주 이런 기회를 만들자고 다짐하며 여행을 마쳤다.

▶ 19회 _ 회장 이호균

명품 세화(회장 유성호) 모임은 지난 10월 18일 33명이 영주 풍기로 가을 수학여행을 다녀왔다. 이번 여행은 이희범(경북 문화재단 대표이사/2022영주세계풍기인삼엑스포 조직위원장) 동문의 초대로 성사되었다. 영주 무섬마을과 소수서원을 둘러보았고, 이희범 동문의 특별 배려로 영주 묵밥 등 푸짐한 점심 식사 후엔 2022영주세계풍기인삼엑스포장을 방문했다. 맑은 가을 하늘 아래서 우의를 다지고 멋진 추억을 남기며 우리는 모두 행복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중단되었던 동창회 주관 행사인 일구회 모임을 10월 19일 개최했다. 이날 양재역 부근의 왕삼돈에 20명의 동기들이 모였다. 이 모임을 통해서 동기회의 현안을 다룰 때도 있었고 해외 동기들의 환영회와 더불어 동기간의 우의를 다지곤 했다. 2년 9개월 만에 개최되는 모임인바 보고 싶었던 동기들과 반갑게 만나 덕담을 나눴다.

▶ 20회 _ 회장 이성홍, 김기순



10월 22일 제로콜 관광버스로 남동15명, 여동23명 모두 38명이 천리포 수목원을 돌아보고 만리포 해변을 거닐며 모처럼 깊어가는 가을에 흠뻑 빠져 보았다. 흙, 꽃이 없어 행하면 어쩌나 걱정했던 수목원은 울긋불긋 화려함은 없었지만 그런대로 운치있었고, 정말 오랜만에 거닐어 보는 해변과 맨질맨질 곱게도 닳은 새하얀 조약돌을 주우며 소녀처럼 좋아도 해보고... 답사 시 예약해 두었던 금빛 해변 식당의 먹거리도 아주 맛있어 만족스러웠고 시간에 쫓기지 않고 여유있는 일정에 우리 모두 만족한 즐거운 가을 나들이였다. 또 지난 9월 29일은 여동들만의 모임으로 32명의 여동들이 모여 내년 동창회 총무를 맡아 일해 줄 여총무를 선출하고 여동들끼리의 우의를 다졌다. 그리고 10월 9일 모교에서 가진 제22회 동창회장배 바둑대회에서 우리 20회는 3연승을 이루는 쾌거를 거두었다. 바둑대회 22회 중 통산 8번의 우승을 차지한 참 자랑스러운 20회다.(회장 조영익) / 10월 3일 20산-청계산에서 제321차 총회 가짐(신임회장 강석완) / 10월 27일 선구회-원주 오코밸리에서 가을골프 모임 가짐(회장 김인식)

▶ 21회 _ 회장 오부근

9월 하순에는, 2020년 5월에 멋지게 계획했다가 코로나 팬데믹

에 휘말려 자그마치 2년 반을 안타깝게 미뤄오던 국내 여행을, 무려 64명의 친구들의 적극적인 신청으로 리무진 버스 3대에 나눠 타고 하룻밤을 같이 하면서, 진도 울돌목, 목포의 해상케이블카, 신안의 퍼플섬, 변산의 마실길 등 멋진 바다 경치와 맛있는 먹거리들을 맘껏 즐겼다. 더구나 목포에 거주 중인 두 친구의 주선으로 밤늦은 줄 모르고 해변가에서 함께 떠들며 시원한 맥주 파티도 가졌다. 그러나 몇몇 친구들이 여행 바로 전날 코로나 확진으로 같이 즐기지 못한 것이 내내 아쉽다.



또한, 21회의 전통에 따라 11월 21일에 양재동 엘타워에서 86명의 친구들이 모여, 3년 만에 겨우 정기총회를 열어,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에도 동기회를 위해 여러모로 고생이 많았던 오부근 회장팀의 노고를 치하하고, 앞으로의 2년을 새롭게 김영수 회장팀에게 맡겨 더 의미 있는 동기회 활동을 기대하기로 하고, 오랜만에 남녀 따로의 합창과 개인 노래 공연, 모두 같이 손잡고 “친구”를 부르는 등의 멋진 송년 잔치로, 그동안 같이 못 했던 한을 충분히 풀며 즐거운 밤을 가졌다.

▶22회_ 회장 이기선, 박정례



22회는 코로나로 인한 긴 공백을 깨고 3년 만에 추억의 수학여행을 신안 목포지역을 1박 2일(10월 27~28일)로 다녀왔다. 이번에는 미국에서 온 세 명의 친구들도 동행했다. 51명(남 20명, 여 31명)의 친구들이 버스 2대로 나누어 타고 그동안 밀렸던 이야기를 하느라 지루할 틈도 없이 신안의 아름다운 퍼플섬(박지도, 반월도)에 도착하였다. 퍼플교와 안좌도 김항기 곶택을 둘러보고 목포의 신안비치호텔에 여장을 풀었다. 둘째 날은 유달산에서 케이블카를 타고 고하도로 가는 도중 보이는 바다 풍경이 일품이었다. 고하도 승강장에 내려 각자 알맞은 길을 택하여 산책도 했다. 전라도의 맛과 풍경 우정을 함께한 일석 삼조의 여행이었다. 지난 11월 22일 오후 6시 양재 엘타워 골드홀에서 정기총회 겸 송년회 행사를 가졌다. 1부 행사는 그동안 정기총회를 열지 못해서 임원교체 시기를 놓쳤는데 이번 총회에서 신임회장으로 정인준, 김선옥 동문이 선임되었다.

▶23회_ 회장 손창조, 박혜인



작년에 코로나로 인하여 치르지 못한 송년회를 올해 두 배로 성대하게 치루기로 목표하였으나 결국 실패하였다. 100명 참석을 목표로 하였으나 결국 64명만이 참석하는 반쪽 자리가 되었다. 78명이 신청하였으나 요즘은 부쩍 늘어난 코로나로 14명이나 직간접으로 문제 되어 참석을 못 하였다. 하지만 100명을 목표로 준비한 포도주를 남김없이 마시는 저력을 과시하였다. 송년회를 끝내고 나오는 친구들의 얼굴에 단풍 같은 붉은 기와 행복

한 기운이 가득하였고 “사대부고를 특히 1968년도에 들어가기 정말 잘했다”는 표정으로... 23회를 대표하여 총동회장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한 이규용 동기에게 그가 좋아하는 나파 밸리 최고급 와인을 선물로 주었다. 이사 다닐 때 짐만 되고 버리지도 못하는 공로패 대신에 마시면서 선물한 친구들의 정을 생각하라는 좋은 선물이었다.

작년에 가지 못한 졸업 50주년 기념 여행을 79명이 2박 3일 일정으로 다녀 왔다. 강원도의 양구를 둘러 편치 불 숲 밥을 먹고 강릉 세인트 존스호텔에서 커다란 디너파티를 열었고 강릉에서 동해까지 관광열차를 타고 가서 동해의 명물 가지미 정식을 먹었다. 오는 날은 영월 강가에서 뗏목 체험도 하고 한반도 지형에도 올랐으며 청령포로 가서 단종의 슬픈 흔적도 돌아보았다. 영월에서는 더덕구이에 곤드레밥 불고기를 먹었다. 적고 보니 결국 ‘뭐 먹었다’만 적었다. 좋은 여행은 잘 먹어야 된다는 23회의 모토에 충실한 듯하다.



▶ 24회 _ 회장 변형완



모여야 하는 이유가 너무 많았다. 1박 2일의 경주 여행이 아쉬웠다. 같이 못 한 친구들이 그리웠다. 철원 근처에 근무하는 친구 송학이가 부른다.

깊어가는 가을 11월 3일 73명의 친구들이 같이했다. 버스 3대에 나누어 타고 찾은 순담계곡 - 잔도를 따라 주상절리의 절경을 보며 걷는 코스... 산을 자주 찾는 친구들은 겨울 트래킹 코스로도 왔었다는 같은 장소인데 잔도를 따라 걸으며 보는 경치도 또 다른 멋이 있다고 했다. 아니 오래된 친구들과 같이라서 다른 맛이 있었다. 고석정과 한탄강 은하수 다리 관광 후 서둘러 돌아와 서울에 와서 저녁 식사까지 수많은 이야기가 오갔지만 정다운 옛 친구들과의 시간은 언제나 부족하고 아쉽다.

▶ 25회 _ 회장 강준석



11월 25일 오후 6시부터 엘타워 8층에서 60명이 총회를 겸한 송년 모임을 가졌다. 반가움에 터진 환성은 5시 30점수대 앞에서부터 시작되었고 9년 만에 고국을 찾은 김옥경 친구와 남편 Glen의 등장으로 기쁨의 극치로 다다랐다. 1부 순서인 심상덕 부회장의 사회로 시작된 총회에서는 강준석 회장의 2022 활동 경과보고와 심상덕 부회장의 회계 보고 및 이종석 감사의 감사보고가 있었고 졸업 50주년을 맞는 내년 행사 계획도 알렸다.

2부는 엘타워에서 제공한 올해 유난히 맛있는 음식과 정다운 이야기가 곁들여진 만찬으로 보냈고 다음엔 구수한 입담 레전드급 이호재 동기와 심상덕 동기가 진행하는 3부 여흥 순서로 이어졌다. 여흥 첫 번째 순서는 강현백, 임영재 동기의 멋진 독창과 모두의 싱얼름으로 흥이 올랐고, 이어지는 게임 순서로 천년초 열매 1봉에 담긴 개수 맞추기, 꽃차, 서리태, 결명자 등의 무게를 맞추는 추정 경기를 하여 재미있고 신박하다는 평을 받았다.

끝 순서에는 줌바댄스 강사와 멤버 5명을 초청해 친구들이 일부 무

대에서 또 다 함께 자리에 서서 동작을 배워가며 춤추고 늦은 젊음을 불태워 모두 재미있고 행복하게 하나가 되는 끝을 장식했다.

또한 이 자리에는 현 카이스트 총장인 이광형 동기가 함께 자리하면서 출간 저서 <우리는 모두 각자의 별에서 빛난다> 60권을 가져와 나누었고 유재흥 가농바이오 대표가 가농계란 제품이 골고루 담긴 선물세트를 60박스 실어왔으며 전인숙 동기가 이견만 디자이너 실크스카프, 태국 짐 탐슨 실크 스카프, 발리 장지갑 등 약 100만원 상당 9점의 선물을 기부, 심상덕 동기가 남편이 농사지어 수확한 서리태 1.5kg 15봉과 꽃차, 천년초 열매, 결명자 등 60만원 상당의 농산물 및 포도주 5병을 기부, 윤상학 동기가 2만원 스텍카드 5장, 강준석 회장이 상품권 5장을 기부하였고, 이석준 동기 100만원, 김옥경 동기 50만원, 이강년 동기 30만원, 이인재 동기 10만원 등의 기부로 더욱 풍성하고 사랑이 넘치는 송년 모임이 되었다. 올해의 뜨거움이 그대로 이어져 내년 졸업 50주년 모임으로 특별하고도 행복한 추억 만들기를 기약하며 발걸음을 돌렸다.

▶ 26회 _ 회장 권영선



코로나로 인해 3년 동안 진행하지 못했던 추수행(추억의 수학여행)을 지난 9월 29~30일 양 일 동안 KTX 연계 프로그램을 통하여 강릉 - 삼척 해상케이블카 - 덕봉산 해안 생태 탐방로 - 무릉계곡 - 하슬라 아트월드 - 강릉 중앙시장으로 이어지는 일정으로 42명의 동창이 참여한 가운데 또 하나의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었다. 2022년 11월 10일 개최된 총동창회 이사회에서 26회 이진형 동창이 서울사대부고 29대 총동창회장으로 선임되었고 12월 6일 총동창회 송년회에서 이 취임식이 거행되었다.

▶ 27회 _ 회장 이한방, 이명숙



무더운 여름, 가을 초입의 흥수, 태풍이 지나고 난 후, 단풍이 아름답게 물든 10월에 다시 평온한 일상을 서서히 찾아가고 있던 중, 10월 29일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공개한 특별전 "비엔나 명화전, 합스부르크 왕가의 보물"에 동기 32명이 참가하여 2~3시간에 걸

쳐 관람하였다. 오후 5시경에는 박물관 관람에는 참여하지 못했던 동기들까지 합류하여 마장동 한우식당으로 장소를 옮겨 모두 48명이 함께 코로나 기간 막혔던 3년 만의 만남을 가졌다.

참고로, 내년 3월 31일까지 진행되는 합스부르크 특별전을 소개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16~20세기까지 합스부르크 왕가가 수집한 르네상스, 바로크미술 시기 대표 소장품을 통해 오스트리아의 역사와 문화를 조명하는 회화, 공예, 갑옷, 태피스트리 등 96점의 전시품이 소개된다. 페터 파울 루벤스, 디에고 벨라스케스 등 빈 미술사박물관 소장 서양미술 거장들의 명화도 직접 만나볼 수 있다. 특히 1892년 수교 당시 고종 황제가 오스트리아 프란츠 요제프 1세에게 선물했던 조선의 갑옷과 투구도 이번 전시에 선보이게 되어, 한국-오스트리아 수교 130주년을 기념하고 있다.

▶28회_ 회장 이예선



3년간 코로나 때문에 못 모였던 28회 동기 42명이 모여서 모처럼 즐거운 송년회를 가졌다. 다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모이게 되어 반가웠다. 앞으로는 더 자주 좋은 모습으로 모이기를 기대한다.

▶29회_ 회장 김경순



세월의 무심함을 무엇에 비길 수 있을까? 졸업 45주년이라, 어제 같던 세월은 서리를 머리에 엮는다. 그간 위축되어 있던 우리 행보가 졸업45주년이란 이벤트에 기지개를 켜다. 우리처럼 세월이 지나도 변함없는 모습으로 깊이 침묵하는 단양, 제천 일대를 다녀왔다. 오랜만에 보는 반가운 얼굴들, 늘 봤어도 새로운 모습으로 1박을 기대하며 출발했다.

장화나루 유람선을 돌려 수목화 한가운데를 스스럼없이 파고들었고 출렁다리를 걸으며 아직도 남은 장난기가 출렁다리를 울렁이게 만들어 멀미를 일으킨다. 사방의 질은 어둠 속에 호반 끝 펜션에서 간만에 캠프파이어를 하며 기어이 또 소환된 수학여행의 그 전설을 키득이며 반짝이는 별을 헤고 하현달을 품는다.

물안개가 겹겹이 피어오르고 산과 산이 먹물처럼 번지는 아침을 맞이하여 어제 못 본 경치를 훑느라 서로가 분주하다. 늦으기의 리듬지로 향한다. 그 옛날 저수의 지혜로 아직도 농경지 관개용수를 공급한다니 몇 백년된 소나무숲, 수양버들과 함께 우리도 지혜로워지기를 소원한다.

원래 계획했던 코스를 줄여 우린 남양주의 로이테 카페에 가려고 한다. 강병헌 동기가 근래 멋진 카페를 만들었다. 북한강변에 위치한 반려동반이 가능한 베이커리 카페이다. 귀가길에 들려 격려해주고 격려받으며 북한강 멋진 정취와 깊은 향기, 달콤한 맛에 실컷 취했다. 앞으로친구들과 자주 찾아오리라 다짐하며 바쁜 귀가길을 재촉했다.

▶30회_ 회장 장세준



중요 외곽의 서쪽에서 북쪽으로 이어지는 돌담길이 새롭게 완성되었는데 '서순라길'이다. 순라길이란 조선시대의 순라군들이 육모방망이를 들고 야간에 화재와 도적을 경계하느라 순찰을 돌던 길로 종로3가에서 율곡로까지 이어지는 850m에 이르는 길. 30회 동기회는 깊은 가을 평일 하루를 잡아 공식 번개를 소집하여 11월 15일 서순라길을 걸었다. 궁궐 담장 길을 돌아 송년복지광장을 지나 광화문 광장에 이를 수 있는 '좋은 추억 쌓기' 산책의 하루였다. 또한 12월 3일 3년 만에 동창회관 선농홀에서 54명의 동기가 모여 즐거운 송년회를 했다.

▶31회_ 회장 이종식

졸업 40주년 기념 추억의 수학여행

코로나로 인해 2년간 묵혀 놓았던 40주년 기념 수학여행을 다녀왔다. 전라북도 군산과 충청남도 서천에서 가진 친구들과 가진 1박 2일간의 여정은 참 행복했던 시간으로 기억될 것이다. "우리가 언제 또 하룻밤을 함께 보내며 단체 여행을 할 수 있을지 모르는 일 아닌가? 있을 때 열심히 놀아보자구..." 맛있는 음식과 술을 나누고, 아름다운 해변에서 일몰 감상을 하고, 출발 길을 걸으며 쌓였던 이야기보따리를 풀어 놓고 함께한

● 동기회 소식

이들간의 여정은 너무나 짧은 시간이었다. 하루 연장하면 안 되나? 헤어지기 싫다 등등의 아쉬움을 남기며 우리들의 추억여행이 막을 내렸다. 신현주는 그 의미를 즉흥시로 남겼다.



40주년 기념 수학여행

“몇 년 만에 친구들을 만나 낯설을 한잔한다. 코로나가 잠서 뜸한 틈을 타서고등학교 동창들과 온 흰 머리칼의 수학여행. 옆에 앉은 현준이가 한마디 한다. 십 년 후에 다시 수학여행 행사하면 못 오는 놈들 많아질 까다.

석수가 받는다. 맞아, 다리가 아프네 허리가 아프네 또 먼저 간 놈들도 있을 거고. 그렇지, 누가 먼저 갈진 모르겠지만 하나 둘씩 먼저 가긴 가리라. 먼저 간다? 먼저 가는 일이 어떤 일일까? 다시는 그 웃음을 보지 못하는 일? 화려하진 않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모두 꽃이다. 가기 전에 많이 웃자. 우리는 꽃이다.”

그리고 2022 송년회가 11월 26일 리버사이드호텔에서 있었다.

▶ 32회_ 회장 배병철



55명의 동기생들이 길고긴 코로나 방역기준이 완화되어 미루어 두었던 가을 졸업40주년 기념 및 회갑여행을 다녀왔다. 10월말 날씨는 완벽했고 2박3일 일정의 제주도 중문단지 부영호텔로 각자의 스케줄에 맞게 도착하여 두 번의 저녁식사와 회의 참석만 함께 하고 자전거, 트레킹, 미술관탐방, 맛집찾기 등 개인 또는 그룹이 원하는 일정으로 즐기며 저녁에는 친구들 각자의 이야기를 들으며 한뼘 더 서로 들여다보는 시간을 보냈다. 비용은 오랜기간 친구들의 나눔을 적립하여 무료로 진행되었으며 완벽한 가을하늘 아래 갈대와 바다물결 반짝이는 동화같은 시간을 보냈답니다.

▶ 33회_ 회장 노용오



33회 회갑기념 인생 2막 출발 여행!

지난 10월 30일 이른 아침 멀리 지방에서 40대 같은 60 친구들이 고교알개 주인공처럼 왁자지껄 모여들기 시작하더니 26명의 동기들이 제시간에 출석하여 모교의 구관 신관을 돌아보고 회갑 기념 여행을 떠났다.



가을이란 계절에 취하고 / 오랜만에 벚들에 취하고 / 설레고 있던 내 맘땀에 취하고 / 그리웠던 조잘거림과 웃음소리에 취해 / 60 즈음에 추억 하나 더하니 맘이 풍요롭고 / 화사했던 바다 빛에 젖어 / 모든 근심 걱정 파도 속으로 밀어 넣고 / 끝없는 웃음소리에 행복했던 시간들 / 이젠 공유할 수 있는 추억으로 / 각자의 삶이란 인생 책갈피 속에 한쪽으로 남겨지고 / 많이 웃고, 떠들고, 소리치고 / 고맙다! / 보잘것없던 내 추억 속에 함께여서!

〈강원도 양양 솔비치에서〉

▶ 34회_ 회장 김기환, 정혜령



지난 11월 19일 사당동에 있는 신비디운2에서 25명의 동기가 3년 만에 송년회를 가지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35회_ 회장 김영범



내년으로 40주년을 맞은 35회는 지난 12월 3일 30명의 친구와 송년 모임 행사를 가졌다. 이날 송년회에서는 40주년 행사에 대한 토론과 35회 동기인 차승환 신임 총동문산악회장을 아낌없이 지원하기 위해 매주 셋째 주 일요일에 많은 인원이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또한, 2023년 졸업 40주년을 맞아 떠나는 졸업 여행, 선농축전 행사 준비 등을 통해 동기들과의 만남이 활발해지고, 즐거운 동창회 활동을 보내기로 약속했다.

▶36회_ 회장 김준호



12월 9일 부고동창회관에서 16명의 친구들이 참석하여 송년회를 가졌다.

▶37회_ 회장 이승수



11월 26일 종암동 '내 마음의 풍차'에서 송년 모임을 가졌다. 고향 같은 종암동에서 오랜만에 즐겁고 신나는 송년 모임을 했다. 운영진이 준비한 푸짐한 선물과 음식, 경품이 준비되었다. 1등 대상포진 접종권, 2등 페럼 접종권, 3등 메가비타민C 3000mg 그리고 전체적으로 발모 스프레이 등 선물도 한 아름 안고 행복한 미소로 내년에도 건강하게 잘 모여보자는 인사로 마무리했다.

▶39회_ 회장 정거장

지난 10월 9일 제19회 선농가족체육대회. 비 오는 날의 정취를 맘

껏 느끼며 동기들과 가족들 18명이 모여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



뒤풀이 장소에서는 내년부터 정거장 신임 회장체제로 새롭게 시작될 39회의 희망찬 미래를 위한 응원의 건배도 잊지 않았다. 코로나 시국을 잘 견뎌낸 현 임원진들과 신임 임원진들의 이취임식은 12월 1일 종암동 모처에서 송년회를 겸해서 거행되었다. 앞으로도 멋진 소식 많이 전하는 39회가 되겠다.

▶43회_ 회장 김도연



3년 만에 열린 선농가족 체육대회 연휴에 종일 비까지 내렸던 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15명의 친구들이 함께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또한 11월 24일 동문이 운영하는 추억의 명동 골목에서 43회 송년회가 열렸다. 17명의 친구들이 3년 만에 하는 송년 모임이라 너무 반가워하며 서로의 안부를 묻고 2차로 월드컵 경기를 같이 응원하며 마무리하였다.

▶44회_ 회장 정동균



시간은 어느덧 빨리 흘러 벌써 졸업 30주년이 되었다. 부고를 졸업하고 바쁘게 살아온 듯한데 이미 반백 년이나 살다니 실감이 되지 않는다. 졸업 30주년 행사 겸 송년회를 작지만 알차게 준비하여 모임을 가지고 동창회관에서 28명의 친구가 모여 서로의 존재를 빛내주었다. 10년 뒤 나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 동영상 촬영하고 30년을 맞이하여 보고 싶은 친구에게 하고 싶은 한 마디를 준비하여 동창 모두가 참여하였다. 10년 뒤 이 시간에 기록으로 남겼던 모습을 보면 얼마나 재미있을까?



다시 시작된 2학년 현장 체험 학습

10월의 맑은 가을 하늘 아래 설렘을 가득 실은 버스가 강화도로 출발했다. 코로나19로 잠시 중단되었던 2학년 소규모 테마 여행을 보다 안전하고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 이틀간(10월 20일~10월 21일)의 비숙박형 현장 체험 학습으로 변경하여 운영했다.

첫째 날은 2학년 전체가 강화도의 광성보, 동막해변 등을 방문하여 강화도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고 갯벌과 같은 습지 생태계를 체험하는

기회를 가졌다. 특히, 산 정상에서 친구들과 함께 루지를 타고 내려오며 강화도의 자연경관을 색다르게 감상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학생들의 평가가 긍정적이었다.

둘째 날은 학급별 특색 활동으로 진행되었다.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학급 내에서 다양한 의견을 모아 궁궐 체험, 바비큐 파티, 대학 탐방, VR 체험 등을 진행하면서 다음 해에는 마스크를 벗고 자유롭게 친구들과 활동할 수 있게 되길 기대했다.

수학적 관심과 재능을 확인한 2022 수학 탐구 한마당

10월의 마지막 주(10월 24일~10월 28일)에 자연과학부가 주관하는 수학 탐구 한마당 행사가 진행되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 이전에 진행했던 수학 체험전 행사를 더욱 발전시켜 정다면체 합동 분할 체험을 비롯해 평소 수업 시간에 작성한 독서 감상문 우수작과 학생들의 재치 있는 생각을 담은 수학 카툰 작품 전시를 병행하였다. 또한 데

스모스 액티비티 수업 체험, 각도기, 줄자를 가지고 삼각함수를 활용하는 실제 거리 측정 경연대회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했다. 이번 수학 주간 행사를 통해 부설고 선생님들의 차별화되고 수준 높은 수업 역량과 학생들의 수학적 재능을 확인할 수 있었다.



풍요로운 마음을 위한 인문학 프로그램

학생들의 인문학적 소양을 기르기 위하여 다양한 인문학 프로그램들을 운영 중이다. 먼저 인문학서당은 논어와 창세기 등 동서양의 고전을 읽으며 공자, 소크라테스, 플라톤 등 주요 사상가를 배운다. 아울러 학년별로 진행되고 있는 아침책 산책 프로그램과 1, 2학년을 중심으로 관심

사가 같은 학생들이 모여 책을 읽는 꿈책 산책 프로그램이 있다. 학생들은 진로와 관련한 책은 물론 문학 등 다양한 분야의 독서를 통해 지성과 감성을 함양하고 있다. 또한 성북문화재단과 협력하여 본교 선농홀에서 이루어지는 강연회에서 유명 저자들로부터 강연을 듣고 질의응답을 통해



보다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영하 작가와 인지심리학자 김경일 교수의 강연회가 10월 초순과 하순에 각각 개최되었다.

명산 종주로 느낀 고진감래의 의미와 단합의 중요성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교내 명산종주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7월 28일~30일, 2박 3일간 설악산에 다녀왔다. 코로나 상황이 아직 완전히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 참가 인원 모집에 어려움을 있을 것이라는 예상과 다르게 계획한 인원 15명보다 훨씬 더 많은 인원 23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예상보다 많은 인원이 참가한 만큼 안전이 더욱 고려되어야 했기에, 첫날은 국립등산학교



에 방문하여 종주에 필요한 안전 교육 및 각종 산악 프로그램을 이수했다. 산악은 둘째 날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한계령 휴게소를 시작으로 한계령 삼거리를 거쳐 중청대

피소에 도착하는 총 8km 코스를 등반했고, 이 과정에서 서로의 짐을 나누어 들고 함께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며 단합심을 기르고 성취감을 맛보았다.

마지막 날 설악산의 해발 1,708m 정상인 대청봉 등정을 끝으로 성공적으로 프로그램을 종료했다. 이번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고진감래의 진정한 뜻과 더불어 사는 삶의 중요성을 온몸으로 느꼈으리라 기대해본다.



MANDARINA  DUCK

인류와 지구의 행복 ESG 경영으로 영원해집니다



방글라데시에 300만평의 숲을 조성하여
130여종의 동,식물들이 다시 숨쉬는 땅으로!

전 세계 곳곳에
Roof-Top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비하여
저탄소 고효율의 친환경 에너지로!

교육기관 및 사회단체를 지원하여
누구나 희망을 이룰 수 있는 세상으로!

영원무역의 ESG경영이 만드는 것은
자연과 사람 그리고 기업이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행복'입니다